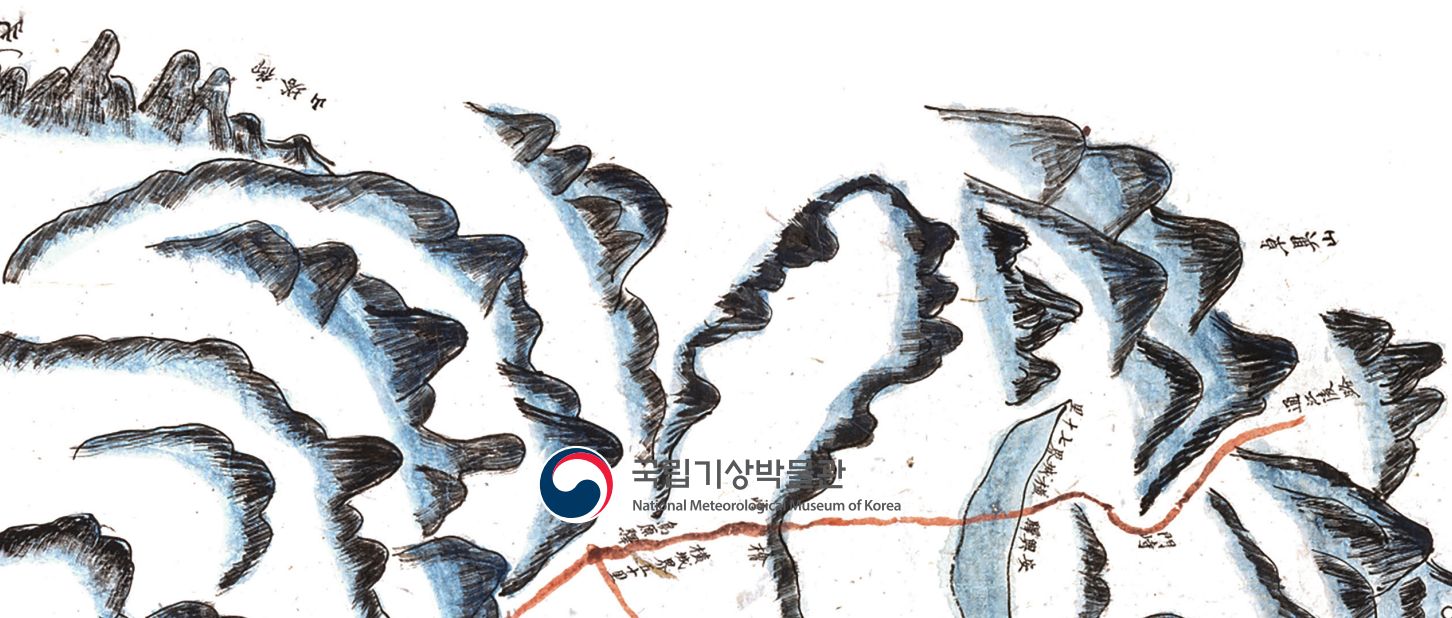


各司膳錄
각사등록
역사기후
강원도편
자료집

江原監營啓錄

關東啓錄

春川留營啓牒錄



국립기상박물관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강원도편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1831년(순조 31)~1832년(순조 32)

1856년(철종 7)~1857년(철종 8)

1860년(철종 11)

各司臚錄 27책, 關東啓錄

1892년(고종 29)~1893년(고종 30)

各司臚錄 27책, 春川留營啓牒錄

1888년(고종 25)~1889년(고종 26)

各司膳錄
각사등록
역사기후
강원도편
자료집

江原監營啓錄

關東啓錄

春川留營啓牒錄



국립기상박물관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목 차

해제 | 7

일러두기 | 19

일련번호	서기 / 왕력	등록(책)	각사등록(책)	쪽수
0001-0004	1831년 순조 31년	강원감영계록 1책	각사등록 27책	22
0005-0024	1832년 순조 32년	강원감영계록 1책	각사등록 27책	26
0025-0026	1856년 철종 7년	강원감영계록 2책	각사등록 27책	46
0027-0059	1857년 철종 8년	강원감영계록 2책	각사등록 27책	48
0060-0098	1860년 철종 11년	강원감영계록 3책	각사등록 27책	83
0099-0130	1892년 고종 29년	관동계록 1책	각사등록 27책	124
0131-0133	1893년 고종 30년	관동계록 1책	각사등록 27책	158
0134-0138	1888년 고종 25년	춘천유영계첩록 1책	각사등록 27책	161
0139-0159	1889년 고종 26년	춘천유영계첩록 1책	각사등록 27책	166

해제

1. 시간을 담은 문서의 질감 : 『각사등록』의 자료적 특징과 현황

『각사등록(各司謄錄)』은 중앙과 지방 간의 왕복 문서 및 등록류를 편집·정리하여 영인한 조선시대 기초 사료집으로서, 계록(啓錄), 등록(謄錄), 관첩(關牒), 첩보(牒報), 관록(關錄), 존공안(存公案), 보취(報聚), 내첩(來牒), 등래(登來), 내거안(來去案), 장록(狀錄), 문첩(文牒), 밀계(密啓), 기록(記錄), 일기(日記), 별단(別單), 군시안(郡市案), 항안(港案) 등 다양한 문서들을 포함하고 있다. 작성 연대는 임진왜란 이전 일부를 비롯해 1910년 대한제국기까지 포괄하고 있으나, 주요 기록은 18~19세기에 집중되어 있다. 『각사등록』에 수록된 문서의 원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도 일부 남아있다. 1980년대부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를 101책의 영인본으로 간행하였고, 최근 국역화 및 온라인서비스를 병행하여 자료적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101책 중 1책에서 55책까지는 도별 행정문서들을 총집해 놓았는데, 중앙에 보고되지 않은 지방관아의 보고문서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지방사회의 실상을 생생히 접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의미가 크다. 『각사등록』의 도별 자료는, 경기도(1~6책), 충청도(6~10책), 경상도(11~17책), 전라도(18~21책), 황해도(22~26책), 강원도(27~28책), 평안도(29~41책), 함경도(42~46책)의 순으로 영인되었으며, 이밖에도 48~55책까지는 경기도 보유편(47책), 충청도 보유편(48책), 경상도 보유편(49~52책), 전라도 보유편(53~54책), 황해도·강원도 보유편(55책) 등으로 1~46책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들이 보유편으로 성책되어 있다. 이중 1~46책에는 우택, 측우 기록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조선시대 기상 정보를 통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로서 활용 가치가 크다.

한편 『공문편안(公文編案)』은 1894년 7월부터 1901년 12월까지 탁지부와 각 아문·부·도·군·읍 사이에 오간 문서를 편철한 것으로, 총 99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으며 최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개별 기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공문편안』에는 갑오개혁 이후 제도개혁에 따른 중앙의 훈령과 지시 사항에 대해 지방에서의 처리 방안 및 문제점을 보고하는 문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19세기 말~20세기 초 유생들의 동학교도 비난, 수재와 흥년으로 인한 민정의 피해 상황, 이서배들의 중간 수탈, 역둔토의 조사 및 정부로의

귀속 조치 등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기사들이 『공문편안』에 수록되어 있다. 특히 『공문편안』에는 『각사등록』과 마찬가지로 측우, 우택에 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점은 『공문편안』이 근대이행기 『각사등록』의 연장선상에 있는 기록자료임을 시사한다.

요컨대, 『각사등록』과 그것의 근대적 양식이라 할 수 있는 『공문편안』은 조선왕조로부터 대한제국기에 이르기까지, 중앙과 지방의 관료행정 전반을 포괄하는 문서행정의 보고이자 지방사회의 변화상을 통시적으로 엿볼 수 있는 사회사자료로서 연구사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2. 『각사등록』에 담긴 측우 기록의 역사성

1) 하늘에서 온 데이터, 땅에서의 응답 : 조선 전기 농업정책과 측우 행정

전근대 동아시아국가들은 자연환경의 변화를 국왕의 통치행위에 접목시켜 해석하는 유교적 자연관을 발전시켜왔다. 국왕은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신성한 권위자로서 각종 의례행위를 통해 권력을 대외에 과시하는 한편, 백성의 삶을 돌봐야 하는 통치자로서, 농업, 부세, 진휼정책을 추진하여 수신(修身)과 애민(愛民)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였다. 성리학적 통치이념 하에 성립된 조선왕조는 특히 기상천문과 관련된 의례를 고도화하는 한편 천인감응설(天人感應說) 혹은 재이론(災異論)에 입각한 감선(減膳), 기우제 설행 등의 도덕적 통치 행위를 일상화해갔다. 또한 건국 초부터 유교적 농본국가를 표방하였기에, 농업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역별, 계절별 기상 변화를 파악하고자 했으며, 지질환경과 수리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고려말부터 연작 상경이 확대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업 생산력을 늘릴 수 있는 파종법, 시비법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농서를 편찬하고, 수리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거듭하였으나, 지질 특성상 수차 보급이 여의치 않았던 조선에서는 제언, 천방을 설치하는 선에서 관개시설의 보급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큰 제언을 조성하려면 농민들의 노동력을 일시에 동원해야하는 부담이 있는 데다가 제언 주변의 농지만이 물대기에 용이할 뿐더러 천방의 경우는 계곡에서 내려오는 하천의 낙차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지의 논에는 설치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처럼 조선의 농지는 강우량의 의존도가 높은 천수답(天水畓)의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각종 농업정책을 추진하는 것 외에도 절기별, 지역별 강우량의 추이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에 조선왕조는 선초부터 각도 군현의 지방관을 통해 봄부터 가을까지 우택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지방관이 보고하는 우택 정보는 ‘읍진(浥塵)’, ‘1서(鋤)’, ‘1려(犁)’, ‘천거창일(川渠漲溢)’, ‘강천범람(江川汎濫)’과 같이 지역에 소재한 농지와 하천을 기준으로 한 정보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계량화되고 표준화된 강우량을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1441년(세종 23) 문종의 주도로 측우기를 제작하여 각도 군현에 보급함으로써 우택 정보를 보완하는 측우기의 측량값을 확보하게 되었다. 실제로 1441년(세종 23) 4월 29일 『세종실록』 기사를 살펴보면, “근년 이래로 세자가 가뭄에 근심하여 비가 올 때 마다 비 온 뒤에 땅을 파서 젖어 들어간 깊이를 재었으나, 정확하게分寸을 알 수 없었으므로 구리로 주조한 기구를 궁중에 설치하고 여기에 고인 빗물의分寸을 조사하였다.”라고 하여 이때부터 측우기를 통한 강우 측량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종대 이후 중앙에 보고되는 측우, 우택 기록은 한 해의 농형(農形)을 진단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각도 감사와 각읍 수령의 주요 행정 업무가 되었다.

이처럼 조선전기 우택, 측우 기록은 하늘의 현상을 관찰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농업 생산과 재해 대응, 부세 정책을 연결시키려는 정책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측우기는 선초부터 중앙에 보고된 우택 정보를 계량화된 수치로 이해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별 강우 기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중앙정부는 지방에서 올라온 강우 데이터 및 농형 정보를 바탕으로 당해 농업 생산량의 변동성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세입 산정과 진휼 정책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토지의 수세 가능 면적이 감소하고 행정 체계가 불안정해지면서, 측우 행정 또한 일시적으로 침체기를 겪게 되었다.

2) 강우기록, 국가를 다시 세우다 : 양난 이후 측우 행정의 복원과 활용

17세기 양난의 후유증을 회복하고, 경신·을병 대기근과 같은 대규모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조선왕조는 농업정책과 진휼 및 부세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특히 토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전세 및 대동세의 수취 기반을 정비해나갔으며,

전국의 교통 요지에 진휼창을 설치해 기근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이어 1770년(영조 46)에는 측우기를 복원하여 각 도의 감영과 유수부에 설치하고, 강우량과 농업 환경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체계를 마련하였다. 영조는 『동국문헌비고』를 편찬하기 위해 전대의 역사 기록을 살펴보던 중 세종대 측우기가 제작된 사실을 확인하고, 재위 46년 5월 1일, 세종조의 옛 제도를 모방해 측우기를 만들어 창덕궁과 경희궁에 각각 설치하고, 팔도(八道)와 양도(兩都)에도 설치해 강우량의 척촌(尺寸)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정에 신속히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각도 감영과 유수부에서는 3월부터 10월까지 우택과 농형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올리면서 측우기의 측량값도 함께 보고하게 되었다. 보고 내용에는 강우뿐 아니라, 농형에 영향을 미치는 가뭄·홍수·지진·해일·충해 같은 자연재해와 피해 상황도 함께 보고되었다.

그런데 1770년(영조 46) 복원된 측우기는 전국 군현에 모두 설치되지 않고 각도와 유수부에만 설치되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사료 상에 드러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간접적인 배경 요인을 들자면, 18세기 이래 고도화된 도단위 행정시스템을 꼽을 수 있다. 실제로 18세기 이후 비충제가 시행되면서, 중앙정부는 각읍에 풍흉의 정도와 재해 상황을 반영해 도별로 급재(給災)를 인정해주는 한편,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도 단위 행정 통제력을 강화해갔다.

우선 1713년(숙종 39) 이래 팔도구관당상제(八道句管堂上制)를 시행하고 전임 감사를 해당 도의 구관당상으로 임명하여 기존의 감사·수령의 행정 체계를 관리, 감독하도록 한 조치가 주목된다. 각도 감사 외에 비변사에서 각도의 사정을 상세히 알고 있는 구관당상을 임명하여 도의 현안을 현실감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1765년(영조 41) 무렵에는 비록 313개 군현에 그치기는 했지만, 『여지도서』라는 전국 단위 관찬 지리지를 편찬함으로써 호구, 토지, 물산, 조세, 환곡, 군역 등의 부세 자원에 관한 도별 정보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비충제 역시 이러한 지방통치시스템의 연장선상에서 시행된 부세제도로서 각도 감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었다. 따라서 1770년(영조 46) 복원된 측우기를 각도와 유수부에만 설치한 것은 이러한 도 단위 부세행정 시스템이 강화된 상황에 기반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요컨대, 1770년(영조 46) 측우기 복원 이후 서울의 창덕궁과 경희궁, 내외 관상감은 물론 지방 감영과 각도 유수부에 측우기가 보급됨으로써 계량화된 강우량이 조정에 보고

되었으며, 각 군현에서 수집된 우택 정보 역시 각도 감영을 통해 조정에 보고됨으로써 조선후기 측우 행정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현존하는 『각사등록』의 우택, 측우 기록은 조선후기 측우 행정이 재정비됨에 따라 중앙-지방 간 문서행정에까지 영향을 주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측우 행정 시스템은 대한제국기까지 이어져 근대적 공문첩인 『공문편안』에까지 우택과 측우 정보가 실리게 되었다. 1770년(영조 46)에 복원된 조선왕조의 측우행정 시스템이 근대적인 기상시스템이 도입되기 전까지 110여 년간 장기지속한 것이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측우 행정의 성립 배경과 경과를 살펴보고, 『각사등록』 상에 우택, 측우 기사가 실리게 되는 역사적 연원에 대해서도 간략히 서술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각사등록』 상의 측우 기록을 총집, 번역한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의 구성과 내용적 특징에 대해 개관하기로 하겠다.

3.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의 편찬 경위와 대상자료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은 덕성여자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에서 지난 2024년 3월 22일부터 당해 11월 17일에 걸쳐 수행한 「2024년도 국립기상박물관 조선시대 역사기록 물의 우량관측 자료 복원 및 검증 연구」의 결과물로 간행된 번역서이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영인한 『각사등록』 상의 측우, 우택 관련 기록들을 검출하여 도별로 정리한 자료집으로서, 조선후기부터 대한제국기까지 측우 기록을 검토하고 기상환경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000년대 이후 기상학 분야에서 『각사등록』 상의 우택·측우 기록을 1차 수집, 정리하고 도별 특징을 분석한 연구 성과가 발표되기는 했지만, 번역 상의 오류와 기사 누락이 많고, 자료 출처와 DB 작성 방식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既번역 자료 및 통계 DB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학술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에 역사문화연구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총 8개월에 걸쳐 既번역된 『각사등록』의 우택·측우 기록을 검토해 번역의 오류와 누락을 바로잡고, 일관된 번역 원칙에 따라 용례를 통일하여 번역한 후 교차 검토를 통해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또한 누락된

원문 자료를 찾아내어 OCR작업으로 원문을 추가로 입력하고 새로 번역함으로써 『각사등록』 상의 우택·측우 기록을 총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총 15권의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의 형태로 공식 출판하고 통계 DB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자료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번역 총서는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경기도편(1·2·3), 충청도편(1·2), 경상도편, 전라도편, 강원도편, 황해도편(1·2), 평안도편(1·2·3·4), 함경도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번역대상 자료는 아래 <표 1>과 같다. 번역 총서는 우택, 측우, 농형 기사를 포함하고 있는 해만 번역 대상 연도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일부는 자료에 수록된 전체 작성 연도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표 1>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번역 대상 자료

지역	각사등록 등	서명	작성연대
경기도	각사등록 1책	기영장계등록	1783년(정조 7)~1784년(정조 8)
	각사등록 4책	광주부유영장계등록	1861년(철종 12)~1869년(고종 6)
	각사등록 5책	광영계록	1870년(고종 7)~1893년(고종 30)
		화영계록	1845년(헌종 11)~1876년(고종 13)
	각사등록 4책	개성부유영장계등록	1861년(철종 12)~1862년(철종 13), 1874년(고종 11)~1875년(고종 12), 1884년(고종 21)~1892년(고종 29)
	각사등록 4책	이등계록	1830년(순조 30)~순조 31년(1831),
		강화부유영장계등록	1847년(헌종 13), 1851년(철종 5), 1856년(철종 7)~1860년(철종 11), 1876년(철종 13)~1879년(고종 16)
	각사등록근대편 공문편안 82책	공문편안	1895년(고종30)
충청도	승정원일기 탈초본 138~141책	승정원일기	1894년(고종 31)~1907년(순종 1)
	각사등록 6~7책	충청감영계록·금영계록	1835년(헌종 1)~1837년(헌종 3), 1844년(헌종 10)~1845년(헌종 11), 1852년(철종 3)~1855년(철종 6), 1861년(철종 12), 1871년(고종 8)~1878년(고종 15), 1895(고종 32)

	각사등록근대편 공문편안 32책	공문편안	1896년(건양 1)~1900년(광무 4)
경상도	각사등록 11책	경상감영계록	1863년(철종 14), 1872년(고종 9), 1890년(고종 27), 1902년(광무 6)
	각사등록 17책	통제영계록	1871년(고종 8), 1873년(고종 10)
	각사등록근대편 공문편안 66책	공문편안	1897년(건양 2), 1898년(광무 2), 1900년(광무 4)
전라도	각사등록 18책	전라감사계록	1829년(순조 29), 1845년(헌종 11), 1847년(헌종 13), 1849년(헌종 15), 1854년(철종 5), 1876년(고종 13), 1885년(고종 22)~1889년(고종 26)
		호남계록	1878년(고종 15)~1880년(고종 17), 1885년(고종 22)~1887년(고종 24)
	각사등록근대편 공문편안 64책	공문편안	1897년(건양 2)
강원도	각사등록 27책	강원감영계록	1831년(순조 31)~1832년(순조 32), 1856년(철종 7)~1857년(철종 8), 1860년(철종 11)
		관동계록	1892년(고종 29)~1893년(고종 30)
		춘천유영계첩록	1888년(고종 25)~1889년(고종 26)
황해도	각사등록 22~24책	황해감영장계등록	1832년(순조 32)~1834년(순조 33), 1838년(헌종 4), 1845년(헌종 11), 1848년(헌종 14), 1850년(철종 1), 1854년(철종 5)~1855년(철종 6), 1860년(철종 11), 1863년(철종 14), 1866년(고종 3), 1867년(고종 4), 1888년(고종 25)~1889년(고종 26), 1899년(광무 3)
	공문편안 52책	공문편안	1897년(광무 원년)~1898년(광무 2)
평안도	각사등록 29책	관서계록	1822년(순조 22)
	각사등록 29~33책	평안감영계록	1830년(순조 30), 1831년(순조 31), 1833년(순조 33), 1834년(순조 34), 1835년(헌종 1), 1836년(헌종 2), 1838년(헌종 4), 1840년(헌종 6)~1843년(헌종 9), 1844년(헌종 10)~1843년(헌종 11),

			1848년(헌종 14)~1850년(철종 1), 1852년(철종 3)~1853년(철종 4), 1855년(철종 6)~1858년(철종 9), 1861년(철종 12)~1862년(철종 13), 1864년(고종 1)~1870년(고종 7), 1873년(고종 10)~1874년(고종 11), 1883년(고종 20)~1884년(고종 21)
함경도	각사등록 42책	함경감영계록	1856년(철종 7), 1862년(철종 13)~1867년(고종 4)
	각사등록 43책	함경북병영계록	1846년(헌종 12)~1847년(헌종 13), 1850년(철종 1), 1851년(철종 2), 1888년(고종 25)~1890년(고종 27)
	공문편안 78·91책	공문편안	1897년(건양 2)~1898년(광무 2), 1900년(광무 4)
	원산해관관측소	원산해관관측소	1885년(고종 22)~1907년(융희 원년)

다음 절에서는 위의 <표 1>에 실린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강원도편의 내용 구성과 활용 가치에 대해 개관하기로 하겠다.

4.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강원도편의 내용 구성과 활용 가치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강원도편은 『각사등록』 중에서 조선후기~개항기 강원도 지역에서 관측된 기후 및 농형 자료를 총집하여 번역한 자료집이다. 『강원감영계록(江原監營啓錄)』과 『관동계록(關東啓錄)』, 『춘천유영계첩록(春川留營狀啓牒錄)』에 기록된 측우기 및 우택 자료를 알기 쉽게 번역함으로써 당대 기후 변화와 농사 활동과의 관계는 물론, 전근대 기후 패턴을 복원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1) 편찬 체제와 내용 구성

조선 후기 강원도에서 작성된 측우기록은 『각사등록』 상의 『강원감영계록』, 『관동계록』, 『춘천유영계첩록』 등에서 확인된다. 『강원감영계록』은 1831년부터 1861년까지 강원도감

영에서 중앙정부에 올린 계문을 베껴 써 모아 놓은 자료로 3책(1책: 1831~1832, 2책: 1856~1858, 3책: 1860~1861)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간중간 빠진 해가 많다. 본서에서는 측우, 우택, 농형 기사가 확인되는 1831~1832년, 1856~1857년, 1860년의 계문을 번역대상 자료로 삼았다. 『관동계록』 역시 1891년 10월부터 1893년 3월까지 강원도감영에서 올린 계문을 날짜 순으로 베껴 쓴 등록류로, 본서에서는 1892년~1893년의 기사를 번역 대상자료로 삼았다.

『강원감영계록』에 실린 기사를 통해 강원도의 우택, 측우, 농형 기사의 작성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택 정보는 각 고을에서 비온 후 곧바로 감영에 보고했는데, ‘읍진(溫塵: 먼지를 적실 정도의 비)’, ‘1서(鋤: 한 번 호미질할 깊이의 비)’, ‘1려(犁: 한 번 쟁기질할 깊이의 비)’와 같이 농지와 농기구를 활용해 강우의 등급을 매겨 보고하였으며, 큰비가 내렸을 경우 ‘천거창만(川渠漲滿)’, ‘천거창일(川渠漲溢)’과 같은 표현을 쓰고 피해의 실상을 함께 알렸다. 이때 관찰사는 감영에 소재한 측우기의 수심[尺-寸-分]을 확인해, 각 고을의 우택 정보와 함께 중앙에 보고하였다. 만약 큰비가 내려 농작물이 손상되거나 민가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진휼 방안도 중앙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다.

각읍 수령은 우택 정보를 감영에 올리면서 농형도 함께 보고하였는데, 강원도 주요 작물의 파종과 생육, 작황을 기후 환경과 관련지어 상세히 기술하였다. 논농사의 경우 올벼와 늦벼는 모판에 물을 대고 벼씨를 뿌려 모를 기른 후 모내기하는 이앙법이 통용되었다. 밭농사의 경우 봄보리와 귀리는 6월에 먼저 추수하고 올기장, 올조, 콩, 팥, 목화와 늦기장, 늦조, 수수는 순차적으로 밭갈이를 행한 뒤 파종하여 작물을 재배하였다. 특히 콩, 팥의 경우는 그루갈이[根耕]로 경작하였다.

마지막으로 『춘천유영계첩록』은 1888년 2월부터~1890년 2월까지 춘천유수가 의정부와 승정원에 올린 계첩을 의정부에서 베껴 써 모아 놓은 자료이다. 춘천이 유수부로 승격된 것은 『춘천유영계첩록』이 작성된 1888년(고종 25)인데, 임오군란으로 친위대 육성에 관심을 가졌던 고종이 당해 5월 춘천을 유수부로 승격시키고 가평을 춘천에 편입시키는 절목을 반포함으로써 춘천에 유영이 형성되었다(『비변사등록』 269책 고종 25년 5월 9일). 춘천유수는 춘천부 판관의 첩보를 통해 춘천 일대의 우택 정보를 보고받는 한편, 유영에 소재한 측우기의 수심을 측정하여 부내 우택 정보와 함께 중앙에 보고하였

다. 춘천부 판관이 유수에게 보고한 우택 정보는 각 면의 임장에게서 보고받은 것인데, 이를 통해 우택의 보고 체계가 면 단위에까지 미쳐있었음을 알 수 있다. 춘천유수부에서는 논농사에 올벼, 중벼, 늦벼를 심고, 밭농사에 목화, 콩, 팥, 기장, 수수, 조를 심어 경작하였다.

2) 자료의 활용가치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강원도편은 조선후기~개항기 강원도의 강우량과 농업 작황, 재난 실태 및 대응에 관한 상세한 기록을 담고 있어 지역의 사회상을 연구하는 기초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높다. 향후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강원도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 가능하리라 본다.

첫째, 기후사 연구에서 강원도 지역의 강우 패턴과 재해 발생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장기적인 기후 변화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강원도의 지리 환경은 산간 지대가 많고 태백산맥을 기점으로 영동과 영서로 나뉘어 봄철 기후 변화가 뚜렷하다. 이러한 기후환경적 특성을 감안해 19세기 강원도에 과연 전과 다른 위기 요인이 발생하였는지 진단하는 연구가 가능하리라 본다.

둘째, 농업사 연구에서 기후와 농업활동의 상관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강원도편 역시 타도와 마찬가지로 측우와 농형 정보가 상세히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재배 작물의 종류뿐 아니라 파종, 제초, 이앙, 추수에 관한 절기별 농사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이에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강원도편에 실린 측우-농형 기사의 분석을 통해 강원도 지역의 기후환경과 농형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셋째, 재정사 연구에서 기후환경에 따른 농업구조와 부세행정의 상관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세종대 측우기 제작이 공법제도의 시행과 상관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처럼 영조대 측우기 복원 역시 1760년(영조 36) 비총제가 법제화되고, 도별 부세행정체계가 고도화된 조치와 일정한 관련성을 지닌다. 기존의 재정사 연구가 토지의 생산량과 부세 수취와의 관계만을 다루었다면,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강원도편에 실린 우택, 측우 기사는 토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환경 요인과 이를 행정 시스템 하에서 파악하고자 한 정부의 정책 노력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측우-농형-부세 사이의 상관성을

규명하는 데에도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조선시대 재해정책에 관한 연구의 진전을 꾀할 수 있다. 전염병 및 자연재해 발생 시 지역 사회의 대응 방식과 중앙 보고 체계를 연구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재해정책과 재난관리체계의 실상을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강원도편에는 기상 정보 외에 농형에 영향을 미치는 충해, 해일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종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기우제 설행 및 구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에, 조선후기 지역별 재난 상황과 그에 따른 대책을 연구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지역사 연구에서 환경사적 관점을 접목한 연구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강원도편에 실린 도내 기후환경과 농업 정보, 재난 상황과 대책 등은 전근대 강원도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자료로서 강원도가 조선시대로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지역의 환경적 요인을 어떻게 개선, 극복해갔으며 한편으로 근대적 개발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지 그 역사적 추이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

요컨대,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강원도편은 조선시대 기후환경사를 비롯한 제반 분야의 연구 성과들을 집적할 수 있는 원천자료일 뿐 아니라 조선후기~개항기 강원도의 변화상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지역사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일러두기

- 이 책은 덕성여자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에서 수행한 「2024년도 국립기상박물관 조선시대 역사기록물의 우량관측 자료 복원 및 검증 연구」사업의 결과물이다.
- 이 책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등록류 등을 영인 간행 한 『각사등록』에서 기상 자료를 추출하여 번역하였다. 원문은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저본으로 하고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원본 자료를 참조하였다. 『각사등록』은 음력 날짜로 되어있고, 1896년 양력사용 개정 이후 자료인 『공문편안』은 양력 날짜로 되어있다.
- 이 책은 각사등록 경기도·충청도·경상도·전라도·강원도·황해도·강원도·황해도·평안도·함경도 총 8도의 측우자료를 번역검증하여 역사기후자료집 경기도편1·2·3, 충청도편(1·2)·경상도편·전라도편·강원도편·황해도편(1·2)·평안도편(1·2·3·4)·함경도편으로 총 15권으로 엮었다.
- 번역은 원문을 충실하게 직역하되,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역과 보충역을 했다.
-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은 국립국어원이 정한 어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하되, 일부 사항은 학계의 관례를 따랐다.
- 편집순서는 영인본의 순서를 따라 원문과 번역문을 배치하였다.
- 전근대 기후 자료는 특유의 문체와 표현 방식이 있어, 이를 그대로 살려 현대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문 원문을 번역문 앞에 배치함으로써, 전문 독자들이 원문의 독특한 표현을 느끼고 그 의미를 직접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 번역문은 일반 독자가 전근대 기상 자료의 의미와 내용을 파악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원문의 뜻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오늘날 통용하는 용어와 표현으로 바꾸었다.
- 번역문에서는 한자를 병기하지 않음으로써 일반 독자가 글의 흐름을 유지하고, 현대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 해당 일자의 기사는 전문을 번역하였으나 기상 현상과 거리가 먼 경우 생략하였다.
- 원문의 단순 오탈자의 경우 내용에 파악에 문제가 없으면 별도로 교정, 교감하지 않았다.
- 문건별로 일련번호를 달았고, 영인본 면수를 표기했다.
-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였으나 관용적 표현은 한글로 표기하였다.
- 곡물 명칭과 도량형의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 『승정원일기번역 지침』을 따랐다.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강원도편

0001. 1831년(순조 31) 8월 17일(양력 9월 22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1책(1b~1c) / 江原監營啓錄 1책(1b~2a)

臣營下今月初十日雨澤形止，纔已馳啓爲白有在果。臣於今番奉審之行，歷路農形，詳細看審，又接各邑所報，則農形段，早稻□□唐稷方始刈取，豆·太日漸成實，木花摘取，晚稻黍·粟始爲向熟，根耕豆·太次第入實，木麥間或結穎。雨澤段，初十日之雨，江陵·寧越等兩邑川渠漲滿，蔚珍得二犁，原州·春川·旌善·洪川·麟蹄·平昌等六邑得一犁，金化·狼川等兩邑得二鋤，橫城得一鋤是如爲白有在乎。嗣後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云。

저의 감영의 이번 달 초10일의 우택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받들어 살피는 행차에 거쳤던 길의 농사 상황을 상세히 살폈습니다. 또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수수는 막 베어 거두기 시작하였고 콩·팥은 날로 점점 알이 여물었고 목화는 따서 거두었고, 늦벼·늦기장·늦조는 비로소 익어갔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차례로 알이 들었고 메밀은 간혹 꼬투리를 맺었습니다. 우택의 경우 초10일의 비로 강릉·영월 등 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울진은 2려가 내렸고, 원주·춘천·정선·홍천·인제·평창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김화·낭천 등 2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횡성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02. 1831년(순조 31) 8월 27일(양력 10월 2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1책(2d~2d) / 江原監營啓錄 1책(4b~5a)

臣以災傷覆審事離發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臣之行部，先從原州北面，歷過橫城，方到洪川縣，而沿路農形，詳細看審，又接各邑所報，則農形段，早穀方張刈取，晚穀幾盡成熟，木花過半摘取，而無論田畝早穀，稍勝於晚種是白遣。雨澤段，今月初十日之雨，襄陽·杆城·淮陽等三邑得一犁，金城得一鋤，十六日之雨，通川得一鋤是如爲白有在乎。前路農形，次第看審，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云。

제가 재해 피해를 다시 살피는 일로 출발한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행차는 먼저 원주 북면에서 횡성을 거쳐 막 홍천현에 이르렀습니다. 지나던 길 주변의 농사 상황을 상세히 살폈습니다.

또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올곡은 한창 베어 거두었고 늦곡은 거의 다 익었고 목화는 절반 이상 따서 거두었습니다. 논밭을 따지지 않고 올곡은 늦게 씨앗 뿌린 것보다 조금 나았습니다.

우택의 경우 이번 달 초10일의 비로 양양·간성·회양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금성은 1서가 내렸고, 16일의 비로 통천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의 농사 상황은 차례로 살피서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03. 1831년(순조 31) 9월 4일(양력 10월 9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1책(3d~4a) / 江原監營啓錄 1책(7b~7b)

臣巡到洪川縣，所經諸邑農形，纔已馳啓爲白有在果。自洪川歷過春川·狼川·金城，方到淮陽地，而沿路農形，次第看審是白乎則，早穀過半收穫，晚穀方始刈取，木花，幾盡摘取是白乎所。無論峽處，各穀差遜於野面，而豆·太兩種之晚耕者，向被風雨之損，莖葉摧傷，結穀稀疏，而不至全棄是白如乎。前路農形，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有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

저의 순시는 홍천현에 이르렀습니다. 거쳐 온 여러 고을의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홍천에서 춘천·낭천·금성을 거쳐 막 회양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지나는 길 주변의 농사 상황은 차례로 살폈습니다. 올곡은 절반 이상을 수확했고 늦곡은 한창 베어 거두었고 목화도 거의 다 따서 거두었고, 산골짜기는 따질 것 없이 각종 곡식이 들판보다 조금 못 미치고, 콩·팥 두 종류 중 늦게 간 것은 비바람의 피해를 입어 줄기와 잎사귀가 꺾였고 꼬투리를 맺힌 것은 드문드문하였으나 완전히 포기하는 데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의 농사의 상황은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04. 1831년(순조 31) 9월 11일(양력 10월 16일)

各司謄錄 27책, 江原監營啓錄 1책(4c~4d) / 江原監營啓錄 1책(8b~9a)

臣巡到淮陽地, 所經諸邑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自淮陽地踰嶺而東, 歷過通川·高城·杆城·襄陽, 方到麟蹄縣. 而雨澤段, 今月初八日申時始雨, 或霏灑或霏微, 初十日卯時乃止, 其間所下, 恰爲一犁是白遣. 初二日夜, 金城·狼川·金化·春川·麟蹄等五邑, 水霜降下, 初六日夜, 高城水霜降下是如是白乎旂. 沿路農形, 詳細看審是白乎則, 畝穀幾盡收穫, 田穀之晚耕外, 早種者過半刈取, 而論其優劣, 禾穀及黍·粟·唐稷稍優, 木麥次之, 豆·太次之是白乎所. 今年穡事, 晚經風雨, 依峽近浦之地, 田畝各穀, 雖有摧傷汰覆之處, 而比諸登熟, 不甚爲害是白如乎. 各邑年分概狀, 未及齊到乙仍于, 災實分等及關係民隱之可以仰請者, 迫于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矣, 詮次善啓云云.

저의 순시는 회양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거쳐 온 여러 고을의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회양 지역에서 고개를 넘어 동쪽으로 통천·고성·간성·양양을 거쳐 막 인제현에 이르렀습니다. 우택의 경우 이번 달 초8일 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초10일 묘시에 그쳤습니다. 그 사이 내린 것은 거의 1려입니다. 초2일 밤에 금성·낭천·김화·춘천·인제 등 5개 고을은 무서리가, 초6일 밤에 고성은 무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지나는 길 주변의 농사 상황을 살펴보았더니 논곡식은 거의 다 수확을 하였고 밭곡식은 늦게같이 한 것 이외에 일찍 씨 뿌린 것은 절반 이상을 베어 거두었다고 합니다. 우열을 따지자면 벼·기장·수수는 조금 낮고 메밀은 다음이고 콩·팥은 다음입니다. 올해 농사는 늦게 비바람을 겪어서 산골짜기나 포구 근처 지역은 논밭 곡식이 비록 꺾어지거나 사태로 모래가 덮은 곳이 있지만 익은 것에 비하면 매우 심하지는 않습니다. 각 고을의 올해 풍흉 등급의 대략 보고가 미처 일제히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재해 등급 및 관련된 백성들의 고통은 삼가 아될 것이 있으면 나중에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05. 1832년(순조 32) 3월 5일(양력 4월 5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1책(38b~38b) / 江原監營啓錄 1책(84a~84a)

道內農形，纔已馳啓爲白有在果。臣之行部方到寧越府。而雨澤段，今月初四日酉時始雨，或霏或灑。同日亥時乃止，所得洽爲浥塵是白有在乎。各邑得雨形止，待其報來，連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云。

강원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행차는 막 영월부에 이르렀습니다. 우택의 경우 이번 달 초4일 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해시에 이내 그쳤는데 내린 것은 먼지를 적시기에 충분 하였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연달아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06. 1832년(순조 32) 3월 7일(양력 4월 7일)

各司謄錄 27책, 江原監營啓錄 1책(40c~40c) / 江原監營啓錄 1책(88b~89a)

今月初四日雨澤形止，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原州·平昌得浥塵，江陵·旌善得一鋤是如爲白有旂。臣之行部，自旌善方到江陵臨溪地。而今月初六日酉時始雨，或霏或灑。初七日午時乃止，所得洽爲一鋤是白如乎。嗣後形止，待各邑所報，連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云。

이번 달 초4일의 우택의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원주·평창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강릉·정선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행차는 정선에서 막 강릉 임계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달 초6일 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7일 오시에 이내 그쳤는데 내린 것은 1서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후 경위는 각 고을의 보고하기를 기다려 연이어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07. 1832년(순조 32) 3월 9일(양력 4월 9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1책(40c~40d) / 江原監營啓錄 1책(89a~89b)

原州等四邑雨澤及今月初七日得雨形止，纔已馳啓爲白有在果。臣之行部，先自原州，歷過寧越·平昌·旌善·江陵·臨溪地方，到三陟，而沿路農形，詳細看審，又接各邑所報，則秋牟眞麥向青，春牟方始耕播是白乎旌。雨澤段，今月初四日之雨，三陟得二鋤，襄陽·麟蹄·蔚珍得一鋤是如爲白有在乎。嗣後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云。

원주 등 4개 고을의 우택 및 이번 달 초7일에 내린 비의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행차는 먼저 원주에서 영월·평창·정선·강릉·임계 지방을 거쳐 삼척에 이르렀습니다. 지나는 길의 농사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또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가을밀은 푸르러지고 봄보리는 막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택의 경우, 이번 달 초4일의 비로 삼척은 2서가 내렸고 양양·인제·울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08. 1832년(순조 32) 3월 10일(양력 4월 10일)

各司謄錄 27책, 江原監營啓錄 1책(41b~41c) / 江原監營啓錄 1책(90b~91a)

道內農形及初四日三陟等四邑雨澤形止, 今月初九日, 臣到三陟府, 纔已馳啓爲白有在果. 同日戌時始雨, 或霏或灑. 初十日寅時乃止, 所得勤[僅]爲一鋤是白乎旆. 初四日之雨, 平海·杆城·狼川得一鋤, 初六日之雨, 襄陽·平昌得一鋤, 平海·蔚珍得一犁是如爲白有知乎. 嗣後形止, 待<其>報來, 連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강원도 내 농사 상황 및 초4일의 삼척 등 4개 고을의 우택 경위와 이번 달 초9일 제가 삼척부에 도착한 것에 대해서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같은 날 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10일 인시에 이내 그쳤는데 내린 것은 겨우 1서였습니다. 초4일의 비로 평해·간성·낭천은 1서가 내렸고, 초6일의 비로 양양·평창은 1서가 내렸고, 평해·울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연달아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09. 1832년(순조 32) 3월 15일(양력 4월 15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1책(42a~42b) / 江原監營啓錄 1책(92b~93a)

今月初九日雨澤及平海等六邑得雨形止，纔已馳啓爲白有在果。臣之行部到江陵大和地，而連接各邑所報，則初四日之雨，鐵原·高城等兩邑得一鋤，通川·歙谷·金化·伊川等四邑得浥塵。初六日之雨，寧越得二鋤，原州·旌善·春川·安峽·橫城·洪川·麟蹄等七邑得一犁，江陵·杆城·楊口等三邑得一鋤。初九日之雨，江陵得一鋤是如爲白有在乎。嗣後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云。

이번 달 초9일의 우택 및 평해 등 6개 고을에 내린 비의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행차는 강릉 대화 땅에 이르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4일의 비로 철원·고성 등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통천·흡곡·김화·이천 등 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초6일의 비로 영월은 2서가 내렸고 원주·정선·춘천·안협·횡성·홍천·인제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강릉·간성·양구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초9일의 비로 강릉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10. 1832년(순조 32) 3월 19일(양력 4월 19일)

各司謄錄 27책, 江原監營啓錄 1책(42c~42d) / 江原監營啓錄 1책(93b~94a)

鐵原等十七邑雨澤形止，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農形段，秋耕兩麥日漸向青，春牟幾盡耕播，沓庫始爲初翻耕。雨澤段，今月初六日之雨，伊川，鐵原等兩邑得一犁，金城·金化等兩邑得二鋤，淮陽·狼川等兩邑得一鋤是如爲白有在乎。嗣後形止，待〈其〉報來，連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云。

철원 등 17개 고을의 우택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같이한 밀·보리는 점점 푸르러지고 봄보리는 거의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으며 논은 비로소 처음 갈아엎었습니다. 우택의 경우 이번 달 초6일의 비로 이천·철원 등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금성·김화 등 2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회양·낭천 등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11. 1832년(순조 32) 3월 25일(양력 4월 25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1책(45c~45c) / 江原監營啓錄 1책(100b~100b)

道內農形及伊川等六邑雨澤形止，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今月十七日之雨，平海·蔚珍·三陟等三邑川渠漲滿。江陵·襄陽等兩邑得二犁，杆城·高城等兩邑得一犁。通川得二鋤。歙谷·麟蹄·淮陽等三邑得一鋤是如爲白有知乎。嗣後形止，待〈其〉報來，連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云。

강원도 내 농사 상황과 이천 등 6개 고을의 우택의 경우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7일의 비로 평해·울진·삼척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강릉·양양 등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간성·고성 등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통천은 2서가 내렸고 흡곡·인제·회양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연달아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12. 1832년(순조 32) 3월 27일(양력 4월 27일)

各司謄錄 27책, 江原監營啓錄 1책(45d~46a) / 江原監營啓錄 1책(101b~101b)

平海等十一邑雨澤形止，纔已馳啓爲白有在果。臣營下，今月二十六日巳時始雨，或霏或灑，同日酉時乃止，測雨器水深爲五分是白如乎。各邑形止，待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云。

평해 등 11개 고을의 우택의 경위는 이미 긴급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의 이번 달 26일 사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유시에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13. 1832년(순조 32) 3월 29일(양력 4월 29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1책(46a~46a) / 江原監營啓錄 1책(101b~102a)

臣營下今月二十六日得雨形止，纔已馳啓爲白有在果。卽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寧越·平昌·旌善等三邑得一鋤。原州·橫城·洪川等三邑得沍塵是如是白遣。農形段，秋耕兩麥日漸向長，春車間間出土，畚庫方張初翻耕，耳車始爲耕播是如爲白有在乎。嗣後形止，待報來，連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云。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6일의 내린 비의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영월·평창·정선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원주·횡성·홍천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같이한 밀·보리는 날로 점점 자라고 있고, 봄보리는 간간이 땅 밖으로 싹이 나왔고 논은 한창 처음으로 갈아엎고 있고 귀리는 비로소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이후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연달아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14. 1832년(순조 32) 4월 2일(양력 5월 1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1책(46c~46c) / 江原監營啓錄 1책(102b~103a)

道內農形及雨澤形止，纔已馳啓爲白有在果。臣營下，去月二十九日酉時始雨，或霏或灑。今月初一日戌時乃止，測雨器水深爲三寸六分是白如乎。各邑形止，待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云。

강원도 내 농사 상황 및 우택의 경우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의 지난달 29일 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이번 달 초1일 술시에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6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15. 1832년(순조 32) 4월 6일(양력 5월 5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1책(48b~48c) / 江原監營啓錄 1책(107a~107b)

臣營下去月二十九日雨澤形止，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去月二十六日之雨，平海·蔚珍等兩邑得一鋤。二十九日之雨，原州·平昌·江陵·三陟等四邑川渠漲滿，橫城·寧越·旌善·高城等四邑得二犁，洪川·楊口·春川·金化·鐵原·金城·淮陽·杆城等八邑得一犁，安峽得一鋤是如爲白有在乎。嗣後形止，待報來，連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云。

저의 감영의 지난달 29일의 우택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6일의 비로 평해·울진 등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29일의 비로 원주·평창·강릉·삼척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횡성·영월·정선·고성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홍천·양구·춘천·김화·철원·금성·회양·간성 등 8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안협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연달아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16. 1832년(순조 32) 4월 8일(양력 5월 7일)

各司謄錄 27책, 江原監營啓錄 1책(49b~49c) / 江原監營啓錄 1책(109b~110a)

平海等十九邑雨澤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農形段, 秋牟眞麥日漸茁茂, 春牟出土向青, 耳牟幾盡耕播, 間或出土, 早黍·粟·豆·太次第耕播, 畚庫已盡初翻耕, 早稻方始注秧. 雨澤段, 去月二十九日之雨, 蔚珍·平海·歙谷等三邑, 川渠漲滿, 襄陽·通川等兩邑得二犁, 麟蹄·狼川等兩邑得一犁, 伊川·平康等兩邑得一鋤是如爲白有如乎. 嗣後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평해 등 19개 고을의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진맥은 날로 점점 싹이 나와 무성해지고 봄보리는 땅 밖으로 싹이 나와 푸르러졌고 귀리는 거의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는데 간혹 땅 밖으로 싹이 나왔으며 올조·올기장·콩·팥은 차례로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으며 논은 이미 다 처음으로 땅을 갈아엎었으며, 올벼는 막 모판에 물을 대고 벼씨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택의 경우, 지난달 29일의 비로 울진·평해·흡곡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양양·통천 등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인제·낭천 등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이천·평강 등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17. 1832년(순조 32) 4월 10일(양력 5월 9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1책(50a~50a) / 江原監營啓錄 1책(111b~111b)

道內農形及雨澤形止，纔已馳啓爲白有在果。臣營下，今月初九日申時始雨，或霏或灑。同日戌時乃止，測雨器水深爲三分是白如乎。各邑形止，待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云。

강원도 내 농사 상황 및 우택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강영에 이번 달 초9일 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술시에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18. 1832년(순조 32) 4월 15일(양력 5월 14일)

各司謄錄 27책, 江原監營啓錄 1책(51a~51a) / 江原監營啓錄 1책(114a~114a)

臣營下今月初九日得雨形止，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金化得二鋤，寧越·鐵原·平康·伊川·安峽等五邑得一鋤，原州·淮陽等兩邑得沍塵是如爲白有在乎。嗣後形止，待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云。

저의 감영의 이번 달 초9일의 내린 비의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김화는 2서가 내렸고 영월·철원·평강·이천·안협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원주·회양 등 2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19. 1832년(순조 32) 4월 19일(양력 5월 18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1책(52d~52d) / 江原監營啓錄 1책(118a~118b)

金化等八邑雨澤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農形段, 秋牟胚胎, 眞麥漸就
茁長, 春牟向茂, 耳牟立苗, 早黍·粟·豆·太已盡耕播, 晚黍·粟·唐稷·木花, 次第耕播, 畚庫再翻
耕, 早·晚稻注秧是如爲白有在乎. 嗣後形止, 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
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김화 등 8개 고을의 우택의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알이 배었고 참밀은 점점 싹이 자랐고
봄보리는 무성해지고 귀리는 모가 났고 올기장·올조·콩·팥은 이미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으며 늦기장·늦조·수수·목화는 차례로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논은 두번째로
갈아엮었고, 올벼·늦벼는 모판에 물을 대고 벼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20. 1832년(순조 32) 4월 22일(양력 5월 21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1책(52d~52d) / 江原監營啓錄 1책(118b~118b)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 今月二十日巳時始雨, 或霏或灑, 同日酉時乃止, 測雨器水深爲二分是白如乎. 各邑形止, 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강원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의 이번 달 20일 사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유시에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21. 1832년(순조 32) 4월 26일(양력 5월 25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1책(53d~53d) / 江原監營啓錄 1책(120b~121a)

臣營下, 今月二十日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伊日之雨, 蔚珍得一犁, 寧越得二鋤. 江陵·襄陽·杆城·高城·三陟·平海·平昌·旌善·鐵原·橫城·洪川·麟蹄·楊口·狼川等十四邑得一鋤. 原州·春川·金化·平康·安峽等五邑得泥塵是如爲白有在乎. 嗣後形止, 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저의 감영의 이번 달 22일에 내린 비의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울진은 1려가 내렸고 영월은 2서가 내렸고 강릉·양양·간성·고성·삼척·평해·평창·정선·철원·횡성·홍천·인제·양구·낭천 등 1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원주·춘천·김화·평강·안협 등 5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22. 1832년(순조 32) 4월 29일(양력 5월 28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1책(54c~54d) / 江原監營啓錄 1책(122b~123a)

蔚珍等二十一邑雨澤形止，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農形段，秋牟發穗，眞麥胚胎，春牟茁長，耳牟向青，早黍·粟·豆·太次第出土，晚黍·粟·唐稷木花，幾盡耕播，早·晚稻已畢注秧。雨澤段，今月二十日之雨，金城·淮陽·通川·歙谷等四邑得一鋤，伊川得浥塵是如爲白有如乎。嗣後形止，待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云。

울진 등 21개 고을의 우택의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이삭이 났고, 참밀은 알을 배고 봄보리는 싹이 자라고 귀리는 푸르러지고 올기장·올조·콩·팥은 차례에서 이삭이 땅 밖으로 나왔고 늦기장·늦조·수수·목화는 거의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고 올벼·늦벼는 이미 모판에 물을 대고 범씨뿌리기를 마쳤습니다.

우택의 경우, 이번 달 20일의 비로 금성·회양·통천·흡곡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이천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23. 1832년(순조 32) 5월 8일(양력 6월 6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1책(56b~56c) / 江原監營啓錄 1책(126b~127a)

道內農形及雨澤形止，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雨澤段，今月初二日之雨，金化·平康·伊川·高城等四邑得浥塵。農形段，秋牟幾盡發穗，眞麥間或發穗，春牟胚胎，耳牟向長，早黍·粟·豆·太向青，晚黍·粟·唐稷木花出土，早·晚稻立苗是如爲白乎跡。臣營下初八日寅時，始雨霏灑，旋即開霽，測雨器水深爲一分是白如乎。當此牟麥發穗，田種出土之時，雨澤乍闕，頗有惜乾之歎，今此浥塵，不足爲霑潤，民事憂悶，而陰雲不散，尙有雨意，繼此一霽，方切願望。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矣，詮次善啓云云。

강원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의 경우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우택의 경우, 이번 달 초2일의 비로 김화·평강·이천·고성 등 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거의 다 이삭이 패었고 참밀은 간혹 이삭이 패었고 봄보리는 알이 배고 귀리는 자랐습니다. 올기장·올조·콩·팥은 푸르러지고, 늦기장·늦조·수수·목화는 땅 밖으로 싹이 나왔고 올벼·늦벼는 이삭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은 초8일 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곧바로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은 1푼이었습니다. 이번 보리와 밀은 이삭이 났고 밭에 뿌린 씨앗은 땅 밖으로 나오는 때에 우택이 언듯 그쳐버려서 자못 가뭄이라는 탄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먼지만 적실 정도로는 촉촉이 적시기에는 부족하여 백정들의 사정은 근심 걱정입니다. 그런데 먹구름이 흩어지지 않았으니 아직 비올 조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한번 퍼붓기를 막 간절히 바랍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24. 1832년(순조 32) 5월 13일(양력 6월 11일)

各司謄錄 27책, 江原監營啓錄 1책(56d~56d) / 江原監營啓錄 1책(127b~128a)

道內農形及雨澤形止，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今月初二日之雨，歙谷得一犁，通川得一鋤，初八日之雨，寧越·江陵·襄陽·三陟·杆城·高城·旌善等七邑得浥塵。而橫城段，十二日之雨，又得浥塵是如爲白有在乎。旱餘鋤浥，殊甚多幸，而列邑既不均霑，雖以得雨處言之，亦未洽潤，出土之各穀，間或枯損，發穗之牟麥，未免失實，言念民事，極爲憂悶，見今夏至只隔一句，際此甘霖，方切顚望。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云。

강원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의 경우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2일의 비로 흙곡은 1려가 내렸고 통천은 1서가 내렸고 초8일의 비로 영월·강릉·양양·삼척·간성·고성·정선 등 7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횡성의 경우, 12일의 비로 또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가문 나머지 1서나 먼지를 적실 정도라도 매우 다행입니다. 그런데 여러 고을을 이미 골고루 적시지 못했습니다. 비록 비가 내린 곳으로 말하더라도 또한 넉넉하지 못했으니, 짝이 땅 밖으로 나온 각종 곡식은 간혹 말랐고 이삭이 팬 보리와 밀은 알을 잃어버리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근심과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하지가 단지 10일 사이인데 이즈음 단비가 주룩주룩 내리기를 바야흐로 간절히 바랍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25. 1856년(철종 7) 9월 2일(양력 9월 30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2책(58a~58a) / 江原監營啓錄 2책(2a~2b)

道內農形及雨澤緣由, 前道臣李 在任時, 已爲陸續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今月初一日子時始雨, 或霏或灑, 乍陰乍陽, 初二日寅時乃止, 測雨器水深爲五分是白乎旃. 卽接各邑所報, 則農形段, 早稻·早黍·粟·唐稷過半刈取, 豆太幾盡黃熟, 木花, 幾半摘取, 晚稻·晚黍·粟及根耕豆·太次第向熟, 晚移畚稻及木麥方張入實是如爲白有在乎. 嗣後形止, 連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강원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의 경우 이전 관찰사 이(李) 재임시에 이미 계속으로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의 이번 달 초1일 자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면서 잠깐 흐리다가 잠깐 별이 나기도 하였는데 초2일 인시에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습니다.

즉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기장·올조·수수는 절반 이상 베어 거두었고 콩·팥은 거의 다 누렇게 익어갔고 목화는 거의 반 따서 거두었고 늦벼·늦기장·늦조 및 그루같이한 콩·팥은 차례로 익어갔고, 늦게 옮겨심은 논벼 및 메밀은 한창 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연달아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26. 1856년(철종 7) 9월 6일(양력 10월 4일)

各司謄錄 27책, 江原監營啓錄 2책(58d~58d) / 江原監營啓錄 2책(3b~4a)

道內農形，纔已馳啓爲白有在果。卽接各邑所報，則洪川·旌善兩邑，今月初一日夜霜降，原州·橫城兩邑，初二日夜霜降是如爲白有臥乎所。經滯晚就之各穀，又值霜信之差早，方實者間多白乾，向熟者未免黃萎，言念穡事，誠甚憂悶是白如乎。災實之可以分等者，民隱之可以仰請者，待其列邑概狀齊報，迫于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矣，詮次善啓云云。

강원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홍천·정선 등 2개 고을은 이번 달 초1일 밤에 서리가 내렸습니다. 원주·횡성 등 2개 고을은 초2일 밤에 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큰물을 당해 각종 곡식은 늦어지게 되었고 또 조금 이른 된서리를 맞아 막 알이 들던 것은 그사이 하얗게 마른 것이 많았고 익어가던 것은 누렇게 시든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농사를 생각하니 정말로 걱정 근심입니다. 재실 중 등급을 나눌 수 있는 것과 백성의 괴로움 중 삼가 요청할 것은 여러 고을에서 대략 보고가 일제히 보고되기를 기다려 추후에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27. 1857년(철종 8) 3월 16일(양력 4월 10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2책(72d~72d) / 江原監營啓錄 2책(37a~37a)

道內農形，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秋耕兩麥向青，春牟次第耕播是如爲白乎
跡。臣營下，今月十五日辰時始雨，或霏或灑，同日酉時乃止，測雨器水深爲三分是白如乎。嗣
後形止，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云。

강원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갈이한 밀·보리는 푸르러지고, 봄보리는 차례대로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달 15일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유시에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푼이었습니다. 이후 경위를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28. 1857년(철종 8) 3월 19일(양력 4월 13일)

各司謄錄 27책, 江原監營啓錄 2책(72d~73a) / 江原監營啓錄 2책(37a~37b)

道內農形及臣營下, 今月十五日得雨三分. 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 十七日寅時, 又爲始雨, 或灑或霖, 十八日戌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三寸三分是白乎旆.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十五日之雨, 原州·寧越·橫城·麟蹄等四邑, 得一鋤是如爲白有知乎. 外此各邑得雨形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강원도 내 농사 상황및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5일에 내린 비가 3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17일 인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18일 술시에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3푼이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5일의 비로 원주·영월·횡성·인제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 밖에 각 고을에 내린 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으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29. 1857년(철종 8) 3월 26일(양력 4월 20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2책(74a~74a) / 江原監營啓錄 2책(39b~40a)

原州等邑雨澤及臣營下得雨形止，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農形段，秋牟眞麥向長，春牟已盡耕播，畚庫間或初翻耕。雨澤段，今月十五日之雨，旌善得一犁，伊川·金化兩邑得一鋤，春川·洪川兩邑浥塵。十七八日之雨，原州·寧越·平昌·旌善·橫城·洪川·麟蹄·楊口·春川等九邑，川渠漲滿。襄陽·蔚珍·金化·平康·伊川等五邑得一犁，杆城·高城·通川等三邑得一鋤是如爲白有在乎。嗣後形止，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云。

원주 등 고을의 우택 및 저의 감영에 비가 온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와 가을밀은 자라고 있고 봄보리는 이미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으며 논은 간혹 처음으로 갈아엎었다고 합니다. 우택의 경우, 이번 달 15일의 비로 정선은 1려가 내렸고 이천·김화 등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춘천·홍천 2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17일·18일의 비로 원주·영월·평창·정선·횡성·홍천·인제·양구·춘천 등 9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양양·울진·김화·평강·이천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간성·고성·통천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30. 1857년(철종 8) 4월 7일(양력 4월 30일)

各司謄錄 27책, 江原監營啓錄 2책(75a~75b) / 江原監營啓錄 2책(42a~42b)

道內農形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農形段, 秋牟眞麥日漸向長, 春牟出土, 耳牟始爲耕播, 畚庫幾盡初翻耕, 早·晚稻注秧. 雨澤段, 去月十七八日之雨, 安峽川渠微漲, 金城得二犁, 鐵原·淮陽·狼川·三陟·平海等五邑得一犁, 江陵·歙谷兩邑得一鋤. 二十一日之雨, 蔚珍·平海·洪川等三邑得一鋤, 原州·橫城兩邑浥塵是如爲白有在乎. 嗣後形止, 連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강원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은 이전에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밀은 날마다 점점 자라고 있고 봄보리는 싹이 땅 밖으로 나왔고 귀리는 비로소 땅을 갈아엎었고, 논은 거의 다 첫 번째로 갈아엎었고 올벼·늦벼 모판에 볍씨를 뿌렸습니다.

우택의 경우, 지난달 17일·18일의 비로 안협은 시내와 도랑이 약간 불어났고 금성은 2려가 내렸고 철원·회양·낭천·삼척·평해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강릉·흡곡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21일의 비로 울진·평해·홍천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원주·횡성 2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연달아 아뿔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31. 1857년(철종 8) 4월 11일(양력 5월 4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2책(75c~75c) / 江原監營啓錄 2책(43a~43a)

道內農形雨澤，纔已馳啓爲白有在果。臣營下，今月初九日寅時始雨，或灑或霏，十一日卯時乃止，測雨器水深爲二寸七分是白如乎。各邑得雨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云。

강원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의 이번 달 초9일 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11일 묘시에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7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비의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32. 1857년(철종 8) 4월 17일(양력 5월 10일)

各司謄錄 27책, 江原監營啓錄 2책(76a~76b) / 江原監營啓錄 2책(44b~45a)

臣營下今月十一日卯時至, 得雨二寸七分. 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 伊日以後, 連爲陰暄, 或微霏或霑灑, 十六日酉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七分是白乎旆. 連接各邑所報, 則農形段, 秋車眞麥日漸茁長, 春車向青, 耳車過半耕播, 畚庫已盡初翻耕, 早·晚稻注秧垂畢. 雨澤段, 自今月初九日至, 十一日之雨, 寧越·平昌·旌善·三陟·橫城·洪川·春川·蔚珍等八邑, 川渠漲滿, 原州·狼川兩邑得二犁, 楊口得一犁是如爲白有在乎. 嗣後形止, 陸續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良矣, 詮次善啓云云.

저의 감영의 이번 달 11일 묘시에 이르러 내린 비가 2치 7푼이었던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이어 검은 구름이 끼었고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16일 유시에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밀은 날로 점점 싹이 자랐고, 봄보리는 푸르러지고 귀리는 절반 이상이나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고, 논은 이미 다 초벌갈이를 했고, 올벼·늦벼는 모판에 범씨뿌리기를 마쳤습니다.

우택의 경우, 이번 달 초9일부터 11일까지의 비로 영월·평창·정선·삼척·횡성·홍천·춘천·울진 등 8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원주·낭천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양구는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계속으로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33. 1857년(철종 8) 4월 27일(양력 5월 20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2책(76b~76c) / 江原監營啓錄 2책(45a~45b)

臣營下得雨形止及道內農形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農形段, 秋牟胚胎, 眞麥茁茂, 春牟向長, 耳牟出土, 早黍·粟·豆·太木花次第耕播, 畚庫方始再翻耕, 早·晚稻立苗. 雨澤段, 自今月初九日至十一日之雨, 平海·襄陽·麟蹄·金城·淮陽·鐵原·伊川·安峽等八邑, 川渠微漲, 江陵·杆城·高城·通川·歙谷等五邑得一犁, 平康·金化兩邑得二犁. 自十二日至十六日之雨, 旌善·春川·鐵原等三邑川渠漲滿, 蔚珍得二犁, 襄陽·橫城·狼川等三邑得一犁, 原州得二鋤, 高城得一犁是如爲白有在乎. 嗣後形止, 連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저의 감영에 내린 비의 경위 및 강원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은 앞서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알이 배었고 밀은 싹이 자라 무성해졌고 봄보리는 자라고 있고 귀리는 싹이 땅 밖으로 나왔고, 올기장·올조·콩·팥·목화는 차례로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고 논은 막 재벌갈이를 시작을 시작하였고 올벼·늦벼는 어린 모가 났습니다.

우택의 경우, 이번 달 초9일부터 11일까지의 비로 평해·양양·인제·금성·회양·철원·이천·안협 등 8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약간 불어났고, 강릉·간성·고성·통천·흡곡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평강·김화 등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습니다. 12일부터 16일까지의 비로 정선·춘천·철원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울진은 2려가 내렸고 양양·횡성·낭천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원주는 2서가 내렸고 고성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연달아 아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34. 1857년(철종 8) 5월 7일(양력 5월 29일)

各司謄錄 27책, 江原監營啓錄 2책(76d~76d) / 江原監營啓錄 2책(45b~46a)

道內農形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秋牟發穗, 眞麥胚胎, 春牟茁長, 耳牟立苗, 早黍·粟·豆·太木花出土, 晚黍·粟·唐稷耕播, 早·晚稻向青是如爲白有如乎. 嗣後形止, 陸續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강원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이삭이 났고 밀은 알을 배었고 봄보리는 싹이 자라고 귀리는 모가 나왔고, 올기장·올조·콩·팥·목화는 땅 밖으로 싹이 나왔, 늦기장·늦조·수수는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으며 올벼·늦벼는 푸르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계속으로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35. 1857년(철종 8) 5월 17일(양력 6월 8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2책(77a~77b) / 江原監營啓錄 2책(46b~46b)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農形段, 秋牟已盡發穗, 眞麥方始發穗, 春牟胚胎, 耳牟向長, 早黍·粟·豆·太木花向青, 晚黍·粟·唐稷出土, 早稻間或移秧, 晚稻漸次向青. 雨澤段, 今月初三日之雨, 江陵·三陟兩邑得一犁, 旌善得二鋤, 杆城·蔚珍·寧越·平昌·麟蹄等五邑得一鋤, 高城·通川·歙谷·原州·橫城·洪川·淮陽·平康·鐵原等九邑溫塵. 初六日之雨, 伊川·安峽兩邑得一鋤是如爲白有在乎. 嗣後形止, 連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강원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모두 이삭이 났고 밀은 막 이삭이 났고 봄보리는 알이 배었고 귀리는 자라고 있고 올기장·올조·콩·팥·목화는 푸르러지고 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땅 밖으로 싹이 나왔고 올벼는 간혹 모내기를 하였고 늦벼는 점점 푸르러졌습니다.

우택의 경우 이번 달 초3일의 비로 강릉·삼척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정선은 2서가 내렸고 간성·울진·영월·평창·인제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고성·통천·흡곡·원주·횡성·홍천·회양·평강·철원 등 9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초6일의 비로 이천·안협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연달아 아뿔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36. 1857년(철종 8) 5월 19일(양력 6월 10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2책(77b~77b) / 江原監營啓錄 2책(47a~47a)

道內農形雨澤，纔已馳啓爲白有在果。臣營下，今月十七日午時始雨，或霏或霑，十九日巳時乃止，測雨器水深爲九分是白如乎。各邑得雨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云。

강원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의 이번 달 17일 오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19일 사시에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9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비의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37. 1857년(철종 8) 5월 27일(양력 6월 18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2책(78b~78c) / 江原監營啓錄 2책(49a~49a)

臣營下, 今月十九日巳時至, 得雨九分. 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農形段, 秋牟入實, 眞麥幾盡發穗, 春牟始爲發穗, 耳牟日漸茁茂, 早黍·粟·豆·太木花向長, 晚黍·粟·唐稷立苗, 早稻方始着根, 晚稻間或移秧. 雨澤段, 自今月十七日至十九日之雨, 原州·橫城兩邑得二鋤, 襄陽·杆城·鐵原等三邑得一鋤, 洪川·楊口·狼川·春川·旌善等五邑浥塵是如爲白有如乎. 嗣後形止, 連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저의 감영의 이번 달 19일 사시에 이르러 내린 비가 9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은 가을보리는 알이 들었고 밀은 거의 다 이삭이 났고, 봄보리는 비로소 이삭이 났고, 귀리는 날로 점점 싹이 나 무성해졌고 올기장·올조·콩·팥·목화는 자라고 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모가 나왔고, 올벼는 막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늦벼는 간혹 모내기하였습니다.

우택의 경우, 이번 달 17일부터 19일까지의 비로 원주·횡성 2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양양·간성·철원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홍천·양구·낭천·춘천·정선 등 5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연달아 아뿔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38. 1857년(철종 8) 윤5월 1일(양력 6월 22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2책(78c~78c) / 江原監營啓錄 2책(49a~49b)

道內農形雨澤，纔已馳啓爲白〈有〉在果，臣營下，去月三十日午時始雨，或灑或霏，今月初一日辰時乃止，測雨器水深爲二寸三分是白如乎。各邑得雨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云。

강원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의 지난달 30일 오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이번 달 초1일 진시에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3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39. 1857년(철종 8) 윤5월 8일(양력 6월 29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2책(78c~78d) / 江原監營啓錄 2책(49b~50a)

臣營下, 今月初四日酉時至, 得雨二寸七分. 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 初七日丑時, 又爲始雨, 或灑或淫. 初八日辰時乃止, 測雨器水深爲二寸四分, 而陰雲不散, 雨意尙濃是白乎旆.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三十之雨, 金化得二鋤, 江陵·襄陽·蔚珍·狼川·平康等五邑得一鋤, 杆城·高城兩邑浥塵. 今月初二三四日之雨, 橫城·旌善兩邑川渠微漲, 原川[州]得二犁, 洪川得一犁. 農形段, 秋牟黃熟, 眞麥入實, 春牟已盡發穗, 耳牟胚胎, 早稻·早黍·粟·豆·太木花次第初耘, 晚黍·粟·唐稷向長, 晚稻移秧垂畢是如爲白有知乎. 嗣後形止,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저의 감영의 이번 달 초4일 유시까지 내린 비가 2치 7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초7일 축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초8일 진시에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4푼이었습니다. 그런데 먹구름이 흩어지지 않아 비올 조짐이 짙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30일의 비로 김화는 2서가 내렸고 강릉·양양·울진·낭천·평강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간성·고성 2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이번 달 초2일·3일·4일의 비로 횡성·정선 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약간 불어났고 원주는 2려가 내렸고 홍천은 1려가 내렸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누렇게 익었고, 밀은 알이 들었고 봄보리는 이미 다 싹이 났고 귀리는 알이 배고 올벼·올기장·올조·콩·팥·목화는 차례로 초벌매기를 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자라고 있고 늦벼는 모내기를 끝마쳤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계속해서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40. 1857년(철종 8) 윤5월 11일(양력 7월 2일)

各司謄錄 27책, 江原監營啓錄 2책(78d~79a) / 江原監營啓錄 2책(50a~50b)

道內農形雨澤及臣營下, 今月初八日辰時至, 得雨二寸四分. 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 初九日丑時又爲始雨, 或灑或霏. 初十日未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三寸五分是白乎旂.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三十日之雨, 伊川得一犁, 安峽得一鋤, 平海浥塵. 今月初二三四日之雨, 寧越川渠漲滿, 平昌得一犁, 江陵·杆城兩邑得一鋤. 初七八日之雨, 原州·橫城兩邑川渠漲滿是如爲白有在乎.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강원도 내 농사 상황 및 우택과 이번 달 초8일 진시까지 내린 비가 2치 4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초9일 축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초10일 미시에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5푼이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30일의 비로 이천은 1려가 내렸고 안협은 1서가 내렸고 평해는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이번 달 초2일·3일·4일의 비로 영월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평창은 1려가 내렸고 강릉·간성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초7일·8일의 비로 원주·횡성 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뿔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41. 1857년(철종 8) 윤5월 15일(양력 7월 6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2책(79a~79a) / 江原監營啓錄 2책(50b~50b)

臣營下, 今月初十日未時至, 得雨三寸五分, 纔已馳啓爲白有在果. 十三日巳時, 又爲始雨, 或霏或霖, 間以陰晴. 十五日午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三寸九分是白乎旃. 連接各邑所報, 今月初四五日之雨, 三陟得二犁, 蔚珍得一犁, 鐵原得二鋤, 襄陽得一鋤, 初七八之雨, 金化得二犁, 江陵得一犁, 金城·麟蹄兩邑得二鋤. 初九十日之雨, 原州·旌善·洪川·春川等四邑川渠漲滿, 橫城·楊口兩邑得一犁是如爲白有在乎. 嗣後形止, 連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저의 감영의 이번 달 초10일 미시까지 내린 비가 3치 5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13일 사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간혹 짙은 구름이 끼었고 15일 오시에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9푼이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4일·5일의 비로 삼척은 2려가 내렸고 울진은 1려가 내렸고 철원은 2서가 내렸고 양양은 1서가 내렸고, 초7·8일의 비로 김화는 2려가 내렸고 강릉읍은 1려가 내렸고 금성·인제 2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초9일·10일의 비로 원주·정선·홍천·춘천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횡성·양구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습니다. 이후 경위는 연달아 아뿔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42. 1857년(철종 8) 윤5월 18일(양력 7월 9일)

各司謄錄 27책, 江原監營啓錄 2책(80a~80b) / 江原監營啓錄 2책(52b~53a)

臣營下, 今月十五日午時至, 得雨三寸九分. 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 十六日申時又爲始雨, 或霏灑或陰暄, 十七日未時乃止, 測雨器水深爲四分是白乎旡.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初七八<日>之雨, 伊川·淮陽·平海等三邑得一犁, 高城·通川·歙谷等三邑得一鋤. 初九十日之日[雨], 寧越·三陟兩邑川渠漲滿, 安峽得二犁, 鐵原·平康·狼川·杆城等四邑得一犁, 襄陽得一鋤. 自十二日至十五日之雨, 橫城·洪川·江陵·原州等四邑川渠漲滿. 農形段, (秋牟)刈取眞麥黃熟, 春牟入實, 耳牟發穗, 早稻·早黍·粟·豆·太木花, 幾盡初耘, 晚稻·晚黍·粟·唐稷, 間或初耘是如爲白有在乎. 嗣後形止,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저의 감영의 이번 달 15일 오시까지 내린 비가 3치 9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16일 신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뿌리거나 더러 짙은 구름이 끼다가 17일 미시에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4푼이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7일·8일의 비로 이천·회양·평해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고성·통천·흡곡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초9일·10일의 비로 영월·삼척 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안협은 2려가 내렸고 철원·평강·낭천·간성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양양은 1서가 내렸고, 12일부터 15일까지의 비로 횡성·홍천·강릉·원주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베어 거두었고 밀은 누렇게 익어가고 봄보리는 알이 들었고 귀리는 이삭이 났고 올벼·올기장·올조·콩·팥·목화는 거의 다 초벌매기를 하였고 늦벼·늦기장·늦조·수수는 간혹 초벌매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계속 아뿔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43. 1857년(철종 8) 윤5월 25일(양력 7월 16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2책(80c~80c) / 江原監營啓錄 2책(53b~54a)

道內農形雨澤及臣營下今月十七日未時至得雨四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二十三日巳時又雨, 或灑或霏, 間以滂沱, 二十五日申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七寸六分, 而陰雲不散, 雨意尙濃是白乎旆. 連接各邑所報, 則自今月十二日至十五日之雨, 平海·蔚珍·三陟·旌善·平昌·洪川·麟蹄·春川·金城·金化·伊川·安峽等十二邑, 川渠漲滿, 平康得二犁, 杆城·高城兩邑得一鋤是如爲白有知乎.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강원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 및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7일 미시까지 내린 비가 4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23일 사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간혹 퍼붓다가 25일 신시에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7치 6푼이었고 먹구름이 흩어지지 않아 비올 조짐이 아직 짙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2일부터 15일까지의 비로 평해·울진·삼척·정선·평창·홍천·인제·춘천·금성·김화·이천·안협 등 1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평강은 2려가 내렸고 간성·고성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44. 1857년(철종 8) 윤5월 28일(양력 7월 19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2책(81c~81d) / 江原監營啓錄 2책(56a~56b)

臣營下, 今月二十五日申時至, 得雨七寸六分. 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農形段, 眞麥刈取, 春牟黃熟, 耳牟入實, 早稻·早黍·粟·豆·太木花再耘, 晚稻·晚黍·粟·唐稷幾盡初耘, 根耕豆·太始爲耕播. 而杆城·高城·襄陽等三邑, 蝨蟲忽發, 稍蝕田苗, 延及水種, 痒損非細. 蔚珍·平昌·橫城等三邑, 雨水頻仍, 江川連漲, 近浦田畝, 多有沈墊潰缺之患是如爲白有如乎. 當此各穀茁長之時, 蟲災水害, 俱極憂悶. 嗣後形止,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5일 신시까지 내린 비가 7치 6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밀은 베어 거두었고 봄보리는 누렇게 익어가고 귀리는 알이 들었고 올벼·올기장·올조·콩·팥·목화는 두벌매기를 하였고 늦벼·늦기장·늦조·수수는 거의 다 초벌매기를 하였고, 그루같이 콩·팥은 비로소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고 간성·고성·양양 등 3개 고을은 벼멸구가 갑자기 발생하여 밭모를 조금 갉아먹었고, 물에 뿌린 벼씨까지 미쳐서 피해가 작지 않습니다. 울진·평창·횡성 등 3개 고을은 빗물이 빈번하여 강과 시내가 연이어 불어나 포구 근처 논밭은 잠기고 터질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이번 각종 곡식이 자랄 때인데, 해충과 수재는 모두 근심과 걱정이 그지없습니다. 이후 경위는 계속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45. 1857년(철종 8) 6월 9일(양력 7월 29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2책(82a~82b) / 江原監營啓錄 2책(57a~57b)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 今月初七日未時始雨, 或霏灑或霏下, 初九日辰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七寸一分是白乎旅. 連接各邑所報, 則自去月二十二日至二十五日之雨, 原州·平昌·旌善·蔚珍·平海·三陟·江陵·襄陽·杆城·洪川·麟蹄·楊口·狼川·春川·金化等十六邑, 川渠漲溢, 高城·通川·金城·安峽等四邑得二犁, 平康·鐵原·伊川·寧越等四邑得一犁, 歙谷得二鋤, 淮陽得一鋤. 農形段, 春牟刈取, 耳牟向熟, 早稻·早黍·粟·豆·太木花間或三耘, 晚稻·晚黍·粟·唐稷再耘, 根耕豆·太出土, 木麥始爲耕播. 而三陟·通川·歙谷·淮陽等四邑, 蟲災滋蔓, 稍食莖葉, 痒損非細. 江陵·襄陽兩邑, 連日滂沱, 北風兼作, 方長之生麻, 偏被靡折. 平海段, 沿浦田畓, 汰覆居多是如爲白有如. 久澇之餘, 災形迭發, 言念民事, 誠切憂悶.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矣, 詮次善啓云云.

강원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달 초7일 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초9일 진시에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7치 1푼이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의 비로 원주·평창·정선·울진·평해·삼척·강릉·양양·간성·홍천·인제·양구·낭천·춘천·김화 등 1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찼고, 고성·통천·금성·안협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평강·철원·이천·영월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흙곡은 2서가 내렸고 회양은 1서가 내렸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봄보리는 베어 거두었고 귀리는 익어가고 있고 올벼·올기장·올조·콩·팥·목화는 간혹 세벌매기를 하였고 늦벼·늦기장·늦조·수수는 두벌매기를 하였고 그루갈이 콩·팥은 짝이 땅 밖으로 나왔고 보리는 비로소 땅을 갈고 씨상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삼척·통천·흙곡·회양 등 4개 고을은 별레 재해가 번져 줄기와 잎을 조금 갇아먹어 손해가 적지 않습니다. 강릉·양양 2개 고을은 매일 퍼부었고 강풍도 함께 불어서 바야흐로 자란 생마는 심하게 쓰러지거나 꺾어졌습니다. 평해의 경우 포구 주변 논밭은 사태로 덮인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오래 큰물이 진 나머지 재해 형태가 번갈아 발생하였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근심 걱정입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46. 1857년(철종 8) 6월 20일(양력 8월 9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2책(83a~83b) / 江原監營啓錄 2책(59a~60a)

道內農形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今月十七日未時始雨, 或霏或灑, 二十日巳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一尺六寸是白乎旂. 連接各邑所報, 則農形段, 耳車間或刈取, 早稻·早黍·粟·豆·太木花, 幾盡三耘, 晚稻·晚黍·粟·唐稷方始三耘, 根耕豆·太向青, 木麥出土. 雨澤段, 今月初八九日之雨, 寧越·旌善·杆城·通川·歙谷·橫城·麟蹄·春川·金化·平康·安峽等十一邑, 川渠漲溢. 原州·平昌·三陟·蔚珍·江陵·襄陽·高城·洪川·楊口·狼川·淮陽·金城·鐵原·伊川等十四邑, 川渠微漲. 而山郡則種種汰覆, 沿邑則往往沈墊, 田畝各穀, 率多瘠損. 杆城·高城·襄陽·三陟·通川·歙谷·淮陽等七邑, 蝨蟲漸次寢息. 而被災最甚, 無望蘇醒者, 或爲代播是如爲白有如何, 蟲災漸息, 雖甚多幸, 而潦雨瘠稼, 誠非細悶. 嗣後形止,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강원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달 17일 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가랑비와 내리거나 주룩주룩 내리다가 20일 사시에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자 6치이었다고 합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귀리는 간혹 베어 거두었고 올벼·올기장·올조·콩·팥·목화는 거의 다 세벌갈이를 했고 늦벼·늦기장·늦조·수수는 막 세벌갈이를 시작했고 그루갈이한 콩·팥은 푸르러졌고 메밀은 땅 밖으로 싹이 나왔습니다. 이번 달 초8일·9일의 비로 영월·정선·간성·통천·흡곡·횡성·인제·춘천·김화·평강·안협 등 11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넘쳐흘렀고, 원주·평창·삼척·울진·강릉·양양·고성·홍천·양구·낭천·회양·금성·철원·이천 등 1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습니다. 산골짜기 군은 종종 사태로 덮여졌고 물가 근처 고을은 종종 잠기어 논밭의 각종 곡식은 대부분 피해를 입었습니다.

간성·고성·양양·삼척·통천·흡곡·회양 등 7개 고을은 벼멸구가 점점 그쳤지만 입은 피해는 가장 심해 되살아날 가망이 없어서 더러 대체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벌레 재앙이 점점 그친 것은 비록 매우 다행이나 큰비로 입은 농사가 정말로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이후 경위는 계속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47. 1857년(철종 8) 6월 30일(양력 8월 19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2책(83b~83c) / 江原監營啓錄 2책(60a~60b)

道內農形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農形段, 耳牟已盡刈取, 早稻·早黍·粟唐稷次第胚胎, 豆·太木花方始開花, 晚稻·晚黍·粟三耘垂畢, 根耕豆·太初耘, 木麥向長. 雨澤段, 自今月十七日至二十日之雨, 原州·寧越·平昌·旌善·橫城·洪川·麟蹄·楊口·春川·狼川·金城·平康·伊川·安峽等十四邑, 川渠漲溢. 三陟·蔚珍·襄陽·杆城等四邑, 川渠微漲, 鐵原得一犁, 而宿漲未退, 新水頻添, 浦邊則多日汎濫, 各種皆至消澌, 山底則隨處汰覆, 良田變爲沙石, 被災受損, 無邑不然是如爲白有臥乎所. 農候未半, 災形如此, 言念民事, 誠切憂悶, 何幸近日, 連爲調曝, 除非全棄者外, 庶有蘇醒之望是白如乎.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강원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은 앞서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귀리는 이미 다 베어 거두었고 올벼·올기장·올조·수수는 차례로 알을 배었고 콩·팥·목화는 막 꽃이 피기 시작했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세벌갈이가 끝났고 그루갈이한 콩·팥은 초벌갈이를 하였고 메밀은 자라고 있습니다.

우택의 경우, 이번 달 17일부터 20일까지의 비로 원주·영월·평창·정선·횡성·홍천·인제·양구·춘천·낭천·금성·평강·이천·안협 등 1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삼척·울진·양양·간성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철원은 1려가 내렸습니다. 불어나 고인 물이 빠지지 않고 새로운 물이 거듭 추가되어 포구 주변은 여러 날 범람하였고 각종 곡식은 모두 녹아버리게 되었고 산밭은 곳곳이 사태로 덮였고 좋은 밭이 변하여 모래와 돌이 되어 재앙을 입어 받은 피해가 고을이 없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농사철이 절반도 안되었는데 재앙의 형태가 이와 같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걱정 근심입니다. 매우 다행스럽게도 요즘 연이어 햇벌이 조화롭게 쪼니 전부 포기한 것을 제외하면 아마도 되살아날 가망이 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

0048. 1857년(철종 8) 7월 7일(양력 8월 26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2책(83d~83d) / 江原監營啓錄 2책(61a~61b)

道內農形雨澤，已爲馳啓爲白有在果。臣營下，今月初五日酉時始雨，或霏或霏，初六日戌時乃止，測雨器水深爲二寸五分是白如乎。嗣後形止，連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云。

강원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의 이번 달 초5일 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부슬부슬 내리다가 초6일 술시에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5푼이었습니다. 이후 경위는 연달아 아뿔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49. 1857년(철종 8) 7월 10일(양력 8월 29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2책(83d~84a) / 江原監營啓錄 2책(61b~61b)

臣營下, 今月初六日戌時至, 得雨二寸五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農形段, 早稻·早黍·粟·唐稷方張發穗, 豆·太次第結穀, 木花結穎, 晚稻·晚黍·粟間或胚胎, 根耕豆·太開花, 木麥漸長. 雨澤段, 今月初一二日之雨, 三陟得二犁, 平海得一犁, 蔚珍·旌善兩邑得一鋤. 初五六日之雨, 原州得二犁是如爲白有在乎.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저의 감영의 이번 달 초6일 술시까지 내린 비가 2치 5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기장·올조·수수는 한창 이삭이 났으며 콩·팥은 차례로 꼬투리를 맺었고 목화도 다래가 맺혔고 늦벼·늦기장·늦조는 간혹 알이 배었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꽃이 피었고 메밀은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우택의 경우 이번 달 초1일·2일의 비로 삼척은 2려가 내렸고 평해는 1려가 내렸고 울진·정선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초5일·6일의 비로 원주는 2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50. 1857년(철종 8) 7월 17일(양력 9월 5일)

各司謄錄 27책, 江原監營啓錄 2책(84b~84c) / 江原監營啓錄 2책(62b~62b)

道內農形雨澤, 已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 今月十六日未時始雨, 或霏或霏, 十七日卯時乃止, 測雨器水深爲二寸五分是白乎旂.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初五六日之雨, 寧越·麟蹄·金化·伊川·安峽等五邑得一犁, 蔚珍·平海·平昌·橫城·平康等五邑得一鋤是如爲白有知乎. 嗣後形止, 連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강원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달 16일 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면서 17일 묘시에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5푼이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5일·6일의 비로 영월·인제·김화·이천·안협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울진·평해·평창·횡성·평강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51. 1857년(철종 8) 7월 17일(양력 9월 5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2책(84b~84c) / 江原監營啓錄 2책(62b~62b)

道內農形雨澤, 已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 今月十六日未時始雨, 或霏或霏, 十七日卯時乃止, 測雨器水深爲二寸五分是白乎旡.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初五六日之雨, 寧越·麟蹄·金化·伊川·安峽等五邑得一犁, 蔚珍·平海·平昌·橫城·平康等五邑得一鋤是如爲白有知乎. 嗣後形止, 連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尠, 詮次善啓云云.

강원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6일 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17일 묘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5푼이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5일·6일의 비로 영월·인제·김화·이천·안협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울진·평해·평창·횡성·평강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연달아 아뿔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52. 1857년(철종 8) 7월 21일(양력 9월 9일)

各司謄錄 27책, 江原監營啓錄 2책(84d~85a) / 江原監營啓錄 2책(63b~64a)

臣營下, 今月十七日卯時至, 得雨二寸五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二十日丑時又雨, 一直霑灑, 二十一日申時至, 測雨器水深爲八寸二分, 而東風交作, 終無開霽之意是白乎旆.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十六七日之雨, 江陵川渠漲滿, 三陟·原州兩邑得一犁, 橫城得二鋤, 平昌得一鋤. 農形, 早稻早黍·粟·唐稷次第入實, 豆·太已盡結穀, 木花間或吐絮, 晚稻晚黍·粟方張發穗, 根耕豆·太始爲結穀, 木麥開<花>是如爲白有在乎. 當此各穀漸就之時, 冷霑淒吹, 連日不息, 痒損之患, 難保必無, 言念穡事, 誠切憧憧. 各邑被災有無,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0일 묘시까지 내린 비가 2치 5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20일 축시에 또 비가 줄곧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21일 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8치 2푼이었고 동풍이 어지러이 불고 끝내 개일 조심이 없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6·17일의 비로 강릉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삼척·원주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횡성은 2서가 내렸고, 평창은 1서가 내렸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기장·올조·수수는 차례로 알이 들고 콩·팥은 이미 다 꼬투리를 맺었고 목화는 간혹 솜이 터져나오고 늦벼·늦기장·늦조는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그루갈이한 콩·팥은 비로소 꼬투리를 맺고 메밀은 꽃이 핀다고 합니다. 이렇게 각종 곡식이 점점 익어가는 때에 찬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바람이 서늘하게 불며 연일 그치지 않으니, 손해에 대한 근심이 결코 없으리라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농사를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각 고을의 재해를 당한 유무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53. 1857년(철종 8) 7월 23일(양력 9월 11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2책(85a~85b) / 江原監營啓錄 2책(64a~64b)

節呈原州判官李忠翼牒呈內, 卽接本州地向谷面面任邊辰東所報, 則今月二十日之雨, 連日暴霖, 江川汎濫, 民家頽壓爲十一戶, 而人命雖免淪沒, 家藏什物盡爲漂失是如乙仍于. 判官躬往摘奸, 則北倉村民家十一戶之一時全頽, 果爲的實. 故恤典段, 依定式先爲題給後, 修成冊牒報是如爲白有臥乎所. 當此農節, 多戶失所, 極爲矜悶, 借材助力, 趁卽結構入處, 無或棲屑之意, 嚴飭題送爲白乎旆. 同頽壓戶殘戶十一戶, 區別家舍間數, 修成冊上送于賑恤廳爲白去乎. 恤典令該廳會減施行爲白只爲. 詮次善啓云云.

요약 보고합니다. 원주 판관 이충익의 문서 보고 내용에, “방금 본 원주 지역 향곡면 면임 변진동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0일 비가 연일 세차게 주룩주룩 내려 강과 시내가 범람하여 백성 집 11가구가 무너졌는데, 사람은 비록 빠져 죽는 것은 면했으나 집에 있는 살림살이가 다 떠내려가버렸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판관인 제가 몸서 가서 캐보니, 북창촌의 백성 집 11호가 한꺼번에 완전히 무너진 것이 정말로 확실하였으므로, 홀전의 경우 정식으로 먼저 결정문으로 준 뒤에 성책을 작성하여 문서보고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농사철을 맞이하여 많은 가구가 살 곳을 잃었으니 그지없이 가엾고 걱정되어 재목을 빌려주고 인력을 도와주어 즉시 집을 지어 들어가 살게 하고 혹시라도 떠돌아다니지 말라는 뜻으로 엄히 지시한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위 무너져 가구 중 잔호가 11가구인데 집의 칸수를 구별하고 성책을 작성하여 진휼청에 올려 보냈으니, 홀전은 해당 진휼청에서 회계 처리하게 하여 시행하였으면 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54. 1857년(철종 8) 7월 23일(양력 9월 11일)

各司謄錄 27책, 江原監營啓錄 2책(85b~85b) / 江原監營啓錄 2책(64b~65a)

道內農形及臣營下, 今月二十一日申時至得雨八寸二分. 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 同日戌時又雨, 或灑或霏, 二十三日卯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三寸是白如乎. 各邑得雨形止, 隨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강원도 내 농사 상황 및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1일 신시까지 내린 비가 8치 2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같은 날 술시에 또 비가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23일 묘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였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비의 경위는 보고가 오는 대로 연달아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55. 1857년(철종 8) 8월 1일(양력 9월 18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2책(85c~85d) / 江原監營啓錄 2책(65a~66a)

臣營下去月二十三日卯時至得雨三寸. 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月十六七日之雨, 通川·麟蹄·平康·伊川·安峽等五邑川渠漲滿, 鐵原·淮陽·杆城·蔚珍·平海等五邑得一鋤. 自十九日至二十三日之雨, 原州·寧越·平昌·旌善·三陟·平海·江陵·襄陽·杆城·高城·通川·歙谷·橫城·洪川·春川·楊口·狼川·鐵原等十八邑, 川渠漲滿. 農形段, 早稻早黍·粟·唐稷間或向熟, 豆·太始爲入實, 木花方張吐絮, 晚稻晚黍·粟已盡發穗, 根耕豆·太過半結穀, 木麥方始結實. 而原州·寧越·平昌·旌善·三陟·平海·杆城·通川·橫城·春川等邑段, 積水久沈, 淒風連吹, 將穗者含縮而不發, 向實者委靡而白乾, 田畝各種, 率多瘠損是如爲白有在乎. 農候漸催, 災形如此, 念(念)民事極爲憂悶, 嗣後形止,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저의 감영에 지난달 16일·17일 묘시까지 내린 비가 3치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16·17일의 비로 통천·인제·평강·이천·안협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철원·회양·간성·울진·평해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19일부터 23일까지의 비로 원주·영월·평창·정선·삼척·평해·강릉·양양·간성·고성·통천·흡곡·횡성·홍천·춘천·양구·낭천·철원 등 18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기장·올조·수수는 간혹 익어가고 콩·팥은 비로소 알이 들고 목화는 한창 숨이 터져 나오고 있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이미 다 이삭이 패었고 그루같이 한 콩·팥은 절반 이상 꼬투리를 맺었고 메밀은 막 열매를 맺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주·영월·평창·정선·삼척·평해·간성·통천·횡성·춘천 등 고을의 경우, 물이 쌓여 오래 침수되고 찬바람이 연이어 불어 이삭이 패려던 것은 오그라들어 패지 못하고 여물어가던 것은 시들어 쓰러져 하얗게 말랐고 논밭의 각종 곡식은 대부분 손상되었습니다. 농사철이 점점 바빠지는데 재해 상황이 이와 같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그지없이 근심되고 걱정입니다. 이후 경위는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56. 1857년(철종 8) 8월 11일(양력 9월 28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2책(86d~86d) / 江原監營啓錄 2책(68a~68b)

道內農形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早稻早黍·粟·唐稷間或刈取, 豆·太過半入實, 木花始爲摘取, 晚稻晚黍·粟次第入實, 根耕豆·太幾盡結殼, 木麥方張結實是如爲白有在乎.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강원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벼·올기장·올조·수수는 간혹 베어 거두고 콩·팥은 절반 이상 알이 들고 목화는 비로소 숨을 따서 거두기 시작하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차례로 알이 들고 그루깎이한 콩·팥은 거의 다 꼬투리를 맺었고 메밀은 한창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주십시오.

0057. 1857년(철종 8) 8월 18일(양력 10월 5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2책(88b~88b) / 江原監營啓錄 2책(72a~72a)

道內農形，已爲馳啓爲白有在果。臣營下，今月十六日酉時始雨，或霏或灑，十八日巳時乃止，測雨器水深爲四寸五分是白如乎。當此各穀成就之時，雨水若是過中，穡事誠切憂悶。各邑得雨形止，隨其報連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乎)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云。

강원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6일 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8일 사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4치 5푼이었습니다. 이렇게 각종 곡식이 여물어가는 때에 빗물이 이같이 지나치니 농사가 정말로 매우 근심되고 걱정입니다. 각 고을의 내린 비의 경위는 보고하는 대로 연달아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58. 1857년(철종 8) 8월 21일(양력 10월 8일)

各司謄錄 27책, 江原監營啓錄 2책(88b~88c) / 江原監營啓錄 2책(72a~72b)

臣營下, 今月十八日巳時至, 得雨四寸五分. 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農形段, 早稻早黍·粟·唐稷過半刈取, 豆·太日漸黃熟, 木花方張摘取, 晚稻晚黍·粟次第向熟, 根耕豆·太間或入實, 木麥幾盡結實是如爲白有在乎. 嗣後形止, 連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8일 사시까지 내린 비가 4치 5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기장·올조·수수는 절반 이상 베어 거두었고 콩·팥은 날로 점점 누렇게 익어가고 목화는 한창 따서 거두고 있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차례로 익어가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간혹 알이 들고 메밀은 거의 다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연달아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59. 1857년(철종 8) 8월 29일(양력 10월 16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2책(88c~88d) / 江原監營啓錄 2책(72b~73a)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早稻早黍·粟·唐稷幾盡刈取, 豆·太次第收獲, 木花過半摘取, 晚稻晚黍·粟間或刈取, 根耕豆·太及木麥方始向熟是白遣. 平康今月十八日夜霜降, 楊口·狼川兩邑二十四日夜霜降, 原州二十八日夜霜降是如爲白有在乎. 澇損之餘, 霜信又催, 晚就各種, 無望收榆, 言念穡事, 誠甚憂悶. 災實分等, 待列邑概狀齊報, 迫于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강원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벼·올기장·올조·수수는 이미 다 베어 거두었고 콩·팥은 차례로 수확하고 목화는 절반 이상 따서 거두고 늦벼·늦기장·늦조는 간혹 베어 거두고 그루같이한 콩·팥 및 메밀은 막 익어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평강은 이번 달 18일 밤에 서리가 내렸고, 양구·낭천 2개 고을은 24일 밤에 서리가 내렸고, 원주는 28일 밤에 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장마로 손상된 끝에 서리 소식이 또 재촉하니 늦게 여우는 각종 곡식은 수확할 가망이 없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근심되고 걱정입니다. 재해 등급은 여러 고을에서 대략 보고가 일제히 보고되기를 기다려 나중에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60. 1860년(철종 11) 3월 18(양력 4월 8일)

各司謄錄 27책, 江原監營啓錄 (14b~14b) / 江原監營啓錄 3책(16b~17a)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秋耕兩麥向青, 春牟方張耕播是如爲白有
如乎.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강원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갈이한 밀과 보리는 푸르러지고 봄보리는 한창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
다 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61. 1860년(철종 11) 3월 20일(양력 4월 10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3책(14b~14c) / 江原監營啓錄 3책(17a~17a)

道內農形，纔已馳啓爲白有在果。臣營下，今月十八日午時始雨，或微霏或雲陰，十九日酉時乃止，測雨器水深爲三分是白如乎。各邑得雨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云。

강원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8일 오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먹구름이 끼다가 19일 유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내린 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주십시오.

0062. 1860년(철종 11) 3월 28일(양력 4월 18일)

各司謄錄 27책, 江原監營啓錄 3책(14c~14d) / 江原監營啓錄 3책(17b~17b)

臣營下今月十八九日得雨三分緣由,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同日之雨, 原州·江陵·蔚珍·平海·楊口·狼川·金化·鐵原·伊川·安峽等十邑得一鋤. 襄陽·杆城·洪川·春川等四邑浥塵. 農形段, 秋牟眞麥向長, 春牟幾盡耕播, 畚庫間或初翻耕是如爲白有在乎. 嗣後形止,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矣, 詮次善啓云云.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9일에 내린 비가 3푼인 연유는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같은 날의 비로 원주·강릉·울진·평해·양구·낭천·금화·철원·이천·안협 등 10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양양·간성·홍천·춘천 등 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가을밀은 자라나고 봄보리는 거의 다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렸고 논은 간혹 초벌 갈아엎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계속해서 아뿔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63. 1860년(철종 11) 3월 29일(양력 4월 18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3책(14d~14d) / 江原監營啓錄 3책(18a~18a)

道內農形雨澤,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 今月二十八日未時始時[雨], 或灑或霏, 二十九日卯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三分是白如乎.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강원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8일 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29일 묘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3푼이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뿔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64. 1860년(철종 11) 윤3월 6일(양력 4월 26일)

各司謄錄 27책, 江原監營啓錄 3책(15d~15d) / 江原監營啓錄 3책(19b~20a)

臣營下去月二十九日卯時至, 得雨一寸三分. 緣由前已馳啓爲白有在果. 今月初五日未時, 又爲始雨, 或灑或霏, 初六日辰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五分是白乎旆.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八九日之雨, 原州·鐵原·安峽等三邑得一犁, 旌善得二鋤, 春川·金化·平昌·三陟·平海·橫城·洪川·麟蹄·楊口等九邑得一鋤, 江陵·杆城·伊川等三邑沍塵是如爲白有在乎.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저의 감영에 지난달 29일 묘시까지 내린 비가 1치 3푼인 연유는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달 초5일 미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초6일 진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이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8일·29일의 비로 원주·철원·안협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정선은 2서가 내렸고, 춘천·금화·평창·삼척·평해·횡성·인제·양구 등 9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강릉·간성·이천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65. 1860년(철종 11) 윤3월 8일(양력 4월 28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3책(16c~16c), 江原監營啓錄 3책(21b~21b)

臣營下, 今月初六日辰時至, 得雨一寸五分. 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農形段, 秋牟眞麥日漸向長, 春牟間或出土, 耳牟始爲耕播, 畓庫幾盡初翻耕. 雨澤段, 去月二十八九日之雨, 寧越·平康兩邑得一犁, 蔚珍·金城兩邑得一鋤. 今月初五六日之雨, 原州得一犁, 橫城·洪川兩邑得一鋤是如爲白有在乎.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저의 감영에 이번 달 6일 진시까지 내린 비가 1치 5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와 참밀은 날로 점점 자라고 봄보리는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오고 귀리는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고 논은 거의 다 초벌 갈아엎기를 하였습니다.

우택의 경우, 지난달 28·29일의 비로 영월·평강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울진·금성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이번 달 초5일·6일의 비로 원주는 1려가 내렸고, 횡성·홍천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뿔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66. 1860년(철종 11) 윤3월 18일(양력 5월 8일)

各司謄錄 27책, 江原監營啓錄 3책(107a~107b) / 江原監營啓錄 3책(23a~23a)

臣巡到平昌郡, 得雨一犁緣由,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自平昌踰嶺而東, 歷過江陵·襄陽, 沿路農形, 次第看審是白乎則, 秋車眞麥茁長, 春車向青, 耳車過半耕播, 畓庫已盡初翻耕, 早晚稻注秧是白乎跡. 連接各邑所報, 則雨澤段, 今月初五六日之雨, 平海·安峽兩邑得一犁, 鐵原·楊口·三陟·蔚珍等四邑得一鋤, 襄陽·歙谷兩邑浥塵. 初十十一日之雨, 江陵·襄陽·平海·蔚珍·三陟·旌善等六邑得一犁, 杆城得二鋤, 麟蹄得一鋤, 高城浥塵是如爲白有在乎. 前站諸邑農形, 隨其巡到,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

제가 순시하며 평창군에 이르렀는데 내린 비가 1려인 연유는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평창에서 고개를 넘어 동쪽으로 강릉·양양 등을 거쳐 지나며 큰길 주변의 농사 상황을 차례로 살펴보니, 가을보리와 참밀은 싹이 자라고 봄보리는 푸르러지고 귀리는 절반 이상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고 논은 이미 다 모두 초벌 갈아엎기를 하였고 올벼·늦벼는 물을 대고 모내기를 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우택의 경우 이번 달 초5·6일의 비로 평해·안협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철원·양구·삼척·울진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흙곡·양양 2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초10·11일의 비로 강릉·양양·평해·울진·삼척·정선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간성은 2서가 내렸고, 인제는 1서가 내렸고, 고성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음 역참과 여러 고을의 농사 상황은 순시하며 이르는 대로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67. 1860년(철종 11) 윤3월 20일(양력 5월 10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3책(107b~107b) / 江原監營啓錄 3책(23b~23b)

臣巡到襄陽府，農形雨澤，纔已馳啓爲白有在果。歷過杆城，方到高城地。而雨澤段，今月十九日巳時始雨，或霏或灑，二十日卯時乃止，所得爲一犁是白乎旆。連接各邑所報，則今月十一二日之雨，洪川川渠微漲，原州·淮陽兩邑得一犁，平康得二鋤，鐵原·狼川兩邑得一鋤是如爲白有在乎。嗣後形止，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尠〉，詮次善啓云云。

제가 순시하며 평양부에 이르렀는데 농사 상황과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간성을 거쳐 지나 막 고성 지역에 이르렀는데, 우택의 경우, 이번 달 19일 사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0일 묘시에 이내 그쳤는데, 내린 것은 1려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1·12일의 비로 홍천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원주·회양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평강은 2서가 내렸고, 철원·낭천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68. 1860년(철종 11) 윤3월 27일(양력 5월 17일)

各司謄錄 27책, 江原監營啓錄 3책(107c~107d) / 江原監營啓錄 3책(24a~24b)

臣巡到高城郡, 得雨一犁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歷過淮陽·金城, 沿路農形, 次第看審是白乎則, 秋牟胚胎, 眞麥茁茂, 春牟漸長, 耳牟出土, 早黍·粟豆·太木花方始耕播, 畚庫間或再翻耕, 早晚稻立苗. 雨澤段, 今月二十一日申時始雨, 或霏灑或陰霏, 二十七日卯時乃止, 川渠漲溢是白乎旡.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十一二日之雨, 春川·伊川兩邑得一犁, 金化得二鋤, 通川·歙谷·橫城等三邑得一鋤. 十九日之雨, 杆城·淮陽·平康等三邑得一犁, 麟蹄得二鋤, 春川·鐵原·伊川·安峽·襄陽·歙谷·通川等七邑得一鋤是如爲白有在乎. 嗣後形止, 連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ㄱh

제가 순시하며 고성군에 이르렀는데 내린 비가 1려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회양·금성을 지나며 큰길 주변의 농사 상황을 차례로 살펴보니, 가을보리는 알을 배고 참밀은 싹이 무성하고 봄보리는 점차 자라고 귀리는 싹이 땅 밖으로 나오고 올기장·올조·콩·팥·목화는 막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고 있고 논은 간혹 두벌 갈아엎기를 하고 올벼·늦벼는 싹이 돋았습니다.

우택의 경우, 이번 달 21일 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흐리며 부슬부슬 내리다가 27일 묘시에 이내 그쳤는데 시내와 도랑은 불어나 넘쳤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1일의 비로 춘천·이천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금화는 2서가 내렸고, 통천·흡곡·횡성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19일의 비로 간성·회양·평강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인제는 2서가 내렸고, 춘천·철원·이천·안협·양양·흡곡·통천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연달아 아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69. 1860년(철종 11) 4월 8일(양력 5월 28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3책(18b~18c) / 江原監營啓錄 3책(25b~26a)

臣於巡審之行，道內農形雨澤，已爲連續馳啓爲白有在果。卽接各邑所報，則農形段，秋牟方張發穗，眞麥間或胚胎，春牟茁長，耳牟立苗，早黍·粟豆·太木花，晚黍·粟·唐稷耕播，早晚稻向青。雨澤段，自去月二十一日至二十六日之雨，寧越·旌善·三陟·蔚珍·平海·高城·歙谷·麟蹄等八邑，川渠漲滿，襄陽·洪川兩邑得二犁，江陵·通川·楊口·狼川等四邑得二鋤，伊川·安峽兩邑得一鋤，鐵原浥塵是如爲白有知乎。嗣後形止，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云。

제가 순시하고 살피는 길에 강원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참밀은 간혹 알을 배고 봄보리는 싹이 자라고 귀리는 싹이 돋 올기장·올조·콩·팥·목화는 흙에서 싹이 나오고 늦기장·늦조·수수는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우택의 경우,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의 비로 영월·정선·삼척·울진·평해·고성·함곡·인제 등 8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양양·홍천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강릉·통천·양구·낭천 등 4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이천·안협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철원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70. 1860년(철종 11) 4월 18일(양력 6월 7일)

各司謄錄 27책, 江原監營啓錄 3책(19a~19b) / 江原監營啓錄 3책(27a~27b)

道內農形雨澤,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卽接各邑所報, 則農形段, 秋牟間或入實, 眞麥方張胚胎, 春牟茁茂, 耳牟向青, 早黍·粟豆·太木花立苗, 晚黍·粟·唐稷出土, 早晚稻漸次向長. 雨澤段, 今月初七八日之雨, 江陵·三陟·襄陽·杆城·通川·狼川等六邑川渠漲滿, 鐵原得二犁, 平海·麟蹄·楊口·平康·伊川等五邑得一犁, 金化得二鋤, 寧越·平昌·旌善·洪川·春川等五邑得一鋤是如爲白有知乎. 嗣後形止, 連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강원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간혹 알이 들고 참밀은 한창 알을 배고 있고 봄보리는 싹이 무성하고 귀리는 푸르러지고 올기장·올조·콩·팥·목화는 싹이 돋고 기장·늦조·수수는 흙에서 싹이 나오고 올벼·늦벼는 점차 자라고 있습니다.

우택의 경우, 이번 달 초7·초8일의 비로 강릉·삼척·양양·간성·통천·낭천 등 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철원은 2려가 내렸고, 평해·인제·양구·평강·이천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금화는 2서가 내렸고, 영월·평창·정선·홍천·춘천 등 5개 고을에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연이어 계속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71. 1860년(철종 11) 4월 28일(양력 6월 17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3책(110b~110b) / 江原監營啓錄 3책(29b~30a)

道內農形雨澤,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秋牟方張入實, 眞麥間或發穗, 春牟胚胎, 耳牟漸長, 早黍·粟豆·太木花向青, 晚黍·粟唐稷立苗, 早稻移秧, 晚稻向長是如爲白有如乎.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강원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가을보리는 한창 알이 들고 참밀은 간혹 이삭이 패고 봄보리는 알을 배고 귀리는 점차 자라고 올기장·올조·콩·팥·목화는 푸르러지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싹이 돋고 벼는 모내기를 하고 심고 늦벼는 자라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72. 1860년(철종 11) 5월 1일(양력 6월 19일)

各司謄錄 27책, 江原監營啓錄 3책(110b~110c) / 江原監營啓錄 3책(30a~30a)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 去月二十九日辰時始雨, 或灑或霏, 今月初一日寅時至, 測雨器水深爲八分, 而陰雲不散, 尙多雨意是白如乎. 近日稍旱之餘, 得此甘澍, 民事誠極萬幸, 繼以周洽, 方切願望. 緣由茲先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강원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지난달 29일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부슬부슬 내리다가 이번 달 초1일 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8푼이었고 먹구름이 흩어지지 않으니 아직 비올 조짐이 많습니다. 요즘 조금 가뭄 끝에 이렇게 단비가 내렸으므로 백성들의 사정상 정말로 그지없이 매우 다행이니, 계속 두루 흠족하게 내리기를 막 간절히 빕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73. 1860년(철종 11) 5월 4일(양력 6월 22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3책(110c~110c) / 江原監營啓錄 3책(30a~30b)

臣營下, 今月初一日寅時至得雨八分. 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 同日卯時又雨, 或灑或霏, 初三日申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三分是白如乎. 旱餘甘澍, 非不萬幸, 而至若高燥之處, 猶有不足之慮, 省內諸邑, 果皆周洽是白乎喻.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1일 인시에 이른 내린 비가 8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같은 날 묘시에 또 비가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초3일 신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3푼이었습니다. 가뭄 끝에 연유를 단비가 내렸으니 매우 다행이지 않을 수 없지만 높고 건조한 곳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염려가 있습니다. 강원도 내 여러 고을에 정말로 두루 다 흠족하게 내렸는지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74. 1860년(철종 11) 5월 8일(양력 6월 26일)

各司謄錄 27책, 江原監營啓錄 3책(110d~110d) / 江原監營啓錄 3책(31a~31b)

臣營下, 今月初三日申時至, 得雨一寸三分. 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自去月二十九日, 至今月初二日之雨, 洪川·麟蹄兩邑川渠漲滿, 春川·蔚珍兩邑得二犁, 原州·寧越·平昌·旌善·橫城·楊口·狼川·金城·高城·杆城等十邑得一犁. 農形段, 秋牟黃熟, 眞麥入實, 春牟發穗, 耳牟茁茂, 早黍·粟·豆·太木花漸長, 晚黍·粟唐稷向青, 早稻方始着根, 晚稻間或移秧是如爲白有在乎.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3일 신시에 이르러 내린 비가 1치 3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9일부터 이번달 초2일의 비로 홍천·인제 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춘천·울진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원주·영월·평창·정선·횡성·양구·낭천·금성·고성·간성 등 10개 고을은 1려가 내렸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누렇게 익었고 참밀은 알이 들고 봄보리는 이삭이 패고 귀리는 싹이 무성하고 올기장·올조·콩·팥·목화는 점차 자라고 늦기장·늦조·수수는 푸르러 지고 올벼는 막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늦벼는 간혹 모내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주십시오.

0075. 1860년(철종 11) 5월 18일(양력 7월 6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3책(111d~112a) / 江原監營啓錄 3책(33b~34a)

道內農形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農形段, 秋牟刈取, 眞麥黃熟, 春牟入實, 耳牟胚胎, 早稻早黍·粟豆·太木花間或初耘, 晚稻過半移秧, 晚黍·粟·唐稷漸次向長. 雨澤段, 自今月初二日至初五日之雨, 麟蹄·淮陽兩邑川渠漲滿, 鐵原·金化兩邑得二犁, 三陟·平海·江陵·襄陽·通川·楊口·平康·安峽等八邑得一犁, 金城得二鋤, 春川·伊川·洪川·歙谷等四邑得一鋤, 而旱餘所得, 猶未優洽, 除非引水灌溉之處, 亦多未移之秧. 楊口·狼川·春川等三邑段, 初五日雨雹驟下, 大者如栗, 所過之處, 各穀摧損是如爲白有在乎. 雨澤終斬周霈, 旱畚不能齊插, 秧節已晚, 民事渴悶, 而楊口等邑之酷被雹災, 尤極驚悚, 急速代播, 期有一分成收之意, 申飭題送爲白乎旆.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矣, 詮次善啓云云.

강원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은 앞서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베어 거두고 밀은 누렇게 익고 봄보리는 알이 들고 귀리는 알을 배고 올벼·올기장·올조·콩·팥·목화는 간혹 초벌매기를 하고 늦벼는 절반 이상 모내기를 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점차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택의 경우, 이번 달 초2일부터 초5일까지의 비로 인제·회양 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철원·금화 2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삼척·평해·강릉·양양·통천·양구·평강·안협 등 8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금성은 2서가 내렸고, 춘천·이천·홍천·흡곡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가뭄 끝에 내린 것이 여전히 흡족하지 않아 물을 끌어다 관개한 곳을 제외하고는 또한 옮겨 심지 못한 모가 많습니다. 낭천·춘천·양구 등 3개 고을의 경우, 초5일에 우박이 쏟아졌는데 큰 것은 밤톨만하여 지나간 곳은 각종 곡식이 부러져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우택이 끝내 두루 적셔주시지 않아 마른 논은 일제히 심을 수 없고 모내기철이 이미 늦어져 백성들의 사정이 애가 타고 걱정입니다. 그런데 양구 등의 고을이 혹독하게 우박의 피해를 입었으니 더욱 놀랍고 송구하기 그지없이 급속히 대체 씨앗을 뿌려서 기어이 1푼이라도 거둘 수 있도록 하라는 뜻으로 단단히

지시한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76. 1860년(철종 11) 5월 24일(양력 7월 12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3책(112b~112c) / 江原監營啓錄 3책(34b~35a)

道內農形雨澤,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夏至以後, 雨澤慳閼, 略干鋤犁, 亦未均霑, 各邑多有憫旱之報. 故惜乾最甚邑段, 境內靈驗處, 祈雨祭觀勢設行之意, 發關申飭是白有加尼.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初八九之雨, 安峽得二犁, 伊川得一犁, 鐵原得一鋤. 十一二日之雨, 平海·蔚珍兩邑川渠漲滿, 三陟得二犁, 江陵得一鋤. 十四日之雨, 蔚珍川渠添漲, 襄陽得一犁. 原州段一直曠乾, 民情遑急, 祈雨祭初次二十二日, 再次二十四日設行是如爲白有旆. 臣營下今月二十三日午時始雨, 或霏灑或微霏, 二十四日巳時至, 測雨器水深爲五寸五分, 而陰雲不解, 雨意尙濃是白如乎. 旱餘甘澍, 民事萬幸, 繼此周需, 方切顙祝.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강원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하지 이후로 우택은 내리지 않고 약간의 1서, 1려 정도도 또한 고루 적셔주지 않자 각 고을에서는 가뭄의 고민에 대한 보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가뭄이 가장 심한 고을의 경우 지역 내의 영험한 곳에서 형세를 보아 기우제를 시행하라는 뜻으로 공문을 보내 단단히 지시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8·9일의 비로 안협은 2려가 내렸고, 이천은 1려가 내렸고, 철원은 1서가 내렸습니다. 11·12일의 비로 평해·울진 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삼척은 2려가 내렸고, 강릉은 1서가 내렸습니다. 14일의 비로 울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양양은 1려가 내렸습니다. 원주의 경우 줄곧 날이 가물어 백성들의 심정이 황급하므로 1차 기우제는 22일에, 2차는 24일에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3일 오시에 비가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24일 사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의 수심이 5촌 5푼이었고 먹구름이 흩어지지 않아 비올 조짐이 아직 농후합니다.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려 백성들의 사정상 매우 다행인데, 이렇게 계속 두루 퍼붓기를 막 간절히 빕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77. 1860년(철종 11) 5월 28일(양력 7월 16일)

各司謄錄 27책, 江原監營啓錄 3책(112d~112d) / 江原監營啓錄 3책(35b~36a)

臣營下, 今月二十四日巳時至, 得雨五寸五分. 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 同日午時又雨, 或滂沱或霏灑, 二十八日巳時至, 測雨器水深爲一尺六寸五分, 而密雲四合, 尙無開霽之意是白乎旂. 連接各邑所報, 則今月二十四五日之雨, 原州川渠漲溢, 祈雨祭仍爲停止. 農形段, 眞麥刈取, 春牟向熟, 耳牟發穗, 早稻早黍·粟豆·太木花已盡初耘, 晚稻方始着根, 晚黍·粟·唐稷間或初耘, 根耕豆·太耕播是如爲白有在乎. 今番得雨優過二尺, 向枯之苗還蘇, 未移之秧齊插, 言念民事, 誠爲萬幸, 閏旱諸邑, 亦皆周洽是白乎喻.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4일 오시까지 내린 비가 5촌 5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보고하였습시다. 같은 날 오시에 또 비가 내렸는데 더러 짹짹 퍼붓다가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더니 24일 사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자 6치 5푼이었고 구름이 뻥뻥하게 사방에서 모여드니 아직 개일 조짐이 없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4·25일의 비로 원주는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쳐 기우제를 이내 중지하였습시다.

농사 상황의 경우, 참밀은 베어 거두고 봄보리는 익어가고 귀리는 이삭이 패고 올벼·올기장·올조·콩·팥·목화는 이미 다 초벌매기를 하였고 늦벼는 막 뿌리내리기 시작하고 늦기장·늦조·수수는 간혹 초벌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한 콩·팥은 땅을 갈고 씨앗을 심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내린 비가 2자 넘게 넉넉하게 내려서 말라가던 짙은 되살아났고 옮기지 못한 모를 일제히 심었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다행이고 가뭄을 걱정하던 여러 고을도 또한 두루 흡족해졌다고 합니다.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78. 1860년(철종 11) 6월 5일(양력 7월 22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3책(112d~113a) / 江原監營啓錄 3책(36a~36b)

營下雨澤及道內農形，已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自去月二十三日至二十八日之雨，江陵·旌善·寧越·平昌·橫城·洪川·楊口·狼川·春川·金化·金城等十一邑川渠大漲，鐵原·平康·安峽·三陟等四邑得二犁，平海·蔚珍·高城·淮陽·伊川等五邑得一犁是如爲白乎旆。臣營下去月二十九日丑時又雨，或霏或霏，今月初五日卯時乃止，測雨器水深爲四寸五分是白如乎。嗣後形止，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云。

감영의 우택 및 강원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3일부터 24일까지의 비로 강릉·정선·영월·평창·횡성·홍천·양구·낭천·춘천·금화·금성 등 11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크게 불어났고, 철원·평강·안협·삼척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평해·울진·고성·회양·이천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지난달 29일 축시에 또 비가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이번 달 초5일 묘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4치 5푼이었습니다. 앞으로 상황은 그때그때 들어오는 대로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79. 1860년(철종 11) 6월 9일(양력 7월 26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3책(113a~113b) / 江原監營啓錄 3책(36b~37a)

臣營下, 今月初五日卯時至, 得雨四寸五分. 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 初七日寅時又雨, 或灑或霏, 初九日午時乃止, 測雨器水深爲二寸八分是白乎旂. 連接各邑所報, 則自去月二十九日至今月初四日之雨, 原州·旌善·江陵·襄陽·杆城·洪川·麟蹄·春川·金化·鐵原等十邑川渠漲溢. 農形段, 春牟刈取, 耳牟入實, 早稻早黍·粟·唐稷豆太木花再耘, 晚稻晚黍·粟過半初耘, 根耕豆·太出土, 木麥間或耕播是如爲白有在乎.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5일 묘시까지 내린 비가 4치 5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보고 하였습니다. 초7일 인시에 또 비가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초9일 오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8푼이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초4일까지의 비로 원주·정선·강릉·양양·간성·홍천·인제·춘천·금화·철원 등 10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봄보리는 베어 거두고 귀리는 알이 들고 올벼·올기장·올조·당직·콩·팥·목화는 두벌매기를 하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절반 이상 초벌매기를 하였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흙에서 싹이 나오고 메밀은 간혹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80. 1860년(철종 11) 6월 14일(양력 7월 31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3책(113d~113d) / 江原監營啓錄 3책(38a~38b)

道內農形雨澤，已爲馳啓爲白有在果。臣營下，今月十三日戌時始雨，或霏或灑，十四日寅時乃止，測雨器水深爲一寸五分是白乎旆。連接各邑所報，則自去月二十九日至今月初四日之雨，通川·歙谷·三陟·橫城·狼川·平康·淮陽等七邑川渠漲溢。初七八日之雨，江陵·橫城·麟蹄·楊口·春川·金化等六邑川渠漲滿，原州得二犁是如爲白有在乎。嗣後形止，連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云。

강원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3일 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4일 인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이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초4일의 비로 통천·흡곡·삼척·횡성·낭천·평강·회양 등 7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습니다. 초7·8일의 비로 강릉·횡성·인제·양구·춘천·금화 등 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원주는 2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81. 1860년(철종 11) 6월 19일(양력 8월 5일)

各司謄錄 27책, 江原監營啓錄 3책(114a~114b) / 江原監營啓錄 3책(39a~39b)

臣營下, 今月十四日寅時至, 得雨一寸五分. 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十五日丑時又雨, 或灑或霏, 間以雲陰, 十九日午時乃止, 測雨器水深爲二寸六分是白乎旆. 連接各邑所報, 則農形段, 耳牟向熟, 早稻早黍·粟·唐稷豆·太木花三耘, 晚稻晚黍·粟再耘, 根耕豆·太立苗, 木麥方張耕播. 雨澤段, 今月初七八日之雨, 杆城·平康·伊川·安峽·洪川等五邑川渠漲溢, 平海得一鋤. 十一二日之雨, 春川·平昌·蔚珍等三邑川渠漲溢, 鐵原·麟蹄兩邑得一犁. 十三四日之雨, 原州得一鋤, 而跨朔大雨, 江川連漲, 依山近浦之地, 居多汰覆沈墊之患, 江陵·襄陽·蔚珍·平海等四邑, 寧風所被, 生麻甚多靡折是如爲白有在乎. 久滂痒損, 民事切悶.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4일 인시까지 내린 비가 1치 5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보고하였습니다. 15일 축시에 또 비가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그사이 먹구름이 끼면서 19일 오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6푼이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귀리는 익어가고 올벼·올기장·올조·당직·콩·팥·목화는 세벌매기를 하고 늦벼·늦기장·늦조는 두벌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짝이 돌고 메밀은 한창 갈아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우택의 경우, 이번 달 초7·8일의 비로 간성·평강·이천·안협·홍천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평해는 1서가 내렸습니다. 11·12일의 비로 춘천·평창·울진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철원·인제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습니다. 13·14일의 비로 원주는 1서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넘게 큰비가 내려 강과 시내가 연이어 불어났고 산자락이나 포구 가까운 지역은 대부분 사태로 뒤덮이고 물에 잠기는 근심이 생겼습니다. 강릉·양양·울진 평해 등 4개 고을은 사나운 바람이 불어 생삼이 매우 많이 쓰러지고 부러졌다고 합니다. 오랜 장마로 손상되었으니 백성들의 사정상 매우 걱정입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82. 1860년(철종 11) 6월 24일(양력 8월 10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3책(114b~114c) / 江原監營啓錄 3책(39b~40a)

道內農形雨澤, 已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今月二十一日未時始雨, 或灑或霏, 二十四日卯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三寸六分是白乎旆.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十一二日之雨, 三陟·襄陽·高城·通川·歙谷·楊口·狼川·寧越等八邑川渠漲溢. 自十五日至十九日之雨, 江陵·蔚珍·原州·平昌·旌善·洪川·春川·麟蹄·淮陽·金化·平康·伊川等十二邑川渠大漲, 安峽得二鋤是如爲白有知乎. 潦雨浹月, 各穀痒損, 民事極爲憂悶. 嗣後形止, 麟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강원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1일 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24일 묘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6푼이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1·12일의 비로 삼척·양양·고성·통천·흡곡·양구·낭천·영월 등 8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습니다. 15일부터 19일까지의 비로 강릉·울진·원주·평창·정선·홍천·춘천·인제·회양·금화·평강·이천 등 1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크게 불어났고, 안협은 2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장마가 한 달이나 이어져 각종 곡식이 피해를 입었으니 백성들의 사정이 그지없이 근심되고 걱정입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83. 1860년(철종 11) 6월 24일(양력 8월 10일)

各司謄錄 27책, 江原監營啓錄 3책(114c~114d) / 江原監營啓錄 3책(40a~41a)

節呈楊口縣監柳誠牒呈內, 今月初六日, 大雨暴霍, 江川汎濫, 人家漂頽爲五十九戶, 人命淹死爲三名, 而一名拯得, 二名未拯. 狼川縣監吳正默牒呈內, 今月初六日, 夜雨暴霍, 江水大漲, 人家漂頽爲三戶, 人命淹死爲六名, 而三名拯得, 三名未拯. 原州判官金伯均牒呈內, 今月十八日之雨, 江川漲溢, 人家漂頽爲一戶, 人命淹死爲五名, 而四名拯出, 一名未拯. 故元恤典依定式, 先爲題給是如. 竝只牒呈爲白有臥乎所. 當此農節, 多戶之棲屑, 人命之死亡, 俱極驚慘. 漂頽戶段, 借材助丁, 趁卽結構入處. 死亡人段, 各別顧助厚埋, 而未拯屍身段, 另加搜覓, 期於拯得之意, 竝爲嚴飭題送爲白乎旆. 同漂頽大中小殘戶及死亡人等役·姓名, 區別修成冊, 上送于賑恤廳爲白去乎. 恤典令該廳會減施行爲白只爲. 詮次善啓云云.

요약 보고합니다. 양구 현감 유함의 문서 보고 내용에, “이번 달 초6일에 큰비가 세차게 주룩주룩 내려 강과 시내가 범람하여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백성 집이 59가구이고 빠져 죽은 사람이 3명인데 1명은 건져내고 2명은 건지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낭천 현감 오정묵의 문서 보고 내용에, “이번 달 초6일 밤에 비가 세차게 주룩주룩 내려 강물이 크게 불어나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백성 집은 3가구이고 빠져 죽은 사람이 6명인데 3명은 건져 내고 3명은 아직 건지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원주 판관 김백균의 문서 보고 내용에, “이번 달 18일의 비로 강과 시내가 불어나 넘쳐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백성 집은 1가구이고 빠져 죽은 사람이 5명인데 4명은 건져 내고 1명은 4명은 건져 내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기본 홀전을 정식에 따라 먼저 제김으로 지급하였다는 문서 보고입니다.

이번 농사철에 많은 가구가 살 곳을 잃어 떠돌아다니거나 사람이 사망하였으니 모두 놀랍고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떠내려갔거나 무너진 가구의 경우, 재물을 빌려주고 인력을 도와주어 즉시 집을 지어 들어가 살도록 하고 사망한 사람의 경우 각별히 도와주어 넉넉히 매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지지 못한 시신의 경우 별도로 수색하여 기어이 건져 내라는 뜻으로 아울러 엄히 지시한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위 떠내려갔거나 무너진

대호, 중호, 소호, 잔호 및 사망한 사람 등의 직역과 성명을 구별하고 성책으로 작성하여 진흥청에 올려 보냈으니 홀전은 해당 진흥청으로 하여금 회계처리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정리해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84. 1860년(철종 11) 6월 29일(양력 8월 15일)

各司謄錄 27책, 江原監營啓錄 3책(115b~115c) / 江原監營啓錄 3책(41b~42a)

臣營下, 今月二十四日卯時至得雨三寸六分. 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 二十七日亥時, 又爲始雨, 或霪或霏, 二十八日申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是白乎跡.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十四五日之雨, 平海川渠漲滿, 鐵原得一鋤. 二十二三日之雨, 旌善·楊口·橫城等三邑川渠漲滿, 原州得一犁. 農形段, 耳牟刈取, 早稻早黍·粟唐稷方始胚胎, 豆·太木花間或開花, 晚稻晚黍粟三耘, 根耕豆·太向青, 木麥出土是如爲白有在乎.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4일 묘시까지 내린 비가 3치 6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27일 해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28일 신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4·15일의 비로 평해는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철원은 1서가 내렸고, 22·23일의 비로 정선·양구·횡성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원주는 1려가 내렸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귀리는 베어 거두고, 올벼·올기장·올조·수수는 막 알을 배기 시작했고, 콩·팥·목화는 간혹 꽃이 피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세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푸르러지고, 메밀은 싹이 땅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85. 1860년(철종 11) 7월 3일(양력 8월 19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3책(115c~115d) / 江原監營啓錄 3책(42b~43a)

道內農形雨澤, 已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去月三十日午時, 又爲始雨, 或霏或灑, 今月初三日卯時乃止, 測雨器水深爲五寸五分是白乎旆.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二三日之雨, 通川·三陟·寧越·金城·鐵原·平康等六邑川渠漲溢. 二十七八日之雨, 原州·橫城兩邑得二鋤, 而連月霏霽, 各穀瘁損是如爲白有在乎. 秋序已屆, 開霽無期, 誠極憂悶, 繼此調曝, 方切顯祝.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강원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지난달 30일 오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이번 달 초3일 묘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5치 5푼이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2·23일의 비로 통천·삼척·영월·금성·철원·평강 등 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으며, 27·28일의 비로 원주·횡성 2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2달 연이은 장마로 각종 곡식이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가을 절기가 이미 닳쳤는데 날이 겹기약이 없으니 정말로 근심되고 걱정되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이어서 조화로운 햇볕이 내리쬐기를 바야흐로 간절히 빕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86. 1860년(철종 11) 7월 5일(양력 8월 19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3책(115d~116a) / 江原監營啓錄 3책(43a~43b)

節呈麟蹄縣監李仁會牒呈內, 去月二十七、八日, 大雨連爲暴霖, 江川汎濫, 北面上下洞, 人家漂
頽爲十七戶. 故元恤典依定式, 先爲題給是如爲白有臥乎所. 當此農節, 多戶棲屑, 極爲矜惻,
別加顧助, 借材助丁, 趁卽結構入處之意, 嚴飭題送是白遣. 亦自臣營, 助給慰諭, 俾各奠安之
地爲白乎旃, 同漂頽戶, 大中小殘區別修成冊, 上送于賑恤廳爲白去乎. 恤典令該廳會減施行
爲白只爲. 詮次善啓云云.

이번에 바친 인제 현감 이인회의 문서 보고 내용에, 지난달 27·28일 큰비가 연이어 세차게
쏟아져 강과 시내가 범람해서 북면 상동·하동은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백성 집이 17가구입
니다. 그러므로 기본 구호는 정해진 규정대로 먼저 결정문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농사철에 많은 가구가 떠돌며 지내니 불쌍하고 가엾기 그지없어, 별도로 돌보며 도와주고
재료를 빌려주고 일꾼을 보태주어 일찍 집을 지어 들어가도록 하라는 뜻으로 엄하게
지시하는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또한 저의 감영에서도 도와주고 위로하며 다독여서 각자
편안히 지내도록 하였습니다. 위의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가구를 대호·중호·소호·잔호로
구별해서 성책을 작성하여 진휼청에 올려보냈습니다. 구호는 해당 진휼청으로 하여금
회계 처리하여 시행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87. 1860년(철종 11) 7월 5일(양력 8월 21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3책(116a~116a) / 江原監營啓錄 3책(43b~43b)

臣營下今月初三日卯時至得雨五寸五分. 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 初四日未時又雨, 一直霏灑, 同日酉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二分是白如乎. 各邑得雨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3일 묘시까지 내린 비가 5치 5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초4일 미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줄곧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같은 날 유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2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의 내린 비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88. 1860년(철종 11) 7월 9일(양력 8월 25일)

各司謄錄 27책, 江原監營啓錄 3책(116b~116c) / 江原監營啓錄 3책(44a~44b)

臣營下, 今月初四日得雨一寸二分. 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 初六日寅時, 又爲始雨, 或霏或霏, 初九日辰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三寸五分是白乎旃.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七八日之雨, 平海·高城·安峽·金化·麟蹄等五邑 川渠漲滿. 今月初一二日之雨, 原州·寧越·旌善·三陟·蔚珍·江陵·橫城·洪川等八邑 川渠大漲, 平昌得一犁, 初四日之雨, 原州得二犁. 農形段, 早稻早黍·粟·唐稷次第發穗, 豆·太木花方始開花, 晚稻晚黍·粟間或胚胎, 根耕豆·太初耘, 木麥向青是如爲白有知乎. 積雨不收, 秋涼始生, 言念民事, 誠切憧憧.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4일에 내린 비가 1치 2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초6일 인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초9일 진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5푼이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7·28일의 비로 평해·고성·안협·김화·인제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으며, 이번 달 초1·2일의 비로 원주·영월·정선·삼척·울진·강릉·횡성·홍천 등 8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크게 불어났고, 평창은 1려가 내렸고, 초4일의 비로 원주는 2려가 내렸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기장·올조·수수는 이삭이 패고, 콩·팥·목화는 막 꽃이 피기 시작했고, 늦벼·늦기장·늦조는 간혹 알을 배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초벌 김매기를 하고, 메밀은 푸르러진다고 합니다. 쌓인 비로 거두지 못했는데 서늘한 가을 기운이 생기기 시작하였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89. 1860년(철종 11) 7월 14일(양력 8월 30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3책(116c~116d) / 江原監營啓錄 3책(45a~45b)

道內農形雨澤，纔已馳啓爲白有在果。臣營下，今月十二日丑時始雨，或霏或灑，十四日巳時至，測雨器水深爲五寸三分，而陰雲不捲，終無開霽之意是白乎旆。連接各邑所報，則今月初一二之雨，淮陽·金城·春川等三邑 川渠漲溢。初六七日之雨，原州川渠漲滿是如爲白有在乎。當此各穀發穗之時，冷雨淒風之多般瘁損，誠極憂悶。嗣後形止，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云。

강원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2일 축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4일 사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5치 3푼이었습니다. 먹구름이 걷히지 않고 끝내 개일 조짐이 없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1·2일의 비로 회양·금성·춘천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초6·7일의 비로 원주는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다고 합니다. 이렇게 각종 곡식의 이삭이 패는 시기에 찬비와 서늘한 바람이 여러 가지로 손상하니, 정말로 근심되고 걱정되기 그지없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90. 1860년(철종 11) 7월 18일(양력 9월 3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3책(116d~117a) / 江原監營啓錄 3책(45b~46a)

臣營下, 今月十四日巳時至, 得雨五寸三分. 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初一二日之雨, 伊川·安峽·平康·鐵原等四邑 川渠漲溢. 初六七日之雨, 平昌·旌善·襄陽·橫城·洪川·楊口·平康·春川等八邑 川渠漲滿. 十二三日之雨, 原州·旌善·橫城等三邑 川渠大漲. 農形段, 早稻早黍·粟·唐稷次第入實, 豆·太結穀, 木花結顆, 晚稻晚黍·粟間或發穗, 根耕豆·太方始開花, 木麥漸長是如爲白有在乎.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4일 사시까지 내린 비가 5치 3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1·2일의 비로 이천·안협·평강·철원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초6·7일의 비로 평창·정선·양양·횡성·홍천·양구·평강·춘천 등 8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12·13일의 비로 원주·정선·횡성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크게 불어났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기장·올조·수수는 차례로 알이 들고, 콩·팥은 꼬투리를 맺고, 목화는 다래를 맺고, 늦벼·늦기장·늦조는 간혹 이삭이 패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막 꽃이 피기 시작했고, 메밀은 점점 자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91. 1860년(철종 11) 7월 22일(양력 9월 7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3책(117b~117b) / 江原監營啓錄 3책(46b~47a)

道內農形雨澤，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今月十二三日之雨，江陵·杆城·寧越·楊口·麟蹄·狼川·金化·鐵原·平康·伊川·安峽等十一邑 川渠大漲是如爲白有旆。臣營下，二十日戌時始雨，或霏或灑，二十一日申時乃止，測雨器水深爲一寸八分是白如乎。嗣後形止，鱗次登聞計料。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云。

강원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2·13일의 비로 강릉·간성·영월·양구·인제·낭천·김화·철원·평강·이천·안협 등 11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크게 불어났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20일 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1일 신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8푼이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92. 1860년(철종 11) 7월 28일(양력 9월 13일)

各司謄錄 27책, 江原監營啓錄 3책(117b~117c) / 江原監營啓錄 3책(47a~47b)

臣營下, 今月二十一日申時至, 得雨一寸八分. 緣由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農形段, 早稻早黍·粟·唐稷漸次向熟, 豆·太間或入實, 木花方張結穎, 晚稻晚黍·粟幾盡發穗, 根耕豆·太結穀, 木麥開花. 雨澤段, 今月十三四日之雨, 三陟·蔚珍·平海·高城·通川·歙谷·淮陽等七邑 川渠大漲. 二十日之雨, 江陵·杆城·平昌·平海·蔚珍·鐵原·伊川等七邑 川渠漲滿, 春川·原州·橫城等三邑 得一犁是如爲白有在乎.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1일 신시까지 내린 비가 1치 8푼인 연유는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울며·올기장·올조·수수는 점차 익어가고, 콩·팥은 간혹 알이 들고, 목화는 한창 다래를 맺고 있고, 늦벼·늦기장·늦조는 거의 다 이삭이 났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꼬투리를 맺고, 메밀은 꽃이 핍니다. 우택의 경우, 이번 달 13·14일의 비로 삼척·울진·평해·고성·통천·흡곡·회양 등 7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크게 불어났고, 20일의 비로 강릉·간성·평창·평해·울진·철원·이천 등 7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춘천·원주·횡성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

0093. 1860년(철종 11) 7월 28일(양력 9월 13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3책(117d~118a) / 江原監營啓錄 3책(48a~48b)

節呈杆城郡守李啓昌牒呈內, 今月十四五日, 風雨大作, 海濤所激, 本郡縣內面大津人家漂頽爲二十一戶. 高城郡兼任杆城郡守李啓昌牒呈內, 今月十四日, 風雨大作, 該郡郡內面靈津, 人家頽壓爲十八戶, 故元恤典依定式, 先爲題給是如. 竝只牒呈爲白有知乎. 當此農節, 多戶棲屑, 誠極悶然, 借材助丁, 趁卽結構入處之意, 嚴飭題送爲白乎旆. 同漂頽戶, 大小殘區別, 修成冊上送于賑恤廳爲白去乎. 恤典令該廳會減施行爲白只爲. 詮次善啓云云.

이번에 바친 간성 군수 이계창의 문서 보고 내용에, 이번 달 14·15일 비바람이 크게 일어나고 바다의 파도가 휩쓸어 본 간성군 현내면 대진은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백성 집이 21가구이고, 고성군 겸임 간성 군수 이계창의 보고 내용에, 이번 달 14일 비바람이 크게 일어나 해당 고성군 군내면 영진은 무너진 백성 집이 18가구입니다. 그러므로 기본 구호를 정해진 규정대로 먼저 결정문을 주었다고 하며 모두 공문을 바쳤습니다. 이러한 농사철에 많은 가구가 떠돈다니 정말로 걱정스럽기 그지없어, 재료를 빌려주고 일꾼을 보태주어 일찍 집을 지어 들어가도록 하라는 뜻으로 엄하게 지시하는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위의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가구를 대호·소호·잔호로 구별해서 정책을 작성하여 진휼청에 올려보냈습니다. 구호는 해당 진휼청으로 하여금 회계 처리하여 시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94. 1860년(철종 11) 8월 8일(양력 9월 22일)

各司謄錄 27책, 江原監營啓錄 3책(118d~118d) / 江原監營啓錄 3책(50a~50b)

道內農形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早稻·早黍·粟·唐稷過半黃熟, 豆·太幾盡入實, 木花方始吐絮, 晚稻晚黍·粟 根耕豆·太漸次入實, 木麥間或結穀是如爲白有在乎.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강원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벼·올기장·올조·수수는 절반 이상 누렇게 익었고, 콩·팥은 거의 다 알이 들었고, 목화는 막 숨이 터지기 시작했고, 늦벼·늦기장·늦조 및 그루같이한 콩·팥은 점차 알이 들고, 메밀은 간혹 꼬투리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95. 1860년(철종 11) 8월 18일(양력 10월 2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3책(119b~119c) / 江原監營啓錄 3책(51b~52a)

道內農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早稻·早黍·粟·唐稷間或刈取, 豆·太漸次向熟, 木花始爲摘取, 晚稻晚黍·粟根 耕豆·太已盡入實, 木麥方張結穀是如爲白有知乎.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강원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벼·올기장·올조·수수는 간혹 베어 거두고, 콩·팥은 점차 익어가고, 목화는 비로소 따서 거두고, 늦벼·늦기장·늦조 및 그루같이한 콩·팥은 이미 다 알이 들었고, 메밀은 한창 꼬투리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96. 1860년(철종 11) 8월 27일(양력 10월 11일)

各司謄錄 27책, 江原監營啓錄 3책(122a~122b) / 江原監營啓錄 3책(61b~62a)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早稻·早黍·粟·唐稷過半刈取, 豆·太幾盡黃熟, 木花方張摘取, 晚稻晚黍·粟根耕豆·太漸次向熟, 木麥始爲入實是如爲白有旆. 臣營下, 今月二十六日戌時始雨, 或灑或霏, 二十七日卯時乃止, 測雨器水深爲五分是白如乎.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강원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올벼·올기장·올조·수수는 절반 이상 베어 거뒀고, 콩·팥은 거의 다 누렇게 익었고, 목화는 한창 숨을 따고 있고, 늦벼·늦기장·늦조 및 그루같이한 콩·팥은 점차 익어가고, 메밀은 비로소 알이 든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6일 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27일 묘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97. 1860년(철종 11) 9월 2일(양력 10월 15일)

各司臚錄 27책, 江原監營啓錄 3책(122d~122d) / 江原監營啓錄 3책(63b~64a)

道內農形，纔已馳啓爲白有在果。臣營下，去月二十八九日夜，嚴霜連爲降下是白乎脉。卽接各邑所報，則金化·麟蹄兩邑，去月二十二日夜霜降。原州二十八日夜霜降，而東沿諸邑段，秋分前後，寧風浹旬，早穀之向熟者，遂成虛穀，晚秧之方實者，率多白乾是如爲白有知乎。今年農形，始瘁於旱，終損於澇，只望秋候之調宜，庶冀萬一之有收，風災又作，食實無幾，言念民事，憧憧憂悶。災實之可以分等者，民隱之可以仰請者，待其列邑概狀齊報，迫于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云。

강원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지난달 28·29일 밤에 된서리가 연이어 내렸습니다.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김화·인제 2개 고을은 지난달 22일 밤에 서리가 내렸고, 원주는 28일 밤에 서리가 내렸습니다. 동해 바닷가 여러 고을은 추분 전후로 사나운 바람이 열흘 동안 불어 익어가던 올 곡식이 결국 빈 껍데기가 되고 막 영글고 있던 늦게 모내기한 것은 하얗게 마른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올해 농사 상황은 처음에는 가뭄으로 속을 끓이고 끝에는 장마로 손상되어 단지가을 기후가 순조롭기를 바랐고, 거의 만에 하나로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였지만, 바람의 재해가 또 발생하여 먹을 열매를 거의 없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근심과 걱정이 됩니다. 재해와 결실은 등급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고 백성들의 괴로움은 삼가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니, 여러 고을의 개장을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나중에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98. 1860년(철종 11) 9월 9일(양력 10월 22일)

各司謄錄 27책, 江原監營啓錄 3책(123a~123b) / 江原監營啓錄 3책(64a~64b)

臣營下沴氣，死亡爲五十九名。緣由前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輪行之症，或昨熾而今熄，或乍寢而旋發，人命死亡者，原州爲二百九十四名，高城爲一百二十二名，橫城爲五十一名，麟蹄爲九十二名，平昌爲四十名，鐵原爲九十名是如。竝只牒呈爲白有在乎。六邑死亡，至爲六百八十九名之多，而外他各邑死亡之數，又不知其爲幾許矣。誠不勝憂慮萬萬，上項六邑死亡人等役·姓名，區別修成冊，上送于備邊司爲白乎旆。其餘各邑死亡人命，隨其報來，次第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云。

저의 감영에 천연두로 사망자가 59명인 연유는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유행하는 증상은 더러는 어제 번졌다가 오늘 그치고, 더러는 잠깐 그쳤다가 곧바로 발생하는데, 죽은 사람은 원주 294명, 고성 122명, 횡성 51명, 인제 92명, 평창 40명, 철원 90명이라고 하며 모두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6개 고을의 사망자가 689명이나 되고, 그밖에 각 고을의 사망자 수는 또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정말로 매우 근심되고 염려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위 향의 6개 고을 사망자들의 직역·성명을 구별해서 정책을 작성하여 비변사에 올려보냈습니다. 나머지 각 고을의 사망자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차례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099. 1892년(고종 29) 3월 2일(양력 3월 29일)

各司臚錄 27책, 關東啓錄 1책(149a~149b) / 關東啓錄 1책(25b~26a)

卽接各邑所報，則向陽處秋耕兩麥，始有青色，春牟間或有耕播，而依峽之地，寒氣尙峭，土脈未解是如爲白有臥乎所。課農之節，另飭守宰，俾各躬審田野，細察民情，種糧則從便糶貸，堤堰則隨處疏築，着意勸勉，無或失時爲白乎旃。嗣後形止，陸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向教是事。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양지바른 곳의 가을갈이 보리와 밀은 푸른색을 띠기 시작했고, 봄보리는 간혹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는데, 산골짜기에 있는 땅은 찬 기운이 아직 매서워 땅의 결이 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농사철에 별도로 수령에게 지시하여 각자 몸소 논밭과 들판을 살피고 백성들의 심정을 자세히 살피며, 종자와 양식은 편리한 대로 환곡을 빌려주고, 방죽과 둑은 곳에 따라 소축하고, 신경 써서 타일러 힘쓰게 하여 혹시라도 때를 놓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00. 1892년(고종 29) 3월 7일(양력 4월 3일)

各司謄錄 27책, 關東啓錄 1책(149c~149c) / 關東啓錄 1책(26b~26b)

道內農刑[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今月初五日午時始雨, 或霏或灑, 初七日丑時乃(上)止, 測雨器水深爲九分是白如乎. 嗣後形止, 連續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向教是事.

강원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5일 오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7일 축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9푼이었습니다. 이후 경위는 연달아 아뿔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01. 1892년(고종 29) 3월 12일(양력 4월 8일)

各司臚錄 27책, 關東啓錄 1책(150a~150b) / 關東啓錄 1책(27b~28a)

今月初五日臣營下得雨形止，已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農形段，秋耕兩麥向青，春牟始爲耕播。雨澤段，初五六日之雨，原州橫城得一鋤是如爲白有知乎。嗣後形止，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矣，詮次善啓向教是事。

이번 달 초5일에 저의 감영에 내린 비의 경위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같이 보리와 밀은 푸르러지고, 봄보리는 비로소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립니다. 우택의 경우, 초5·6일의 비로 원주·횡성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02. 1892년(고종 29) 3월 16일(양력 4월 12일)

各司謄錄 27책, 關東啓錄 1책(150c~150d) / 關東啓錄 1책(29a~29a)

道內農形雨澤, 已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今月十五日酉時始雨, 或霏或灑, 十六日卯時乃止, 測雨器水深爲二寸是白乎旆. 連接各邑所報, 則初五六日之雨, 寧越·三陟·襄陽·狼川等四邑, 得一鋤是如爲白有在乎.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向教是事.

강원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5일 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6일 묘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영월·삼척·양양·낭천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03. 1892년(고종 29) 3월 22일(양력 4월 18일)

各司臚錄 27책, 關東啓錄 1책(151a~151a) / 關東啓錄 1책(29b~29b)

今月十六日臣營下得雨形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農形段, 秋耕兩麥, 漸〈次〉向青, 春牟次第耕播. 雨澤段, 今月十五六日之雨, 原州得二犁, 橫城得一犁是如爲白有
如乎.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向教是事.

이번 달 16일에 저의 감영에 내린 비의 경위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은 가을같이 보리와 밀은 점차 푸르러지고 봄보리는 차례로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립니다. 우택의 경우, 이번 달 15·16일의 비로 원주는 2려가 내렸고, 횡성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뿔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04. 1892년(고종 29) 3월 22일(양력 4월 18일)

各司謄錄 27책, 關東啓錄 1책(151b~152a) / 關東啓錄 1책(30a~32a)

節到付議政府關內, 啓下教, 今十二月三十日以江原監司李 狀啓, 三陟等邑, 民家漂頽, 人命渰死事. 傳曰, 民戶漂頽, 若是夥多, 人命又至四十, 極爲驚慘, 元恤<典外>, 別加顧助, 俾得卽爲結構, 依舊奠接, 無一民流散之患, 而渰壓死生前身還布, 竝湯減事, 廟辭關飭事, 傳教教是置. 傳教內辭意, 奉審施行爲有矣. 頽戶渰命之若是夥多, 尤極驚慘, 今此判教, 惻怛懇摯, 凡係埋座顧恤, 還布蕩減等節, 竝須着意舉行是遣, 形止登聞宜當向事關是白置有亦. 臣謹依啓下關內辭意, 翻關知委於各該邑, 漂頽戶死亡人等, 元恤典外, 各米五斗式, 一一派給, 結構之方, 另加董飭, 掩埋之節, 從厚顧助, 如有生前身還布者, 一併蕩減後報來之意, 措辭申飭是白有加尼. 節呈三陟府使申勝休牒呈內, 同漂頽戶一百十三戶, 元恤典外, 別恤典各米五斗式, 一一派給後, 結構之方, 連加董飭, 今二月二十七日至畢構, 奠接是如爲白乎旆. 蔚珍前縣令孟欽哲牒呈內, 同漂頽戶一百四十戶, 渰壓死人七名, 元恤典外, 別恤典各米五斗式, 一一派給, 顧<助>厚埋, 結構之方, 借材助丁, 今三月初二日至, 次第畢構入處. 死亡人中, 有身還布者, 竝卽蕩減是如爲白乎旆. 平海郡守趙鍾成牒呈內, 同漂失戶三百七十二戶, 渰死人三十一名, 元恤典外, 別恤典各米五斗式, 一一派給, 從厚埋瘞, 連飭結構, 今三月初六日至畢構, 依舊奠接, 死亡人生前身還布, 一併查實蕩減是如爲白有等以. 上項蔚珍·平海死亡人等身還布蕩減, 都數區別, 開坐于後, 而亦爲修成冊上送于議政府及各該司.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向教是事.

이번에 도착한 의정부 공문 내용에,

“임금님이 재가한 지시로, 이번 12월 30일 강원 감사 이(李)의 장계에,

‘삼척 등 고을에서 백성 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라는 일에 대해 전교하시기를,

‘무너진 백성의 집이 이처럼 상당히 많고 사람 목숨도 또 40명에 이르니 놀랍고 애처롭기 그지없다. 기본 구조 외에 별도로 돌보아 도와주고 즉시 집을 지어 이전대로 편안히 지내며 한 사람도 떠돌거나 흩어지는 근심이 없도록 하고, 물에 빠져 죽거나 깔려 죽은 사람의

생전 자신의 환포는 모두 탕감하는 일을 조정에서 내용을 공문으로 지시하도록 하라.’라는 일로 전교하셨으니, 전교 내의 뜻을 받들어 살펴 시행하십시오. 무너진 집과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이처럼 상당히 많으니 더욱 놀랍고 애처롭기 그지없습니다. 이번에 임금님의 판결 지시는 불쌍히 여기고 슬퍼함이 정성스럽고 진지하니, 무릇 매장하고 돌보아 주는 것과 환포를 탕감하는 사항 등은 모두 모름지기 신경 써서 거행하고 경위를 아뢰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라는 공문입니다.

저는 삼가 임금님이 재가하신 공문 내의 뜻대로 공문을 번역하여 각각 해당 고을에 알려,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가구와 사망한 사람 등에게 기본 구호 외에 각각 쌀 5말씩 하나하나 나누어 주고, 집을 지을 방법을 별도로 단단히 지시하고, 매장하는 사항을 넉넉하게 돌보아 도와주고, 만약 생전 자신에게 환포가 있다면 모두 탕감한 뒤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단단히 지시하였습니다.

이번에 바친 삼척 부사 신승휴의 문서 보고 내용에, 위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집 113가구는 기본 구호 외에 별도로 구호에서 각각 쌀 5말씩 하나하나 나누어 준 뒤 집을 지을 방법을 연이어 단단히 지시하였습니다. 이번 2월 27일까지 집짓기를 마쳐 편안히 지내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전 울진 현령 맹흠철의 문서 보고 내용에, 위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집 140가구와 물에 빠져 죽거나 깔려 죽은 사람 7명은 기본 구호 외에 별도로 구호에서 각각 쌀 5말씩 하나하나 나누어 주고, 돌보고 도와주어 넉넉하게 매장하고, 집을 지을 방법으로 재료를 빌려주고 일꾼을 보태주어 이번 3월 초2일까지 차례로 집짓기를 마치고 들어가도록 하였으며, 사망자 가운데 자신에게 환포가 있는 자는 모두 즉시 탕감하였다고 합니다.

평해 군수 조종성의 문서 보고 내용에, 위 떠내려가서 없어진 집 372가구와 물에 빠져 죽은 사람 31명은 기본 구호 외에 별도로 구호에서 각각 쌀 5말씩 하나하나 나누어 주고 넉넉하게 매장하고, 연이어 지시하여 집을 짓는데 이번 3월 6일까지 짓기를 마쳐 이전대로 편안히 지내도록 하고, 사망자의 생전 자신의 환포는 모두 사실을 조사하여 탕감하였다고 합니다.

위 향의 울진·평해 사망자 등 자신의 환포를 탕감한 총 수효를 구별하여 아래에 기록하고, 또한 정책을 작성하여 의정부와 각 해당 기관에 올려보냈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05. 1892년(고종 29) 3월 25일(양력 4월 21일)

各司謄錄 27책, 關東啓錄 1책(152a~152a) / 關東啓錄 1책(32a~32a)

道內農形雨澤,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今月二十四日午時始雨, 或霏或灑, 二十五日子時乃止, 測雨器水深爲四分是白如乎. 嗣後形止, 連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向教是事.

강원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4일 오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5일 자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4푼이었습니다. 이후 경위는 연달아 아뿔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06. 1892년(고종 29) 3월 29일(양력 4월 25일)

各司臚錄 27책, 關東啓錄 1책(152b~152c) / 關東啓錄 1책(33a~33a)

今月二十四日臣營下得雨形止，已爲馳啓爲白在有[有在]果。同月二十八日巳時，又爲始雨，或霪或灑，申時乃止，測水[雨]器水深爲七分是白乎旆。連接各邑所報，則十六日之雨，三陟得一鋤，二十四五日之雨，原州·寧越兩邑得一鋤是如爲白有在乎。嗣後形止，連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向教是事。

이번 달 24일 저의 감영에 내린 비의 경위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같은 달 28일 사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신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6일의 비로 삼척은 1서가 내렸고, 24·25일의 비로 원주·영월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연달아 아뿔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07. 1892년(고종 29) 4월 2일(양력 4월 28일)

各司謄錄 27책, 關東啓錄 1책(152d~153a) / 關東啓錄 1책(34a~34a)

去月二十八日, 臣營下得雨形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農形段, 秋耕兩麥向長, 春車出土, 耳車始爲耕播, 畚庫間或初翻耕. 雨澤段, 去月二十四日之雨, 平昌得一鋤, 杆城·襄陽兩邑浥塵, 二十八日之雨, 洪川得一鋤, 橫城浥塵是如爲白有知乎.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向教是事.

지난달 28일 저의 감영에 내린 비의 경위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같이 보리와 밀은 쑥쑥 자라고, 봄보리는 싹이 땅 밖으로 나오고, 귀리는 비로소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논은 간혹 초벌 갈아엎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택의 경우, 지난달 24일의 비로 평창은 1서가 내렸고, 간성·양양 2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28일의 비로 홍천은 1서가 내렸고, 횡성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08. 1892년(고종 29) 4월 12일(양력 5월 8일)

各司臚錄 27책, 關東啓錄 1책(154a~154b) / 關東啓錄 1책(36b~36b)

道內農形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農形段, 秋耕兩麥茁長, 春牟出苗過半, 耕播畝鹿, 方〈張〉初翻耕. 雨澤段, 去月二十八日之雨, 鐵原·伊川·通川·歙谷·安峽等五邑得一犁, 江陵·襄陽·杆城等三邑得一鋤, 高城溫塵. 今月初五六日之雨, 蔚珍得一犁是如爲白有如乎.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向教是事.

강원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같이 보리와 밀은 싹이 자라고, 봄보리는 절반 이상 싹이 나왔고,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릴 논은 한창 초벌 갈아엎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택의 경우, 지난달 28일의 비로 철원·이천·통천·흡곡·안협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강릉·양양·간성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고성만 적설 정도였고, 이번 달 초5·6일의 비로 울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뿔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09. 1892년(고종 29) 4월 19일(양력 5월 15일)

各司謄錄 27책, 關東啓錄 1책(155a~155a) / 關東啓錄 1책(38a~38b)

道內農形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今月十九日辰時始雨, 或霏或〈灑〉, 當日申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三分是白如乎. 各邑得雨形止, 待其報來, 連續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向教是事.

강원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9일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신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의 내린 비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연달아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10. 1892년(고종 29) 4월 22일(양력 5월 18일)

各司臚錄 27책, 關東啓錄 1책(155b~155b) / 關東啓錄 1책(38b~39a)

今月十九日臣營下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有)果. 連接各邑所報, 則農形段, 秋牟胚胎, 眞麥漸次茁長, 春牟向青, 耳牟出土, 早黍·粟·豆·太·木花, 始爲播種, 畚庫再翻耕, 早晚稻注秧. 雨澤段, 去月二十八日之雨, 金城·淮陽兩邑得一犁, 今月初五六日之雨, 三陟得一犁, 十九日之雨, 原州得一鋤是如爲白有在乎.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向教是事.

이번 달 19일 저의 감영에 내린 비의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알을 배고, 밀은 점차 싹이 자라고, 봄보리는 푸르러지고, 귀리는 땅 밖으로 싹이 나오고, 올기장·올조·올콩·올팥 및 목화는 비로소 씨앗을 뿌리고, 논은 두벌 갈아엎기를 하고, 올벼와 늦벼는 모에 물을 댕니다.

우택의 경우, 지난달 28일의 비로 금성·회양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이번 달 초5·6일의 비로 삼척은 1려가 내렸고, 19일의 비로 원주는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11. 1892년(고종 29) 5월 2일(양력 5월 27일)

各司謄錄 27책, 關東啓錄 1책(158b~158c) / 關東啓錄 1책(44b~45a)

道內農形雨澤, 前已馳啓爲白在有[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農形段, 秋牟發穗胚胎, 春牟漸長, 耳牟向青, 早黍·粟·豆·太·木花, 次第出土, 晚黍·粟·唐稷, 方張耕播, 早晚立苗. 雨澤段, 去月十五日之雨, 三陟溫塵, 十九日之雨, 旌善溫塵是如爲白有知乎. 嗣後形止,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向教是事.

강원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이삭이 패거나 이삭을 뺐고, 봄보리는 점차 자라고, 귀리는 푸르러지고, 올기장·올조·올콩·올팍 및 목화는 차례로 싹이 땅 밖으로 나오고, 늦기장·늦조·수수는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고, 올벼와 늦벼는 싹이 트고 있습니다.

우택의 경우, 지난달 5일의 비로 삼척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19일의 비로 정선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계속해서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12. 1892년(고종 29) 5월 8일(양력 6월 2일)

各司臚錄 27책, 關東啓錄 1책(158d~158d) / 關東啓錄 1책(45b~45b)

道內農形雨澤，纔已馳啓爲白有在果。臣營下今月初六日戌時始雨，或霏或〈灑〉，初七日乃止，測雨器水深爲三分是白乎旆。連接各邑所報，則今月初二日之雨，麟蹄得一鋤，洪川·楊口兩邑泥塵是如爲白有知乎。嗣後形止，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向教是事。

강원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6일 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7일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푼이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2일의 비로 인제는 1서가 내렸고, 홍천·양구 2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13. 1892년(고종 29) 5월 12일(양력 6월 6일)

各司謄錄 27책, 關東啓錄 1책(159c~159d) / 關東啓錄 1책(47a~47b)

今月初六日臣營下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農形段, 秋牟入實, 眞麥發穗, 春牟茁茂, 耳牟向長, 早黍·粟·豆·太·木花, 次第立苗, 晚黍·粟·唐稷, 已盡耕播, 早晚稻向青. 雨澤段, 今月初二日之雨, 三涉[三陟]得一犁, 蔚珍得一鋤, 平海浥塵, 初六七日之雨, 洪川得一犁, 原州·橫城·楊口等三邑, 得一鋤是如爲白有在乎. 嗣後形止, 連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向教是事.

이번 달 초6일에 저의 감영에 내린 비의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알이 들고, 밀은 이삭이 패고, 봄보리는 싹이 무성하고, 귀리는 자라고 있고, 올기장·올조·올콩·올팥 및 목화는 차례로 싹이 트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이미 다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고, 올벼와 늦벼는 푸르러집니다.

우택의 경우, 이번 달 초2일의 비로 삼척은 1려가 내렸고, 울진은 1서가 내렸고, 평해는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초6·7일의 비로 홍천은 1려가 내렸고, 원주·횡성·양구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연달아 아뿔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14. 1892년(고종 29) 5월 22일(양력 6월 16일)

各司臚錄 27책, 關東啓錄 1책(161a~161b) / 關東啓錄 1책(50a~50b)

道內農形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今月二十一日巳時始雨, 或霏或灑, 同日申時乃止, 測雨器水深爲五分是白乎旅. 連接各邑所報, 則農形段, 秋牟黃熟, 眞麥入實, 春牟胚胎, 耳牟漸長, 早黍·粟·豆·太·木花向青, 晚黍·粟·唐稷出土, 早晚稻次第移秧. 雨澤段, 今月初六七日之雨, 鐵原·安峽·淮陽·麟蹄等四邑得一犁, 金城得二鋤, 平海·蔚珍·襄陽·杆城·高城·平康·伊川等八邑得一鋤, 通川浥塵是如爲白有在乎.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有如是是良尔, 詮次善啓向教是事.

강원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1일 사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신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누렇게 익었고, 밀은 알이 들고, 봄보리는 알을 배고, 귀리는 점점 자라고, 올기장·올조·올콩·올팥 및 목화는 푸르러지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싹이 땅 밖으로 나오고, 올벼와 늦벼는 차례로 모내기하고 있습니다.

우택의 경우, 이번 달 초6·7일의 비로 철원·안협·회양·인제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금성은 2서가 내렸고, 평해·울진·양양·간성·고성·평강·이천 등 8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통천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15. 1892년(고종 29) 5월 23일(양력 6월 17일)

各司謄錄 27책, 關東啓錄 1책(161c~161c) / 關東啓錄 1책(51a~51a)

(缺)爲始雨, 或霏或灑, 二十三日卯時乃止, 測雨器水深爲四分是白乎旂. 連接各邑所報, 則今月二十一日之雨, 原州·平昌得一鋤是如爲白有知乎.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向教是事.

(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3일 묘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4푼이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1일의 비로 원주·평창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뿔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16. 1892년(고종 29) 5월 28일(양력 6월 22일)

各司臚錄 27책, 關東啓錄 1책(161c~161d) / 關東啓錄 1책(51a~51b)

今二十二日臣營下得雨形止及各邑雨澤, 已爲馳啓爲白有在果. 今二十六日亥時又雨, 或霏或灑, 二十七日申時乃止, 測雨器水深爲六分是白乎旆. 連接各邑所報, 則二十二三日之雨, 原州得二鋤, 寧越·平昌·旌善·橫城·洪川等五邑得一鋤是如爲白有在乎.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向教是事.

이번 22일 저의 감영에 내린 비의 경위 및 각 고을의 우택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26일 해시부터 또 비가 내렸는데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7일 신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22·23일의 비로 원주는 2서가 내렸고, 영월·평창·정선·횡성·홍천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17. 1892년(고종 29) 6월 2일(양력 6월 25일)

各司謄錄 27책, 關東啓錄 1책(161d~162a) / 關東啓錄 1책(51b~52a)

去月二十六日臣營下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二十八日亥時又雨, 或霏灑或陰噎, 今月初一日卯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五分是白乎旆. 連接各邑所報, 則農形段, 秋牟刈取, 眞麥向熟, 春牟發穗, 耳牟茁茂, 早黍·粟·豆·太·木花漸長, 晚黍·粟·唐稷立苗, 晚[早]稻已盡着根, 晚稻方張移秧. 雨<澤>段, 去月二十二三日之雨, 襄陽川渠漲滿, 杆城·高城·伊川等三邑得一犁, 蔚珍·歙谷·鐵原·安峽等四邑得一鋤, 江陵浥塵. 二十八九日之雨, 原州·金城兩邑得一犁, 寧越·平昌·橫城·洪川等四邑得一鋤是如爲白有在乎. 嗣後形止,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向教是事.

지난달 26일 저의 감영에 내린 비의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28일 해시부터 또 비가 내렸는데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더러 짙은 구름이 끼더니 이번 달 초1일 묘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이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베어 거두고, 밀은 익어가고, 봄보리는 이삭이 패고, 귀리는 싹이 무성해지고, 올기장·올조·올콩·올팥 및 목화는 점점 자라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싹이 트고, 올벼는 이미 다 뿌리가 내렸고, 늦벼는 한창 모내기하고 있습니다.

우택의 경우, 지난달 22·23일의 비로 양양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간성·고성·이천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울진·흡곡·철원·안협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강릉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28·29일의 비로 원주·금성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영월·평창·횡성·홍천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계속해서 아뿔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18. 1892년(고종 29) 6월 일(양력 7월 일)

各司臚錄 27책, 關東啓錄 1책(163b~163b) / 關東啓錄 1책(54b~54b)

道內農形雨澤,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今月初八日午時始雨, 或霏灑或滂沱, 十二日寅時乃止, 測雨器水深爲四寸八分是白乎旅. 連接各邑所報, 則農形段, 眞麥黃熟, 春牟向熟, 耳牟胚胎, 早黍·粟·豆·太·木花初耘, 晚黍·粟·唐稷漸〈長〉, 晚稻已盡着根, (耕)豆·太始爲耕播. 雨澤段, 去月二十八九日之雨, 麟蹄川渠微漲, 洪川·楊口·平康等三邑得一犁, 三陟·襄陽·通川·金化·橫城·狼川·淮陽等七邑, 得一鋤是如爲白有在乎.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向教是事〉.

강원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8일 오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더러 콕콕 쏟아지더니 12일 인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4치 8푼이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밑은 누렇게 익었고, 봄보리는 익어가고, 귀리는 알을 배고, 올기장·올조·올콩·올팥 및 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하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점점 자라고, 늦벼는 이미 다 뿌리를 내렸고, 콩·팥은 비로소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립니다.

우택의 경우, 지난달 28·29일의 비로 인제는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홍천·양구·평강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삼척·양양·통천·김화·횡성·낭천·회양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뉘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19. 1892년(고종 29) 6월 22일(양력 7월 15일)

各司謄錄 27책, 關東啓錄 1책(165d~166a) / 關東啓錄 1책(59b~60a)

道內農形雨澤,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農形段, 眞麥刈取, 春牟黃熟, 耳牟發穗, 早稻早黍·粟·豆〈太〉木花, 初耘幾畢, 晚稻晚黍·粟·唐稷, 方始初耘, 根耕豆·太, 幾盡耕播. 雨澤段, 今月十一日之雨, 原州·平昌·鐵原·平康·橫城·洪川·麟蹄·楊口·金城·淮陽等十邑, 川渠漲滿, 寧越·旌善·通川·歙谷·金化·狼川等六邑得一犁, 杆城得一鋤, 江陵溫塵是如爲白有如何.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강원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밀은 베어 거두고, 봄보리는 누렇게 익었고, 귀리는 이삭이 패고, 올벼·올기장·올조·올콩·올팥 및 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벼·늦기장·늦조·수수는 막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그루같이하는 콩·팥은 거의 다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습니다.

우택의 경우, 이번 달 11일의 비로 원주·평창·철원·평강·횡성·홍천·인제·양구·금성·회양 등 10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영월·정선·통천·흡곡·김화·낭천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간성은 1서가 내렸고, 강릉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뿔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20. 1892년(고종 29) 윤6월 2일(양력 7월 25일)

各司臚錄 27책, 關東啓錄 1책(166a~166b) / 關東啓錄 1책(60a~60b)

道內農形雨澤,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農〈形〉段, 春牟刈取, 耳牟入實, 早稻早黍·粟·豆·太·木花, 方始再耘, 晚稻晚黍·粟·唐稷, 過半初耘, 根耕豆·太間或出土. 雨澤段, 自去月初九日, 至十一日之雨, 伊川·安峽兩邑川渠漲滿. 去月二十七日之雨, 洪川得一犁. 平海·三陟兩邑段, 惜乾滋甚, 三陟則祈雨祭六月二十一日初次, 二十三日再次設行, 平海則祈雨祭六月二十日初次, 二十二日再次設行是如爲白有臥乎所. 去月十一日之雨, 猶未均霑, 伊後數十日, 一雨久闕, 舉望霓, 故各其邑祈雨祭, 觀勢設行之意, 發關申飭爲白乎旆.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向教是事.

강원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봄보리는 베어 거두고, 귀리는 알이 들고, 올벼·올기장·올조·올콩·올팥 및 목화는 막 재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늦벼·늦기장·늦조·수수는 절반 이상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간혹 땅 밖으로 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택의 경우, 지난달 초9일부터 11일까지의 비로 이천·안협 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지난달 27일의 비로 홍천은 1려가 내렸습니다. 평해·삼척 2개 고을의 경우 가뭄이 매우 심한데, 삼척은 기우제를 6월 21일에 1차, 23일에 2차로 시행하였고, 평해는 기우제를 6월 20일에 1차, 22일에 2차로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지난달 11일의 비는 오히려 고루 적시지 못하였고, 그 뒤 수십 일이나 오랫동안 한차례도 비가 오지 않으니 모두 비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각 고을의 기우제는 형세를 보아 시행하라는 뜻으로 공문을 보내 단단히 지시하였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21. 1892년(고종 29) 윤6월 8일(양력 7월 31일)

各司謄錄 27책, 關東啓錄 1책(166b~166c) / 關東啓錄 1책(61a~61b)

道內農形雨澤及各邑祈雨祭, 觀勢設行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祈雨祭段, 三陟六月二十五日三次, 二十七日四次, 平海六月二十四日三次, 二十六日四次, 原州今月初四日初次設行是如爲白有旆. 臣營下今月初四日子時始雨, 或霏或灑或滂沱, 初八日辰時乃止, 測雨器水深爲九寸六分是白如乎. 久闕之餘, 得此甘澍, 爲民事萬幸, 省內各邑, 亦皆均霑是白乎喻.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강원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 및 기우제를 형세를 보아 시행하는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기우제의 경우 삼척은 6월 25에 3차, 27일에 4차, 평해는 6월 24일에 4차, 26일에 4차, 원주는 이번 달 초4일에 1차로 시행했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4일 자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더러 착착 쏟아지더니 초8일 진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9치 6푼이었습니다. 오래 비가 오지 않던 끝이라 백성들의 사정상 매우 다행이고, 강원도 내 각 고을 또한 다 고루 적셨습니다.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22. 1892년(고종 29) 윤6월 12일(양력 8월 4일)

各司臚錄 27책, 關東啓錄 1책(166d~167b) / 關東啓錄 1책(62a~62b)

今月初四日臣營下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農形段, 耳牟向熟, 早稻早黍·粟·豆·太·木花, 幾盡再耘, 晚稻晚黍·粟·唐稷, 次第初耘, 根<耕>豆·太向青, 木麥始爲耕播. 雨澤段, 自今月初一日, 至初三日之雨, 寧越·三陟·杆城等三邑得一鋤, 平昌·襄陽·高城等三邑得一犁, 江陵得二鋤. 初四日至初八日之雨, 原州·麟蹄兩邑川渠漲滿, 旌善·橫城洪川等三邑得一鋤, 三陟·杆城兩邑得一犁. 祈雨祭段, 三陟去月二十九日五次, 今月初一日六次, 平海去月二十八日五次, 三十日六次. 原州今月初六日再次. 杆城去月二十九日初次, 今月初一日再次. 通川去月二十八日初次, 三十日再次. 鐵原去月二十七日初次, 二十九日再次, 今月初一日三次. 歙谷去月三十<日>初次. 楊口今月初三日初次, 初五日再次, 初七日三次. 旌善初一日初次, 竝只設行. 而原州·三陟·旌善·杆城等四邑得雨既洽, 姑爲停祭是如爲白有如乎. 嗣後形止,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이번 달 초4일 저의 감영에 내린 비의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귀리는 익어가고, 올벼·올기장·올조·올콩·올팥 및 목화는 거의 다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벼·늦기장·늦조·수수는 차례로 초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푸르러지고, 메밀은 비로소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립니다.

우택의 경우, 이번 달 초1일부터 초3일까지의 비로 영월·삼척·간성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평창·양양·고성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강릉은 2서가 내렸고, 초4일부터 초8일까지의 비로 원주·인제 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정선·횡성·홍천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삼척·간성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습니다.

기우제의 경우, 삼척은 지난달 29일 5차, 이번 달 초1일 6차, 평해는 지난달 28일 5차, 30일 6차, 원주는 이번 달 초6일 2차, 간성은 지난달 29일 1차, 이번 달 초1일 2차, 통천은 지난달 28일 1차, 30일 2차, 철원은 지난달 27일 1차, 29일 2차, 이번 달 초1일 3차, 흡곡은 지난달 30일 1차, 양구는 이번 달 초3일 1차, 초5일 2차, 초7일 3차, 정선은

초1일 1차로 모두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주·삼척·정선·간성 등 4개 고을은 내린 비가 이미 흠족하여 일단 기우제를 중지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계속해서 아뿔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23. 1892년(고종 29) 윤6월 16일(양력 8월 8일)

各司臚錄 27책, 關東啓錄 1책(167d~168a) / 關東啓錄 1책(64a~64b)

道內農形雨澤,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今月十四日亥時, 又爲始雨, 或霏灑或滂沱, 十五日午時乃止, 測雨器水深爲五寸是白乎旆.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初三日之雨, 蔚珍得一鋤, 平海浥塵. 初五日之雨, 襄陽得一鋤. 初六七日之雨, 安峽川渠漲滿, 金化·淮陽·平康等三邑得一犁, 通川得一鋤, 鐵原得二犁. 初九日初十日之雨, 寧越·洪川兩邑, 川渠漲滿. 祈雨祭段, 平海今月初二日七次, 初四日八次, 鐵原初三日四次, 竝只設行. 而鐵原段, 雨澤段, 雨澤優洽, 仍卽停祭是如爲白有在乎. 嗣後形止,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向教是事.

강원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4일 해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더러 짹짹 쏟아지더니 15일 오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5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3일의 비로 울진은 1서가 내렸고, 평해는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초5일의 비로 양양은 1서가 내렸고, 초6·7일의 비로 안협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김화·회양·평강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통천은 1서가 내렸고, 철원은 2려가 내렸고, 초9일·초10일의 비로 영월·홍천 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습니다.

기우제의 경우, 평해는 이번 달 초2일 7차, 초4일 8차, 철원은 초3일 4차로 모두 시행하였습니다. 철원의 경우 우택이 흡족하여 곧바로 기우제를 중지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계속해서 아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24. 1892년(고종 29) 윤6월 22일(양력 8월 14일)

各司臚錄 27책, 關東啓錄 1책(169a~169b) / 關東啓錄 1책(66b~67a)

道內雨澤及臣營下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農形段, 耳牟刈取, 早稻早黍·粟·豆·太·木花, 次第三耕[耘], 晚稻晚黍·粟·唐稷, 幾盡初耘, 根耕豆·太向長, 木麥方張耕播. 雨澤段, 自今月初六日, 至初八日之雨, 平昌·江陵·伊川·平海·狼川等五邑得一犁, 歙谷·楊口兩邑得一鋤, 蔚珍川渠漲滿. 十四五日之雨, 原州·寧越·旌善·洪川等四邑川渠漲滿, 杆城·橫城兩邑得一犁, 高城得一鋤. 祈雨祭段, 平海·通川·楊口·歙谷等四邑, 已爲停祭是如報來爲白有在乎.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矣, 詮次善啓向教是事.

강원도 내 우택 및 저의 감영에 내린 비의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귀리는 베어 거두고, 올벼·올기장·올조·올콩·올팥 및 목화는 차례로 세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늦기장·늦조·수수는 거의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자라고 있고, 메밀은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우택의 경우, 이번 달 초6일부터 초8일까지의 비로 평창·강릉·이천·평해·낭천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흡곡·양구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울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14·15일의 비로 원주·영월·정선·홍천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간성·횡성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고성은 1서가 내렸습니다.

기우제의 경우, 평해·통천·양구·흡곡 등 4개 고을은 이미 기우제를 중지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25. 1892년(고종 29) 윤6월 26일(양력 8월 18일)

各司臚錄 27책, 關東啓錄 1책(170a~170a) / 關東啓錄 1책(68b~68b)

道內農形雨澤，纔已馳啓爲白有在果。臣營下今月二十五日辰時始雨，或霏或灑，當日酉時乃止，測雨器水深爲二寸一分是白乎旃。連〈接〉各邑所報，則今月十四五日之雨，蔚珍·平海·江陵等三邑川渠漲滿，襄陽得一犁，狼川得一鋤是如爲白有知乎。嗣後形止，陸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向教是事。

강원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5일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유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1푼이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4·15일의 비로 울진·평해·강릉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양양은 1려가 내렸고, 낭천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계속해서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26. 1892년(고종 29) 7월 2일(양력 8월 23일)

各司謄錄 27책, 關東啓錄 1책(170c~170d) / 關東啓錄 1책(69b~70a)

道內雨澤及臣營下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在有[有在]果. 去月二十九日戌時又雨, 或霏灑或滂沱, 今月初一日申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三寸七分是白乎旆. 連接各邑所報, 則農形段, 早稻早黍·粟·唐稷, 間或胚胎, 豆·太·木花, 始爲開花, 晚稻晚黍·粟, 方張再耘, 根耕豆·太初耘, 木麥出土. 雨澤段, 去月十四五日之雨, 三陟川渠漲滿, 十九日至二十一二日之雨, 麟蹄·平康·通川等三邑得一犁. 二十四五日之雨, 橫城·歙谷·杆城·高城等四邑得一鋤, 洪川·金化兩邑得一犁是如爲白有知乎. 嗣後形止,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矣, 詮次善啓向教是事.

강원도 내 우택 및 저의 감영에 내린 비의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지난달 29일 술시부터 또 비가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더러 짹짹 쏟아지더니 이번 달 초1일 신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7푼이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기장·올조·수수는 간혹 알을 배고, 콩·팥과 목화는 비로소 꽃이 피고, 늦벼·늦기장·늦조는 한창 재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초벌 김매기를 하고, 메밀은 싹이 땅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택의 경우, 지난달 14·15일의 비로 삼척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19일부터 21·22일까지의 비로 인제·평강·통천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24·25일의 비로 횡성·흡곡·간성·고성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홍천·김화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계속해서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27. 1892년(고종 29) 7월 12일(양력 9월 2일)

各司臚錄 27책, 關東啓錄 1책(171d~171d) / 關東啓錄 1책(71b~72a)

道內農形雨澤及臣營下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農形段, 早稻早黍·粟·唐稷, 次第發穗, 豆·太始爲結穀, 木花方張開花, 晚稻晚<黍>粟, 間或三耘, 根耕豆·太, 方張初耘, 木麥向長. 雨澤段, 自去月十八日至二十一日之雨, 鐵原·伊川兩邑川渠漲滿, 安峽·淮陽兩邑得一犁, 麟蹄得二鋤. 二十三日及二十五日之雨, 金城·平康兩邑川渠漲滿, 高城·歙谷兩邑得一犁. 二十九日至今月初四日之雨, 楊口得一犁, 原州·旌善·高城·洪川·橫城等五邑川渠漲滿, 江陵得二鋤, 麟蹄得二犁是如爲白有在乎. 嗣後形止, 陸續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向教是事.

강원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 및 저의 감영에 내린 비의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기장·올조·수수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콩·팥은 비로소 꼬투리를 맺고, 목화는 한창 꽃이 피고 있고, 늦벼·늦기장·늦조는 간혹 세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메밀은 자라고 있습니다.

우택의 경우, 지난달 18일부터 21일까지의 비로 철원·이천 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안협·회양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인제는 2서가 내렸고, 23일부터 25일까지의 비로 금성·평강 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고성·흡곡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29일부터 이번 달 초4일까지의 비로 양구는 1려가 내렸고, 원주·정선·고성·홍천·횡성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강릉은 2서가 내렸고, 인제는 2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계속해서 아뵐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28. 1892년(고종 29) 7월 19일(양력 9월 9일)

各司謄錄 27책, 關東啓錄 1책(172a~172b) / 關東啓錄 1책(72b~73a)

道內農形雨澤,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今月十六日卯時始雨, 或霏或灑, 十九日寅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三寸是白乎旂. 連接各邑所報, 則自今月初一日至初七日之雨, 金化·鐵原·平康·伊川·安峽·楊口·狼川·金城·淮陽·通川等十邑川渠漲滿, 杆城·歙谷兩邑得一犁, 襄陽得一鋤是如爲白有在乎.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向教是事.

강원도 내 농사 상황 및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달 16일 묘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9일 인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1일부터 초7일까지의 비로 김화·철원·평강·이천·안협·양구·낭천·금성·회양·통천 등 10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간성·흡곡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양양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29. 1892년(고종 29) 7월 22일(양력 9월 12일)

各司臚錄 27책, 關東啓錄 1책(173a~173b) / 關東啓錄 1책(74b~74b)

道內雨澤及臣營下得雨形止，纔已馳啓爲白有在果。今月二十一日辰時又雨，或霏或灑，二十二日寅時乃止，測雨器水深爲一寸六分，而陰雲未解，雨意尙濃是白乎旃。連接各邑所報，則農形段，早稻早黍·粟·唐稷，幾盡發穗，豆·太過半結殼，木花方張結穎，晚稻晚黍·粟，次第胚胎，根耕豆·太開花，木麥漸長。雨澤段，今月十四五日之雨，麟蹄得一鋤，自十六日至十九日之雨，原州·平昌兩邑川渠漲滿是如爲白有知乎。嗣後形止，陸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向教是事。

강원도 내 우택 및 저의 감영에 내린 비의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달 21일 진시에 또 비가 내렸는데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2일 인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6푼이었습니다. 그런데 먹구름이 흩어지지 않아 비올 조짐이 아직도 짙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올기장·올조·수수는 거의 다 이삭이 났고, 콩과 팥은 절반 이상 꼬투리를 맺고 목화는 한창 다래를 맺고, 늦벼·늦기장·늦조는 차례로 알을 배고, 그루같이한 콩·팥은 꽃이 피고 메밀은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우택의 경우, 이번 달 14·15일의 비로 인제는 1서가 내렸고, 16일부터 19일까지 비로 원주·평창 2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계속해서 아뿔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30. 1892년(고종 29) 8월 2일(양력 9월 22일)

各司謄錄 27책, 關東啓錄 1책(174a~174a) / 關東啓錄 1책(76a~76a)

道內農形雨澤及臣營下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農形段, 早稻早黍·粟·唐稷·豆·太, 次第入實, 木花間或吐絮, 晚稻晚黍粟, 方張發穗, 根耕豆·太結殼, 木麥開花. 雨澤段, 去月十二三日之雨, 通川·歙谷·安峽等三邑川渠漲滿, 襄陽·高城兩邑得一鋤, 平海湍塵. 自十六日至二十二日之雨, 寧越·平海·江陵·旌善·杆城·高城·橫城·洪川·麟蹄·楊口等川渠漲滿是如爲白有如乎.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向教是事.

강원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 및 저의 감영에 내린 비의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올벼와 올기장·올조·수수·올콩·올팍은 차례로 알이 들고 목화는 간혹 솜이 터지고 늦벼·늦기장·늦조는 한창 이삭이 패고 있으며, 그루같이한 콩·팍은 꼬투리를 맺고 메밀은 꽃이 피고 있습니다. 우택의 경우, 지난달 12·13일의 비로 통천·흙곡·안협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양양·고성 등 양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평해는 먼지만 적실 정도였으며, 16일부터 22일까지 비로 영월·평해·강릉·정선·간성·고성·횡성·홍천·인제·양구 등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뿔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31. 1893년(고종 30) 3월 3일(양력 4월 18일)

各司臚錄 27책, 關東啓錄 1책(191c~191d) / 關東啓錄 1책(110b~111a)

道內農形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農形段, 秋耕兩麥向長, 春牟間或出土, 耳牟始爲耕播, 畓廬方張初播耕. 雨澤段, 自去月十五日至十八日之雨, 平海·安峽·狼川·通川等四邑得一犁, 江陵·高城·平康·伊川·楊口等五邑得一鋤. 自十六日至十八日之雨, 杆城得一犁, 自十八日至二十日之雨, 蔚珍·麟蹄得一犁, 平昌得一鋤是如爲白有在乎.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善啓云云.

강원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같이 보리와 밀은 쑥쑥 자라고 봄보리는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오고 귀리는 비로소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논은 한창 초벌 갈아엎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택의 경우,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비로 평해·안협·낭천·통천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강릉·고성·평강·이천·양구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으며, 16일부터 18일까지 비로 간성은 1려가 내렸고, 18일부터 20일까지 비로 울진·인제는 1려가 내렸고, 평창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32. 1893년(고종 30) 3월 19일(양력 5월 4일)

各司謄錄 27책, 關東啓錄 1책(193b~193c) / 關東啓錄 1책(114b~114b)

道內農形雨澤，纔已馳啓爲白有在果。臣營下今月十六日酉時始雨，或霏或灑，十八日申時乃止，測雨器水深爲一寸二分是白乎旃。連接各邑所報，則今月初八九日之雨，寧越得一犁，旌善得二鋤，平昌·洪川兩邑得一鋤是如爲白有知乎。嗣後形止，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是良矣，詮次善啓云云。

강원도 내 농사 상황과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달 3월 16일 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8일 신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2푼이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8·9일의 비로 영월은 1려가 내렸고, 정선은 2서가 내렸고, 평창·홍천 2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33. 1893년(고종 30) 3월 23일(양력 5월 8일)

各司臚錄 27책, 關東啓錄 1책(194a~194b) / 關東啓錄 1책(115b~116a)

今月十六日臣營下得雨形止及各邑雨澤，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農形段，秋
牟始爲胚胎，眞麥漸次茁長，春牟向青，耳牟立苗，早黍·粟·豆·太·木花，間或出土，晚黍·粟·唐
稷，方張耕播，早晚稻立苗。雨澤段，今月初九日之雨，金城得一鋤，初九十日之雨，三陟得一
鋤，自十六日至十八日之雨，平昌·洪川兩邑得一犁，原州得二鋤，橫城得一鋤是如爲白有等
以。嗣後形止，連續登聞計料。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詮次善啓云云。

이번 달 16일에 저의 감영에 내린 비의 경위 및 각 고을의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비로소 알을 배고 밀은 점차 싹이 자라고 봄보리는 푸르러지고, 귀리는 싹이 트고 올기장
과 올조·올콩·올팍 및 목화는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오고, 늦기장·늦조·수수는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으며, 올벼와 늦벼는 싹이 트고 있습니다.

우택의 경우, 이번 달 초9일의 비로 금성은 1서가 내렸고, 초9일·10일의 비로 삼척은
1서가 내렸고, 16일부터 18일까지 비로 평창·홍천 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원주는
2서가 내렸고, 횡성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연달아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정리하여 잘 보고해 주십시오.……

0134. 1888년(고종 25) 6월 1일(양력 7월 9일)

各司謄錄 27책, 春川留營啓牒錄 1책(222b~222c) / 春川留營啓牒錄 1책(2a~2a)

去月二十九日辰時至, 下雨二寸一分之由, 昨已馳啓爲白在果. 卽接本府判官任龜鎬牒報, 則去月二十九日辰時以後, 乍止旋霏, 至本月初一日辰時開霽, 營下測雨器水深, 又添七寸二分, 兩次所得, 合爲九寸三分, 川渠漲溢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云云.

지난달 29일 진시까지 내린 비가 2치 1푼인 연유는 어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본 춘천부 판관 임구호의 첩보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9일 진시 이후 잠깐 그쳤다가 곧바로 주룩주룩 내리다가 이번 달 초1일 진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유명 측우기 수심은 또 7치 2푼이고, 2차례 내린 것은 총 9치 3푼이었으며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35. 1888년(고종 25) 7월 9일(양력 8월 16일)

各司臚錄 27책, 春川留營啓牒錄 1책(222c~222d) / 春川留營啓牒錄 1책(2a~2b)

本府境內雨澤及農形，前已馳啓爲白在果。卽接本府判官任龜鎬牒報，則本月初八日寅時量始雨，霏微霑灑，至初九日卯時量乃霽，營下測雨器水深爲八分是如爲白乎旆。各面任掌等所報內，田農豆·太·木綿已盡除草，今始起花，黍·稷·粟間或胚胎，畚農早稻間多發穗，晚稻已盡三除草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云云。

본 춘천부 지역 내 우택 및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본 춘천부 관관 임구호의 첩보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8일 인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부슬부슬 내리다가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더니 초9일 묘시쯤에 이르자 이내 그쳤는데 유명 측우기 수심은 8푼이었다고 합니다.

각 면 임장 등의 보고 내용에 밭농사인 콩·팥·목화는 이미 다 김매기를 하고 지금 꽃이 피기 시작하였으며, 기장·수수·조는 간혹 알을 배고, 논농사인 올벼는 그사이에 이삭이 많이 뻗고, 늦벼는 이미 세벌 김매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36. 1888년(고종 25) 7월 24일(양력 8월 31일)

各司牒錄 27책, 春川留營啓牒錄 1책(222d~222d) / 春川留營啓牒錄 1책(2b~3a)

本府境內農形及雨澤, 前已馳啓爲白在果. 卽接各面任掌等所報, 則田農豆·太方張結穀, 黍·稷·粟已盡發穗, 木綿次第作實, 畝農早稻向熟, 中稻入實, 晚<稻>移秧方張發穗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云云.

본 춘천부 지역 내 농사 상황 및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각 면 임장 등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밭농사인 콩·팥은 한창 꼬투리를 맺고 있으며, 기장·수수·조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목화는 차례로 다래를 맺고, 논농사인 올벼는 익어가고 중벼는 알이 들고 늦벼로 모내기한 것은 한창 이삭이 패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37. 1888년(고종 25) 8월 7일(양력 9월 12일)

各司臚錄 27책, 春川留營啓牒錄 1책(222d~223a) / 春川留營啓牒錄 1책(3a~3a)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在果. 卽接本府判官任龜鎬牒報, 則各面任掌等所報內, 田農豆·太盡爲入實, 黍·〈稷〉·粟向熟, 木綿間多摘花, 畚農早稻日漸成熟, 中稻次第向熟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云云.

본 춘천부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본 춘천부 관관 임구호의 첩보를 접수해 보니, 각 면 임장 등의 보고 내용에, 발농사인 콩·팥은 알이 다 들었고, 기장·수수·조는 익어가고, 목화는 그사이에 많이 숨을 따고, 논농사인 올벼는 날로 성숙해 지며 중벼는 차례로 익어간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38. 1888년(고종 25) 8월 23일(양력 9월 28일)

各司謄錄 27책, 春川留營啓牒錄 1책(223a~223a) / 春川留營啓牒錄 1책(3a~3a)

本月二十二日夜, 臣營下霜降是白乎等以. 緣由馳啓云云.

이번 달 22일 밤에 저의 유영에 서리가 내렸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39. 1889년(고종 26) 3월 10일(양력 4월 10일)

各司臚錄 27책, 春川留營啓牒錄 1책(226d~226d) / 春川留營啓牒錄 1책(11b~11b)

卽接本府判官任龜鎬牒報, 則本月初七日辰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同日申時量開霽, 營下測雨器水深爲六分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云云.

방금 본 춘천부 판관 임구호의 첩보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7일 진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신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유명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40. 1889년(고종 26) 3월 17일(양력 4월 16일)

各司謄錄 27책, 春川留營啓牒錄 1책(227d~227d) / 春川留營啓牒錄 1책(13b~13b)

本府境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本府判官任龜鎬牒報, 則各面任掌等所報內, 農形段, 秋牟向靑, 春牟耕播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云云.

본 춘천부 지역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본 춘천부 판관 임구호의 첩보를 접수해 보니, 각 면 임장 등의 보고 내용에, 농사 상황의 경우 가을보리는 푸르러지고 봄보리는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린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41. 1889년(고종 26) 4월 4일(양력 5월 3일)

各司臚錄 27책, 春川留營啓牒錄 1책(228a~228b) / 春川留營啓牒錄 1책(14b~14b)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本府判官安吉壽牒報, 則各面任掌等所報. 農形段, 田農秋牟苗長, 春牟向長, 木綿·豆·太·黍·稷·粟, 次第耕播, 畚農早·晚稻, 方張注秧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云云.

본 춘천부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본 춘천부 판관 안길수의 첩보를 접수해 보니, 각 면 임장 등의 보고에, 농사 상황의 경우 밭농사인 가을보리는 싹이 자라고 봄보리는 싹싹 자라고, 목화·콩·팥·기장·수수·조는 차례로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며, 논농사인 올벼·늦벼는 한창 모에 물을 대고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42. 1889년(고종 26) 4월 16일(양력 5월 15일)

各司謄錄 27책, 春川留營啓牒錄 1책(228b~228b) / 春川留營啓牒錄 1책(14b~14b)

卽接本府判官安吉壽牒報, 則本月十四日辰時始雨, 霏微霏灑, 至同日申時開霽, 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一分是忒遺, 各面任掌等所報. 農形段, 田農秋牟胚胎, 間或發穗, 春牟苗長, 木綿·豆·太·黍·稷·粟, 次第出土, 畚農早·晚稻立苗, 間間出水是如爲白有等以. 緣由竝以馳啓云云.

방금 본 춘천부 판관 안길수의 첩보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4일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부슬부슬 내리다가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더니 같은 날 신시에 개었는데, 유명 측우기 수심은 1치 1푼이었습니다. 각 면 임장 등의 보고에, 농사 상황의 경우 밭농사인 가을보리는 알을 배는데 간혹 이삭이 패고 봄보리는 싹이 자라고, 목화·콩·팥·기장·수수·조는 차례로 싹이 땅 밖으로 나오고 있으며, 논농사인 올벼·늦벼는 싹이 트고, 간간이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43. 1889년(고종 26) 4월 27일(양력 5월 26일)

各司臚錄 27책, 春川留營啓牒錄 1책(228b~228b) / 春川留營啓牒錄 1책(15a~15a)

本府農形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本府判官安吉壽牒報, 則各面任掌等所報內, 田農
牟麥, 次第向黃, 木綿·豆·太·黍·稷·粟及畝農早·晚稻, 漸次向長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云
云.

본 춘천부 농사 상황과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본 춘천부 관관
안길수의 첩보를 접수해 보니, 각 면 임장 등의 보고 내용에, 밭농사인 보리는 차례로
누렇게 익어가고, 목화·콩·팥·기장·수수·조 및 논농사인 올벼·늦벼는 점차 자란다고 합니
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44. 1889년(고종 26) 5월 11일(양력 6월 9일)

各司謄錄 27책, 春川留營啓牒錄 1책(228b~228c) / 春川留營啓牒錄 1책(15a~15a)

本府農形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本府判官安吉壽牒報, 則各面任掌等所報內, 田農
牟麥先從成熟, 始爲刈穫, 木綿·豆·太·黍·稷·粟, 間間初除草, 畝農早·中稻方張移秧是如爲白
有等以. 緣由馳啓云云.

본 춘천부 농사 상황과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본 춘천부 관관
안길수의 첩보를 접수해 보니, 각 면 임장 등의 보고 내용에, 밭농사인 보리는 먼저
성숙하여 비로소 베어 수확하고, 목화·콩·팥·기장·수수·조는 간간이 초벌 김매기를 하고,
논농사인 올벼·중벼는 한창 모내기한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45. 1889년(고종 26) 5월 11일(양력 6월 9일)

各司臚錄 27책, 春川留營啓牒錄 1책(228c~228c) / 春川留營啓牒錄 1책(15a~15b)

見今夏至不遠, 亢旱太甚, 移秧差晚, 民情渴悶乙仍于, 本府祈雨祭, 不卜日先就社稷壇虔誠設行之意, 發甘分付於本府判官安吉壽處爲白乎旆. 緣由馳啓云云.

현재 하지가 멀지 않은데 오랜 가뭄이 매우 심해 모내기가 조금 늦어지니 백성들의 심정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춘천부 기우제를 날짜를 가리지 말고 먼저 사직단으로 가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라는 뜻으로 본부 관관 안길수에게 공문을 보내 분부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46. 1889년(고종 26) 5월 20일(양력 6월 18일)

各司牒錄 27책, 春川留營啓牒錄 1책(228c~228c) / 春川留營啓牒錄 1책(15a~15b)

本府境內祈雨祭, 不卜日設行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卽接本府判官安吉壽牒報, 則初次祈雨祭, 本月十六日, 設行於社稷壇, 而本月十五日丑時量始雨, 同日寅時量乃止, 僅爲浥塵是如爲白有臥乎所. 久闕之餘, 以若浥塵之雨, 自不無未洽之歎, 故再次祈雨祭, 仍爲設行之意, 申飭于本府判官爲白乎旆. 緣由馳啓云云.

본 춘천부 지역 내 기우제를 날짜를 가리지 않고 시행하는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본 춘천부 판관 안길수의 첩보를 접수해 보니, 1차 기우제를 이번 달 16일 사직단에서 시행하였으며, 이번 달 15일 축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같은 날 인시쯤 이내 그쳤는데 겨우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오랜 가뭄 끝에 이처럼 먼지만 적실 정도의 비는 흡족하지 못하다는 한탄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2차 기우제를 이내 시행하라는 뜻으로 본 춘천부 판관에게 단단히 지시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47. 1889년(고종 26) 5월 22일(양력 6월 20일)

各司臚錄 27책, 春川留營啓牒錄 1책(228d~228d) / 春川留營啓牒錄 1책(15b~16a)

卽接本府判官安吉壽牒報, 則再次祈雨祭, 本月十八日, 設行于釜淵, 而尙未得雨, 言念民事, 誠甚渴悶是如爲白臥乎所. 三次祈雨祭, 仍爲設行之意申飭爲白乎旆. 緣由馳啓云云.

방금 본 춘천부 판관 안길수의 첩보를 접수해 보니, 2차 기우제를 이번 달 18일 부연에서 시행했는데, 아직 비가 내리지 않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걱정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3차 기우제를 이내 시행하라는 뜻으로 단단히 지시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48. 1889년(고종 26) 5월 23일(양력 6월 21일)

各司牒錄 27책, 春川留營啓牒錄 1책(228d~229a) / 春川留營啓牒錄 1책(16a~16a)

卽接本府判官安吉壽牒報，則本府三次祈雨祭，本月二十二日設行于大龍山，而自本月十八日丑時量始雨，或灑或霖，至十九日辰時量，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二分，許久渴望之餘，只此寸餘之雨，無以周洽是乎乃，見今密雲四布，雨意尙濃是如是乎則，四次祈雨祭，姑爲停止之意申飭爲白乎旆。緣由馳啓云云。

방금 본 춘천부 판관 안길수의 첩보를 접수해 보니, 본 춘천부 3차 기우제를 이번 달 22일 대룡산에서 시행하였는데, 이번 달 18일 축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주룩주룩 내리다가 19일 진시쯤에 이르렀는데 유영 측우기 수심은 1치 2푼이었습니다. 오래 애타게 바라던 끝에 이렇게 단지 1치 남짓의 비로는 두루 흡족하지 못하지만, 현재 뻥뻥한 구름이 사방에 퍼져 비올 조짐이 아직 짙다고 합니다. 그래서 4차 기우제는 일단 중지하라는 뜻으로 단단히 지시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49. 1889년(고종 26) 5월 26일(양력 6월 24일)

各司臚錄 27책, 春川留營啓牒錄 1책(229a~229a) / 春川留營啓牒錄 1책(16a~16b)

本府雨澤及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本府判官安吉壽牒報, 則各面任掌等所報內, 田農春牟盡爲刈穫, 木綿·豆·太·黍·稷·粟, 已盡初除草, 畚農早·中稻漸次向青, 晚稻間間移秧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云云.

본 춘천부 우택 및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본 춘천부 관관 안길수의 첩보를 접수해 보니, 각 면 임장 등의 보고 내용에, 밭농사인 봄보리는 다 배어 수확했고, 목화·콩·팥·기장·수수·조는 이미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논농사인 올벼와 중벼는 점차 푸르르 가며, 늦벼는 간간이 모내기한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50. 1889년(고종 26) 5월 28일(양력 6월 26일)

各司謄錄 27책, 春川留營啓牒錄 1책(229a~229a) / 春川留營啓牒錄 1책(16b~16b)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本府判官安吉壽牒報, 則本月二十六日丑時量始雨, 或霏或灑, 至同日辰時量, 營下測雨器水深爲一寸五分, 而見今濃雲四塞, 尙有連霏之意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云云.

본 춘천부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본 춘천부 관관 안길수의 첩보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26일 축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진시쯤에 이르렀는데 유명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이었습니다. 현재 짙은 구름이 사방에 꽉 막았으니 아직 연이어 세차게 내릴 조짐이 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51. 1889년(고종 26) 6월 1일(양력 6월 28일)

各司臚錄 27책, 春川留營啓牒錄 1책(229a~229b) / 春川留營啓牒錄 1책(16b~17a)

本府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本府判官安吉壽牒報, 則自五月二十六日辰時量, 雨勢乍止乍霑, 至二十七日午時量, 營下測雨器水深, 又添一寸三分, 前後所得, 合爲二寸八分, 高低周洽, 川渠漲流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云云.

본 춘천부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본 춘천부 관관 안길수의 첩보를 접수해 보니, 5월 26일 진시쯤 비의 형세가 잠깐씩 그쳤다 주룩주룩 내리다가 하더니 27일 오시쯤에 이르렀는데 유영 측우기 수심은 또 1치 3푼이었고, 지금까지 내린 것은 총 2치 8푼이며, 높고 낮은 곳이 두루 흡족하고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흐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52. 1889년(고종 26) 6월 10일(양력 7월 7일)

各司謄錄 27책, 春川留營啓牒錄 1책(229b~229c) / 春川留營啓牒錄 1책(17a~17a)

本府雨澤及農形，前已馳啓爲白有在果。卽接本府判官安吉壽牒報，則本月初七日丑時始雨，或霪或灑，至同日辰時量開霽，營下測雨器水深爲八分是迄遣，各面任掌等所報內，田農木綿·豆·太·黍·稷·粟，間間再除草，畚農早·晚稻初除草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云云。

본 춘천부 우택 및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본 춘천부 관관 안길수의 첩보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7일 축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진시쯤에 이르렀는데, 유명 측우기 수심은 8푼이었습니다.

각 면 임장 등의 보고 내용에, 밭농사인 목화·콩·팥·기장·수수·조는 간간이 두벌 김매기를 하고, 논농사인 올벼와 늦벼는 초벌 김매기를 한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53. 1889년(고종 26) 6월 19일(양력 7월 16일)

各司臚錄 27책, 春川留營啓牒錄 1책(229d~229d) / 春川留營啓牒錄 1책(18a~18a)

本府雨澤，前已馳啓爲白有在果。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李民熙牒報，則本月十五日戌時始雨，或霏或灑，至十六日辰時開霽，營下測雨器水深爲二寸二分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云云。

본 춘천부 우택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본 춘천부 관관 겸임 중군 이민희의 첩보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5일 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6일 진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유명 측우기 수심은 2치 2푼이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54. 1889년(고종 26) 6월 23일(양력 7월 20일)

各司謄錄 27책, 春川留營啓牒錄 1책(229d~230a) / 春川留營啓牒錄 1책(18a~18a)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李民熙牒報, 則各面任掌等所報內, 農形段, 田農木綿·豆·太·黍·稷·粟漸長, 畓農早·晚稻再除草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云云.

본 춘천부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본 춘천부 관관 겸임 중군 이민희의 첩보를 접수해 보니, 각 면 임장 등의 보고 내용에, 농사 상황의 경우 밭농사인 목화·콩·팥·기장·수수·조는 점점 자라고, 논농사인 올벼와 늦벼는 두벌 김매기를 한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55. 1889년(고종 26) 7월 5일(양력 8월 1일)

各司臚錄 27책, 春川留營啓牒錄 1책(231a~231a) / 春川留營啓牒錄 1책(20a~20b)

本府雨澤及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本府判官兼任中軍李民熙牒報, 則去六月二十八日午時始雨, 霏微霑灑, 至今月初二日辰時而止, 營下測雨器水深爲三寸八分, 陰雲密濃, 尙有連霏之意是忒遺. 各面任掌等所報內, 農形段, 田農木綿起花, 豆·太·黍·稷·粟茁長, 畚農早稻漸長是如, 報來是白乎等以. 緣由馳啓云云.

본 춘천부 우택 및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본 춘천부 관관 겸임 중군 이민희의 첩보를 접수해 보니, 지난 6월 28일 오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부슬부슬 내리다가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더니 이번 달 초2일 진시에 이내 그쳤는데 유영 측우기 수심은 3치 8푼이었으며, 먹구름이 뻥뻥하고 질어서 아직 연이어 주룩주룩 내릴 조짐이 있습니다.

각 면 임장 등의 보고 내용에, 농사 상황의 경우 밭농사인 목화는 꽃이 피고, 콩·팥·기장·수수·조는 싹이 자라고, 논농사인 올벼는 점점 자란다는 보고가 왔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56. 1889년(고종 26) 7월 17일(양력 8월 13일)

各司謄錄 27책, 春川留營啓牒錄 1책(231a~231b) / 春川留營啓牒錄 1책(20b~21a)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本府判官李源兢牒報, 則各面任掌等所報內, 農形段, 田農木綿結實, 豆·太起花, 黍·稷·粟次第胚胎, 畚農早·晚稻茁長是如, 報來是白乎等以, 緣由馳啓云云.

본 춘천부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본 춘천부 판관 이원궁의 첩보를 접수해 보니, 각 면 임장 등의 보고 내용에, 농사 상황의 경우 밭농사인 목화는 다래를 맺고, 콩·팥은 꽃이 피고, 기장·수수·조는 차례로 알을 배고, 논농사인 올벼와 늦벼는 싹이 자란다는 보고가 왔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57. 1889년(고종 26) 7월 29일(양력 8월 25일)

各司臚錄 27책, 春川留營啓牒錄 1책(231b~231b) / 春川留營啓牒錄 1책(21a~21a)

本府農形，前已馳啓爲白有在果。卽接本府判官李源兢牒報，則各面任掌等所報內，農形段，田農木綿間摘取，豆·太結穀，黍·稷·粟次第發穗，畚農早稻發穗，晚稻胚胎是如報來是白乎等以。緣由馳啓云云。

본 춘천부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본 춘천부 판관 이원궁의 첩보를 접수해 보니, 각 면 임장 등의 보고 내용에, 농사 상황의 경우 밭농사인 목화는 간간이 솜을 따서 거두고, 콩·팥은 꼬투리를 맺고, 기장·수수·조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논농사인 올벼는 이삭이 패고 늦벼는 이삭을 밴다는 보고가 왔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58. 1889년(고종 26) 8월 13일(양력 9월 7일)

各司牒錄 27책, 春川留營啓牒錄 1책(231b~231c) / 春川留營啓牒錄 1책(21a~21a)

本府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本府判官李源兢牒報, 則各面任掌等所報內, 農形段, 田農木綿摘取, 豆·太入實, 黍·稷·粟已盡發穗, 畚農早·晚稻盡爲發穗是如, 報來是白乎等以, 緣由馳啓云云.

본 춘천부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본 춘천부 판관 이원공의 첩보를 접수해 보니, 각 면 임장 등의 보고 내용에, 농사 상황의 경우 밭농사인 목화는 숨을 따서 거두고, 콩·팥은 알이 들고, 기장·수수·조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논농사인 올벼와 늦벼는 다 이삭이 났다는 보고가 왔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59. 1889년(고종 26) 8월 26일(양력 9월 20일)

各司臚錄 27책, 春川留營啓牒錄 1책(231c~231c) / 春川留營啓牒錄 1책(21b~21b)

本府農形，前已馳啓爲白有在果。卽接本府判官李源兢牒報，則各面任掌等所報內，農形段，田農豆·太盡爲入實，黍·稷·粟成熟，木綿一向摘取，畚農早·晚稻間或刈穫，晚稻次第向熟是如，報來是白乎等以。緣由馳啓云云。

본 춘천부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본 춘천부 판관 이원궁의 첩보를 접수해 보니, 각 면 임장 등의 보고 내용에, 농사 상황의 경우 밭농사인 콩·팥은 다 알이 들었고, 기장·수수·조는 성숙하였고, 목화는 줄곧 따서 거두고, 논농사인 올벼와 늦벼는 간혹 베어 수확하고 늦벼는 차례로 익어간다는 보고가 왔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발행인	박수희
총괄	김은영
기획	김재영
책임번역	최주희(덕성여자대학교)
공동번역	이상식·유성국·오연숙
출판편집	덕성여자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감수	조윤선(전주대학교)·김상환(고문헌연구원)
제작	흐름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1877-01
ISBN	979-11-6988-376-4(93450)
발행일	2024년 11월 17일
발행처	기상청 국립기상박물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52 https://science.kma.go.kr/museum
자료협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비매품

© 국립기상박물관

©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글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국립기상박물관 소장자료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활용 가능합니다.

출간에 협조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립기상박물관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